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7. **12** Vol. 192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준태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고향집 싸리울에 함박눈이 쌓이고

여화동동 이야기 국악 _ 한 해를 보내면서 일승원음을 기다린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중국 북경



해피 크리스마스



해설 및 지휘 김강규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2007. 12. 18(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 전화예약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www.bschorus.or.kr)

그랜드오페라단

A Lyrical Journey

송년 & 신년맞이 문화예술테마여행

모스크바 볼쇼이극장,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극장에서의 오페라와 발레 관람, 헬싱키에서 발탁해를 가로지르는 초호화 크루즈 '실자리인', 스톡홀름에서의 신년음악회

차이코프스키의 나라

러시아 & 북유럽

시벨리우스와 그리그의 나라

2007.12.30(일) ~ 2008.1.6 (7박 8일)

그랜드오페라단 회원 특별가

390만원 → 295만원

| 문의 | 그랜드오페라단 Tel. 051-610-1004

www.grandopera.or.kr

신청마감일 : 2007. 12. 5(수)



송년&신년맞이 문화예술테마여행

A Lyrical Journey

차이코프스키, 시벨리우스, 그리그

세계 음악사에
가슴 시린 겨울의 서정을 남긴
이 작곡가들의 나라로 떠납니다.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의 겨울 풍경과 예술적 향취

평생에 단 한번
잊지 못할 추억을 원하시는 분들을,
아주 특별한 송년과 신년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러시아와 북유럽으로 떠나는 서정적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핀란드 헬싱키/스웨덴 스톡홀름

1230	인천공항 출발	모스크바 도착 및 호텔 체크인
1231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관광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 궁전, 12사도원, 이반대제의 종루, 레닌묘, 굼백화점, 성바실리 성당, 무명용사의 묘, 마네신 광장, 모스크바 국립대학, 레닌언덕 등 관광 볼쇼이극장 발레/오페라 관람(작품 추후 결정)
1.1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 관광 에르미타주 박물관, 궁전광장, 예술인의 묘 넵스키 대로, 카잔성당, 피의사원 주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술광장 축제 음악회 관람
1.2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이삭성당, 청동기마상, 러시아 미술관, 예술광장 마린스키극장 발레/오페라 관람(작품 추후 결정)
1.3	헬싱키 (핀란드)	초호화 유람선 실자리인 탑승 암석교회, 올림픽 스타디움, 에스플라나다 거리, 시벨리우스 공원, 마켓광장, 원로원 광장, 대성당 등
1.4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관광 전망대, 바사호 박물관, 감라스탄, 시청사, 왕궁, 대성당, 대광장 신년음악회 감상(작품 추후 결정)
1.5	스톡홀름 - 모스크바 - 인천으로 항발	
1.6	인천 도착	

2007. 12. 30(일) ~ 2008. 1. 6 (7박 8일) ■ 신청마감일 : 2007. 12. 5(수)

그랜드오페라단 회원 특별가 : ~~390~~만원 → 295만원 (비자 발급 및 일체경비 포함)

■ 본 여행은 그랜드오페라단 회원을 위해 마련되는 고품격 문화예술 테마여행으로, 차별화된 공연관람과 최고급호텔(4*이상)에서의 숙박 및 초호화 크루즈 탑승 일정을 실비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 공연명은 추후 결정되며, 현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7

法
古
創
新

“명인에게 명곡의 길을 묻다”

2007.12.20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25-813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051)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www.bsgugag.com

예매처 부산은행 전자점



피리 정재국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보유자)



해금 김종식
 (KBS국악관현악단 단원)



소금 장명화
 (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 보유자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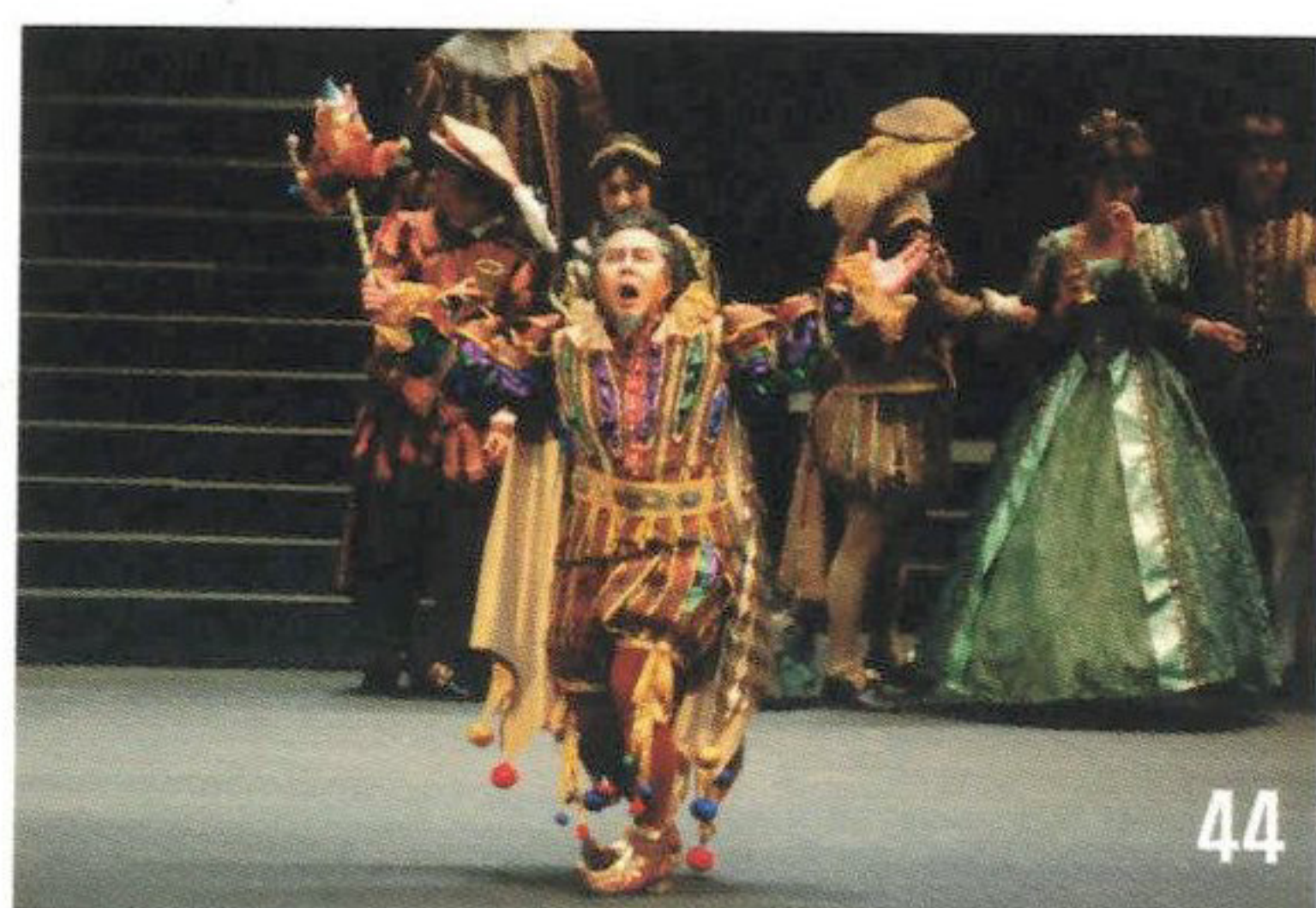


대금 유경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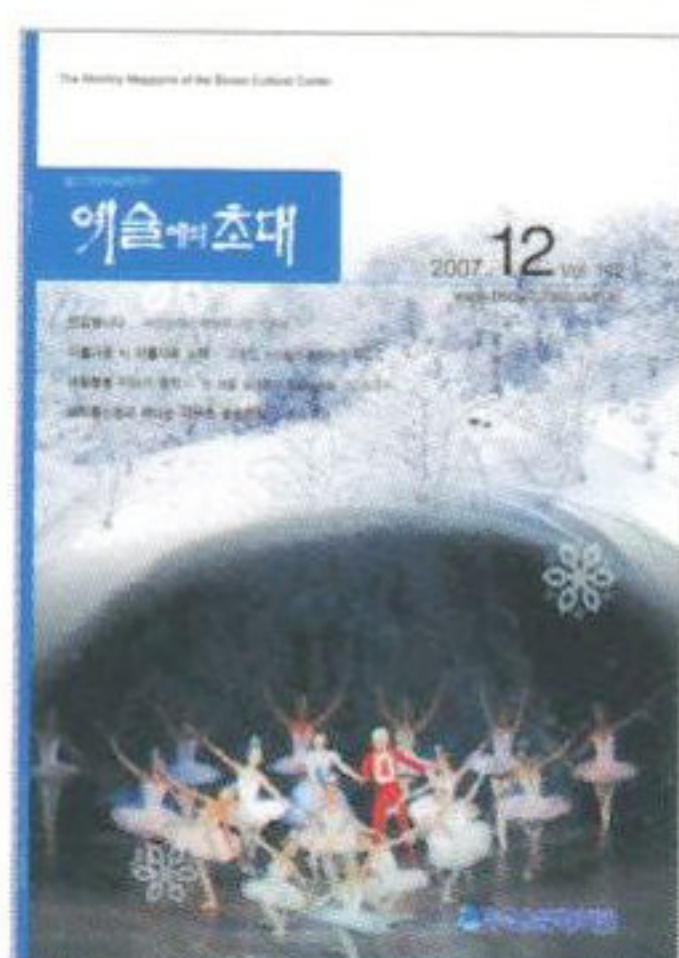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Contents

2007 · 12



- 08 부산문화회관 12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藝脫하자 · 조익래
- 12 반갑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준태
-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고향집 싸리울에 함박눈이 쌓이고 · 김상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중국 북경 · 박건해
- 20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한 해를 보내면서 일승원음을 기다린다 · 강성일
- 22 우리춤 산책 | 부채춤 · 흥기태
- 24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박권숙 '꽃을 찾아서' · 김형술
- 26 연극속으로 | '말'의 후기 · 유상흠
- 28 그곳에 가면 | 임권택 영화연구소
- 30 우리는 문화가족 |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단체
- 32 지금 준비중 |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 34 공연 화제 | 발레 '호두까기 인형', 부산시립교향악단 2007 제야음악회
- 38 이 사람 | 고별무대 갖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배정행
- 39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12월 프로그램 가이드
- 64 쉽게 듣는 클래식 | 오페라(4) · 곽근수
- 65 새로 나온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9 100자 토크
- 7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인 박원철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11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키에프 쉐브첸 코발레단 솔리스트와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이 12월 25일과 2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2

월 공연일정

전시실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작품전-중전시실

12월 1일(토)~12월 6일(목)

문의 김철수(010-4578-3500)

■ 대한민국미술대상전-대·중전시실

12월 11일(화)~12월 14일(금)

12월 17일(월)~12월 20일(목)

문의 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 011-488-3375)

■ 제 13회 아시아미술대전-대전전시실

12월 21일(금)~12월 24일(월)

문의 윤호철(011-592-6990)

■ 유명작가 초대전-중전시실

12월 22일(토)~12월 27일(목)

문의 정태정(644-0005, 011-488-3375)

■ 2007 대한민국 서예콩쿠르 작품전시회-대·중전시실

12월 28일(금)~12월 31일(월)

문의 대한민국 정통서화협회(532-1250, 010-7163-633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안내 : 62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sat
- 2 sun 솔오페라단 · 서울시오페라단 공동제작 베르디 오페라 '리골렛토' 19:30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솔오페라단(747-5750)
- 3 mon 솔오페라단 · 서울시오페라단 공동제작 베르디 오페라 '리골렛토' 19:30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솔오페라단(747-5750)
- 4 tue 솔오페라단 · 서울시오페라단 공동제작 베르디 오페라 '리골렛토' 19:30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솔오페라단(747-5750)
- 5 wed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신라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 6 thu 금산새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경성대학교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
- 7 fri
- 8 sat 로망스 코미디 뮤지컬 '비애로' 19:30
4만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9 sun 로망스 코미디 뮤지컬 '비애로' 15:00, 18:30
4만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10 mon
- 11 tue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10:30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2 wed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인과 함께하는 특별공연 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10:30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고신대학교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
- 13 thu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7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4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6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5 sat 온몸을 휘감는 열병-몸살음악회 TA RO IV 19:00
3만원 · 2만원 · 1만원/새울전통타악진흥회(583-7958, 016-557-6058)
- 16 sun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초청 내한공연 15:00, 19:00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SPA엔터테인먼트(622-4220)
- 17 mon UKO 정기연주회-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정희재(011-589-3111)
- 18 tue 부산시립합창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해피크리스마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9 wed
- 20 thu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법고창산-명인에게 명곡의 길을 묻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1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2007 송년음악회 '카르미나 부라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2 sat 부산 소년의 집 제 1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 소년의 집(256-3901)
- 23 sun 피아니스트 김정원 12개 도시 투어 리사이틀 17:00
5만5천원 · 4만4천원 · 2만2천원/더 스톱프(02-2658-3546)
- 24 mon
- 25 tue 키에프 쉘브첸코 발레단 주역들과 함께 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17:0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70)
- 26 wed 키에프 쉘브첸코 발레단 주역들과 함께 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70)
- 27 thu
- 28 fri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1회 정기연주회 '2007 송년을 위한 가족사랑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29 sat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송년자선음악회- 2007 부산을 빛낸 성악가들의 향연 19:30
3만원 · 2만원/이솔리스티(747-1567)
- 30 sun Sumi jo & Winners 2007 18:00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공연기획 예성(582-2026)
- 31 mon 부산시립교향악단 2007 제야음악회 22:0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중극장

MEDIUM THEATER

- 1 sat 부산 YWCA 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 YWCA(441-2225, 016-575-6736)
- 2 sun
- 3 mon
- 4 tue
- 5 wed 부산시립극단-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수전노'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6 thu 부산시립극단-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수전노'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7 fri 부산시립극단-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수전노'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8 sat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수전노' 16:0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9 sun 부산북구낙동청소년예술단 제 2회 정기공연 16:00
초대/전유경(016-9316-1974)
- 10 mon 제 2회 한울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진희(010-9928-3733)
- 11 tue 아미티에성악연구회 창단 20주년 기념 제 17회 정기연주회 '가곡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19:30 균일 1만원/정종철(010-7556-5006)
- 12 wed
- 13 thu
- 14 fri 2007 부산송년오페라페스티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747-1567, 010-3038-7181)
- 15 sat 2007 부산송년오페라페스티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747-1567, 010-3038-7181)
- 16 sun 2007 부산송년오페라페스티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747-1567, 010-3038-7181)
- 17 mon
- 18 tue 김해성의 춤-어린이를 위한 전통춤 공연 19:00
무료/김해성 무용단(850-3261, 010-6668-1261)
- 19 wed
- 20 thu
- 21 fri
- 22 sat
- 23 sun
- 24 mon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6:00, 19: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25 tue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5:00, 18: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26 wed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6:00, 19: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27 thu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6:00, 19: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28 fri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6:00, 19: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29 sat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6:00, 19: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30 sun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5:00, 18: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 31 mon 뮤지컬 코메디 '넌센스' 16:00, 19:30
4만5천원 · 3만원/(주)AN시티(1644-4484)

소극장

SMALL THEATER

- 1 sat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 sun 4뮤직스토리 19:00
초대/권미영(011-9538-2352)
- 3 mon
- 4 tue
- 5 wed
- 6 thu
- 7 fri 피아노 스타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은희(011-830-8014)
- 8 sat 토요일상설무대 부산-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9 sun 정안선클래스 연주회 17:30
초대/정안선(011-864-2291)
- 10 mon 제 2회 영 팝스 앤 퍼커스 정기연주회 19:30
초대/구용준(010-2911-7460)
- 11 tue
- 12 wed
- 13 thu 이수음악원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양해(010-7179-8149)
- 14 fri 제 2회 피아노 스타 정기연주회 19:00
무료/강은영(611-7537, 010-8564-7537)
- 15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겨울 이야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6 sun
- 17 mon 문혜정 피아노 클래스연주회 19:00
무료/문혜정(011-9531-7445)
- 18 tue
- 19 wed 디가 디가 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초대/정재은(611-5360, 017-855-3360)
- 20 thu 카라얀뮤직클래스 정기연주회 18:30
무료/카라얀뮤직클래스(628-6657)
- 21 fri 제 1회 박성희 제자 발표회-미산 박초월 바디 '홍보가' 연창 19:30
초대/박성희(011-878-6370)
- 22 sat 토요일상설무대 -코아클라리넷 연주회 16:00
초대/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3 sun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 18:00
초대/강인희(011-245-4366)
- 24 mon 석암가사보존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5:00
초대/황경자(055-362-5300, 010-6739-5300)
- 25 tue
- 26 wed
- 27 thu
- 28 fri
- 29 sat
- 30 sun
- 31 mon

부산시내 기타공연 12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sat
- 2 sun PBC 부산평화방송 창작 생활성가제 15:00 -대극장
무료/PBC 부산평화방송(600-8800)
- 3 mon 월요일영화 '바르게 살자'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19:30 -소극장 무료/(사)나사함(623-8522)
- 4 tue
- 5 wed
- 6 thu
- 7 fri
- 8 sat 2007 점프 14:00, 18:00 -대극장 4만원 · 3만원/KNN(1577-7600)
Appassionato Music 19:30 -소극장 무료/정혜인(010-580-9642)
- 9 sun 2007 점프 14:00, 18:00 -대극장
4만원 · 3만원/KNN(1577-7600)
- 10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마약퇴치연극제 '안돼라고 외쳐봐' 14:00 -소극장 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11 tue 일동후디스 태교콘서트 19:00 -대극장 일동후디스(02-2049-2272)
한새오키리나 정기연주회 18:30 -소극장 배수희(011-9530-6760)
- 12 wed 15억 중국인을 감동시킨 조선족 성악가 테너 김영철 리사이틀
19:3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예바라지(017-568-6056)
- 13 thu 장애우 돕기 부산시민 송년의 밤 19:30 -대극장 (사)베누스토(011-862-2400)
바리톤 고봉수 독창회 19:30 -소극장 고봉수(010-9608-8799)
- 14 fri
- 15 sat 심수봉 콘서트 15:00, 19:00 -대극장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2:00, 14:00, 16:00 -소극장
- 16 sun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서울도깨비(02-747-4608)
- 17 mon 월요일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8 tue 유:U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09:00, 11:00 -소극장
- 19 wed 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09:00, 11:0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 20 thu 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09:00, 11:0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 21 fri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20:00 -대극장
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09:00, 11:00 -소극장
- 22 sat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5:00, 20:00 -대극장
니앙스플루트앙상블 연주회 18:00 -소극장 서영미(016-428-4557)
- 23 sun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4:00, 19:00 -대극장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시민회관(630-5200)
- 24 mon 크리스마스 선물 19:00 -소극장
무료/이기환(010-2946-8705)
- 25 tue 오즈의 마법사 11:00, 14:00, 17:00-대극장 Knp(1599-8879)
밸리댄스코리아 부산지부 정기공연 17:00 -소극장 부산지부(555-2388)
- 26 wed 자성대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작품발표회 14:00 -소극장
무료/자성대 노인복지회관(632-7597)
- 27 thu 4+1과 함께하는 제 10회 아담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소극장 무료/장극태(011-582-5189)
- 28 fri
- 29 sat 조덕배, 한영애, 조정현 빈티지 라이브 'Memory 2007'
15:00, 19:0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시민회관(630-5200)
- 30 sun
- 31 mon 찾아가는 컬투쇼-추남들의 수다 19:00, 22:00 -대극장
6만6천원 · 5만5천원/후엔터테인먼트(1588-8477)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sat 부산타악예술문화센터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이승욱(010-3139-3179)
돌로스중창단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무료/손상기(872-5661)
- 2 sun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귀국독창회 19:30 -대공연장
초대/이민정(624-4486)
- 3 mon 고신대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고신권사선교찬양단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김혜자(010-4550-5512)
- 4 tue
- 5 wed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2007 정기공연 19: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510-1740)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6 thu
- 7 fri 뮤지컬 갈라콘서트 19: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246-6404)
- 8 sat 뮤지컬 갈라콘서트 19:00 -대공연장 손욱(246-6404)
승산한국춤 제 4회 정기공연 17:30 -소공연장 허선(010-7727-7544)
- 9 sun 청화당 김온경의 전통무용 18:00 -소공연장
초대/금정문화원(581-9071)
- 10 mon 롯데시 동화오페라 '신데렐라' 19:3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 11 tue 롯데시 동화오페라 '신데렐라' 16:00, 19:3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 12 wed 롯데시 동화오페라 '신데렐라' 16:00, 19:30 -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13 thu 흥법사 개원 4주년 기념 청솔합창단 창단음악회 19:00 -대공연장
초대/장옥분(010-7528-4477)
- 14 fri 부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성낙찬(010-3354-3639)
부산예중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19:30 -소공연장 주혜경(019-587-2364)
- 15 sat 뮤즈콘서트콰이어 창단연주회 18:00 -대공연장 임광민(016-234-2318)
김유진, 이수진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소공연장 김유진(019-322-2167)
- 16 sun
- 17 mon
- 18 tue 소프라노 한송이 귀국독창회 19:30 -대공연장 프리모아트(016-861-6105)
Dream Forever 작은음악회 19:30 -소공연장 백현주(017-585-2052)
- 19 wed 이진성 귀국 피아노독주회 19:30 -대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20 thu
- 21 fri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0:30, 11:40 -대공연장
뮤지컬 '아주 특별한 그림여행' 10:10, 11:20 -소공연장 dubu(02-2654-6854)
- 22 sat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3:00, 15:00 -대공연장
뮤지컬 '아주 특별한 그림여행' 12:00, 14:00, 16:00 -소공연장
- 23 sun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3:00, 15:00 -대공연장
뮤지컬 '아주 특별한 그림여행' 12:00, 14:00, 16:00 -소공연장
- 24 mon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9:30 -대공연장
2만5천원 · 1만5천원/퍼보트(904-0825)
- 25 tue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2:00, 14:00, 16:00
-대공연장 2만5천원 · 1만5천원/퍼보트(904-0825)
- 26 wed 금정수요음악회 '크로노스앙상블 초청 2007 송년음악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7 thu
- 28 fri 뮤지컬 '김종욱찾기' 17:00, 20:00 -대공연장 (주)AN시티(1644-4484)
인형극 '피노키오의 모험' 11:00, 14:00, 16:00 -소공연장 dubu(02-2654-6854)
- 29 sat 뮤지컬 '김종욱찾기' 16:00, 19:00 -대공연장 (주)AN시티(1644-4484)
인형극 '피노키오의 모험' 11:00, 14:00, 16:00 -소공연장 dubu(02-2654-6854)
- 30 sun 뮤지컬 '김종욱찾기' 15:00, 18:00 -대공연장 (주)AN시티(1644-4484)
인형극 '피노키오의 모험' 11:00, 14:00, 16:00 -소공연장 dubu(02-2654-6854)
- 31 mon 뮤지컬 '김종욱찾기' 17:00, 20:00 -대공연장
5만원 · 4만원/(주)AN시티(1644-4484)

● 부산시내 기타공연 12월 달력

울속도문화회관

|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 1 **sat** 부산색소폰필하모니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무료/이봉춘(011-597-5897)
- 2 **sun**
- 3 **mon** **■ 전시일정**
중산서예학원 회원전
- 4 **tue** 12월 6일(목)-12월 10일(월)
문의 중산서예학원(204-0025)
- 5 **wed** 제 56회 동아학예전
12월 27(목)
- 6 **thu** **문의** 동아고등학교(290-5027)
- 7 **fri**
- 8 **sat** 토요일뮤직점프 11:00 -대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 9 **sun**
- 10 **mon**
- 11 **tue**
- 12 **wed** 뮤지컬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0:30,
11:40 -대공연장 2만5천원·1만5천원/퍼보트(904-0825)
- 13 **thu** 뮤지컬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0:30,
11:40 -대공연장 2만5천원·1만5천원/퍼보트(904-0825)
- 14 **fri**
- 15 **sat**
- 16 **sun**
- 17 **mon**
- 18 **tue** 한은주의 솔로춤 19:30 -대공연장
3만원·1만원/경성대학교(620-4964)
- 19 **wed**
- 20 **thu**
- 21 **fri**
- 22 **sat** 토요일뮤직점프 11:00 -대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 23 **sun**
- 24 **mon**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지역주민을 위한 2007 송년음악회
19:50 -대공연장 초대/황성준(011-556-7308)
- 25 **tue**
- 26 **wed**
- 27 **thu** 제 56회 동아학예전 13:00 -대공연장
초대/동아고등학교(290-5027)
- 28 **fri**
- 29 **sat**
- 30 **sun**
- 31 **mon**

해운대문화회관

|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1 **sat** 김성혜 바이올린 독주회 19:0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 **sun**
- 3 **mon**
- 4 **tue**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 18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초대/김분숙(016-846-6792)
- 5 **wed**
- 6 **thu** 비트타악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비트타악앙상블(016-562-6581)
- 7 **fri** 한국바로크앙상블 특별공연 19:30 -대공연장
2만원·1만원·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8 **sat**
- 9 **sun** 하은정의 발(Bal)무용단 창단공연 14: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이시스 모던벨리댄스(633-1543)
- 10 **mon**
- 11 **tue**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2)
- 12 **wed** 아울로스 리코더앙상블 연주회 19: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박성란(010-3193-5474)
- 13 **thu**
- 14 **fri**
- 15 **sat** 가족뮤지컬 '피터팬'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6 **sun** 가족뮤지컬 '피터팬'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7 **mon**
- 18 **tue** 롯데시 동화오페라 '신데렐라' 16:00, 19:30 -대공연장
5만원·3만원·2만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 19 **wed** 롯데시 동화오페라 '신데렐라' 16:00, 19:30 -대공연장
5만원·3만원·2만원/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 20 **thu**
- 21 **fri**
- 22 **sat** 2007 홍순미 모던댄스니케이션-무용과 피아노의 만남 19:00
-대공연장 1만원·5천원/홍순미(010-3601-1187)
- 23 **sun**
- 24 **mon**
- 25 **tue** 앙상블 클라시아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 26 **wed** 장애인돕기 부산음악사랑회 송년음악회 19: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강현철(019-517-8593)
- 27 **thu**
- 28 **fri**
- 29 **sat**
- 30 **sun**
- 31 **mon**

藝脫하자

조익래 · 작곡가, 부산민예총 음악위원장

예술 또는 예술가라는 말은 뭔가 경외심을 갖게 한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경지를 느끼게 하는 용어다. 예술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만치 멀리 떨어져 물끄러미 바라만 봐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일상적인 삶과는 괴리된 뭔가 별난 그들만의 행위처럼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뭔가 끼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내 나이에 새삼 예술이 가당키나 한 일이야?”

왜 이 예술이란 용어가 우리에게는 이다지도 멀게만 느껴질까? 우리의 삶이 각박해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너무 어렵고 무거워 그것을 내 속에 잡아넣지 못해서일까? 물론 예술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창조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기에 생각과 고민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는 생각과 노력 외에 심미적인 감각도 필요하다. 이러니 예술에 지레 겁을 내는 게 당연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예술을 곱씹어보자. 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동물에는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다. 우리가 이 능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적응해 산다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이다. 많은 산란을 위해 주인이 들려주는 음악만 듣고, 주인이 비춰주는 조명만 받고 사는 닭들의 삶과 뭐가 다른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개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예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 주위에 있는 삶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꿀 때 분명 예술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스스로 아름다움을 찾는 작업 그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의 작은 공간을 내 맘에 맞게 꾸며보고, 내 가족을 위해 새로운 재료로 색다른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스스로 찾아 들어보는 이런 행위가 모두 예술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예술적인 삶을 즐겼던 민족이다. 악가무(樂歌舞)를 즐기는 민족이라 일컬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춤과 노래로 표현해오던 민족이다. 물레를 돌리거나, 아기를 재울 때나, 농사일을 하

거나, 방아를 찧을 때 늘 노래를 불렀고 일을 마친 뒤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이런 삶에 변화가 왔다. 우리 삶에 적극적인 예술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남의 예술을 그저 관망하는 소극적 예술행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내가 원해서 부르고 듣는 음악이 아니라, TV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무심결에 그냥 듣게 되고, 어깨춤도 제대로 흔들지 못하고, 남이 추는 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게 되었다.

이제 내 주위의 작은 것에서부터 예술의 재미를 느껴 보자. 예술에 재미를 느껴 꾸준한 반복이 이루어지면, 예술의 능력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예능이 생기면 역으로 또 재미가 더 있어지는 것이 예술의 맛이다.

부산에는 1970년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왕자극장에서 개최했던 때에 비하면, 예술 공간이 매우 많이 생겼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외에도 각 구마다 문화회관이 생겼고, 사설 공연장이나 전시장도 많이 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자는 대부분 전문예술가들이었고, 일반 시민은 늘 그들의 예술행위를 감상하는 소극적인 예술행위에 만족해왔다. 이제 시민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술행위에 함께 뛰어 들 때가 되었다. 이는 전문예술인의 장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행위가 분명 아니다. 많은 비전문예술인이 생겨날 때 전문가의 예술은 더욱 빛이 날 것이며, 관객인프라도 훨씬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민예총 음악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꾸준히 생활음악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이 보다 예술의 맛을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민이 직접 예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함이다. 체육 쪽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는 전문 선수들의 엘리트체육보다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전문체육인이 아니라도 매주 조기축구를 하거나 마라톤, 테니스, 골프, MTB 등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생활체육인이다. 결코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체육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이다. 예술 역시 누구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즉 누구나 생활음악인, 생활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여! 예탈하자. '예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술을 맛보자. 다시금 강조 하건데 아름다움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다. 끝없는 자기연마와 창의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에는 이런 모든 어려움조차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매일 이런 고민을 하며 살자. 오늘은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 볼까?

문화가 미래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준태**



“부산을 떠나 있어 보니 내가 살고 있는 부산이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 알겠더군요.”

금정산의 너른 품과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안준태 행정부시장. 지난해 7월 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산을 잠시 떠났던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10월 1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리운 부산과 재회했다.

부산광역시 복귀와 함께 제 1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바쁜 공식일정을 보내고 있는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그리웠던 부산의 품에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어느 때 보다 즐겁다.

1979년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시에서 공식 생활을 시작한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기획관, 경제진흥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2004년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행정부시장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 446명(비상임 포함)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장을 겸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활동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인 만큼 그는 요즘 부산문화 진흥에 대해 어느 때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는데 객석이 텅 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고통을 보통 산고로 비유하는데 정말 큰 상처가 남을 것 같습니다.”

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이 1년 3개월 동안의 서울 생활 중 절실히 느낀 것이 있다면 부산과 서울의 문화적인 차이다.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작품을 진정으로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들, 특히 공연장에서 모임을 갖는 관객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다.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서울생활을 통해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양적, 질적 인프라는 따를 수 없지만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해변무용제 등은 부산사람들의 열정과 ‘바다’라는 천혜의 조건을 더욱 잘 살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작품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의 부산사랑은 각별하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부산의 도시분위기를 즐기는 그는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자랑 10가지를 직접 구상하기도 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문화뿐입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문화로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지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적 욕구 또한 높아집니다. 문화를 중점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앞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은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확대 시행하여, 부산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각 區의 문화회관을 찾아가 공연하고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내년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이면서 아울러 부산박물관 개관 30주년,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또 국립국악원이 개관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별한 해라고 해서 의미를 두고 문화 진흥의 기치를 내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해라는 것이지요.”

2008년은 부산 문화의 중흥을 위해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는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나갈 생각이다.

부산시민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공연장을 찾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이 조성되어 부산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부산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안준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문화예술 진흥 등 행정 속에 예술적인 토양을 가꾸어 나가고 싶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예술은 관객의 박수를 받고 성장하는 만큼 모든 공연은 물론 행정에도 부산시민의 애정과 열정이 없다면 힘들지요.”

개방적이고 진솔한 부산 사람들의 열정을 믿는다는 안준태 행정부시장. 그와 함께 열어갈 부산의 새로운 모습에 기대가 크다.

고향집 싸리울에 함박눈이 쌓이고

민립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가을의 청취(淸趣)를 만끽(滿喫)하기도 전에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말았다. 11월 8일이 입동(立冬)이었고 23일이 소설(小雪)이다.

가을 산을 온통 홍엽(紅葉)으로 활활 불태우던 단풍들도 어느새 낙엽이 되어 흩날리고, 철새들도 이미 귀소(歸巢)를 서둘러 마칠 즈음이 되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김재호 작시, 이수인 작곡의 '고향의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화꽃 저 버린 겨울 뜨락에/창 열면 하얗게 못서리 내리고/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아아 아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 서 보라/고향길 눈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달가고 해가면 별은 멀어도/산골짜 깊은 골 초가 마을에/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 잔치 흥겨우리/아아아 이 제는 손모아 눈을 감으라/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고향 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고향생각에 눈시울이 절로 더워오고 목이 메일 정도로 절실한 망향(望鄉)의 노래, 애향(愛鄉)의 노래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특히 1절과 2절의 마지막 음절의 시나 멜로디는 너무나 절실하게 어우러져 우리들의 심금(心琴)을 절절(切切)하게 울리고도 남음이 있다. '고향집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하는 시와 멜로디는 정말 보기 드문 절창(絶唱)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망향의 노래는 아니지만 이수인이 시도 쓰고 작곡도 한 '내맘의 강물'도 가을에 부르면 가사나 곡이 지닌 서정성을 한층 더 돋구어줄 것이다.

“수많은 날은 떠나 갔어도/내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내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새파란 하늘 저멀리/구름은 두둥실 떠나고/비바람 모진 되서리/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시련과 수난과 고통을 아롱아롱 빛나는 진주알에 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열락(悅樂)의 동산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신산(辛酸)의 가시밭길도 있다. 인생은 많은 적든 이 양면을 죄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열락미(悅樂味)보다 신산미(辛酸味)를 더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더 고매(高邁)해지고 인간적으로 더 온화(溫和)하고 순후(醇厚)해 진다고 한다.

여름날과 가을날, 비, 바람, 벌레, 장마, 서리 즉 오재(五災)에 가장 많이 시달린 해의 단풍이 어느 해의 단풍보다 더 색깔이 짙고 아름다운 이치와 같다고나 할까?

문득 공초(空超) 오상순 시인의 '꽃자리' 라는 짧은 어록(語錄) 하나가 생각난다.

“얕은 자리가 꽃자리니라/네가 시방/가시 방석처럼 여기는/너의 얕은 그 자리가/바로 꽃자리니라”

자기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기긍정의 태도, 자기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기확인(自己肯定)과 자기격려(self encouragement)의 의지와 신념을 강조한 말이라고 하겠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비바람 모진 된서리/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아롱아롱 더욱 빛나네”라는 가사가 지닌 의미부터가 깊은 인생론적 철학과 사려(思慮)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곡이 붙여지지 않는 않았지만 요즈음과 같은 계절에 암송을 해도 좋을 명시 한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서리 까마귀 울고 간/북천(北天)은 아득하고/수척(瘦瘠)한 산과 들은/내 생각에 잠겼는데/내 마음 나뭇가지에 깃사린 새 한 마리//고독(孤獨)이 연륜(年輪) 마냥/감겨오는 들레 가에/국화(菊花) 향기(香氣) 말라/시절(時節)은 또 저무는데/오늘은 어느 우물가/고달픔을 낚는가//일찍이 너 더불어/푸르렀던 나의 산하(山河)/애석(哀惜)한 날과 달이/낙엽(落葉)지는 영(嶺)마루에/불러도 대답(對答)없어라/흘러만 간 강물이어”

백수(白水) 정완영(鄭完永) 시인의 애모(愛慕)라는 세수(3首) 한편의 현대시조이다.

젊은날 푸르렀던 산하처럼 청청했던 우리들의 인연과 사랑이 오늘에 와선 수척한 산과 들처럼 황량(荒涼)하고 소슬(蕭瑟)하게 되어 버린데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서리 까마귀 울고 간/북천은 아득하고”란 첫째 수 초장이 암시하듯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남북분단의 절통(切痛)할 비극을 간접적으로 은유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시가(詩歌)인 시조(時調)를 아끼고, 갈고, 닦아 빛내는데 한 생애(生涯)를 고스란히 바치신 백수 선생의 시조에는 우리네의 토착적 서정(土着的抒情)을 노래한 명시조들이 적지 않다.

“집 그늘 편안히 내린/해질녘 마당에 앉아/아낙네 다듬는 열무/겨웁도록 고운 빛에/고향 산 가을하늘이/묻어온 듯 하구나”

소경(小景)이라는 단수(單首)의 작품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애뜻하게 담아내고 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다 잃은 것만 같은/허랑(虛浪)히 보낸 세월이/돌아앉아 뉘는 밤은/어디메 비어 젖어서/내 낙엽(落葉)이 춤췄고나”

“그 누가 오라던가/지척이는 이 가을비/시린창(窓) 적막(寂寞) 저편에/흔들리는 저 불빛이/어둠속 내리는 비보다/내가슴엔 더 무겁다”

앞은 '가을앓이' 중의 한 수요, 뒤는 '가을비 내리는 밤' 중의 첫수이다. 가을을 소재로 한 시와 노래는 이밖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그것은 가을이란 계절이 연중 가장 서정적인 계절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감이 넘쳐 흐르는 가을시와 가을 노래를 부르면서 조용히 겨울을 맞이해야 하겠다.

거친 회색도시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열기와 한국 예술가들의 도약

박건해 · 중국 통신원

현재 중국미술계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미술품의 비약적 가격상승, 탄탄한 실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미술 중심지로 진출하는 젊은 예술가들과 그들의 성공, 미술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화랑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국제화랑박람회와 경매까지, 그야말로 중국 미술이라는 테마는 현재 '뜨겁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북경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예술가들의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미술관계자들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따산즈(大山子)라는 지역에 위치한 798예술구라는 곳이다. 원래 1950년대 군수공장 지대였던 이곳은 십여 년 전부터 일부 공장이 문을 닫고 갤러리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현재는 140여 개의 작업실과 갤러리로 형성된 예술구역으로 바뀌었다. 한때 철거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06년 북경 6대 '문화창의산업기지'에 선정됨으로써 이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따산즈 국제예술제 총기획자인 황루이(黃銳)는 '따산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제발전의 모범패턴'이라고 말한다. '개방성, 적극성, 국제화'라고 정의하는 따산즈 예술구는 입장료가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예술가들과 따산즈를 지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지켜오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는 현상으로 그의 정의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개방성, 적극성, 국제화'의 기본패턴으로 인해 앞으로 798예술구는 양호한 시장경제발전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 그는 말한다.



중국 북경음악청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따산즈 798예술구에 들어서있는 문화공간의 절반 이상은 유럽 각국과 아시아의 외국 예술가들과 화랑이 차지하고 있다.

따산즈 798예술구에 위치한 윤궐갤러리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미술협회 관화분과회장이자 관화가로 활동중인 채경혜 씨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몇 년 전 부산국제관화제에서 인연을 맺은 중앙미술학원 관화과 오장강 교수의 추천으로 윤궐갤러리가 초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시내용은 '광상곡-우기청호(狂想曲-雨奇晴好)'라는 제목으로 최근작 20여 점과 함께 화랑 쪽의 요청에 따라 초기작품도 같이 선보였다. 오픈식에는 중앙미술학원 원장인 탕청화(唐承华), 중국미술관 큐레이터인 천취(際旭), 아트뉴스 편집장인 양쿤(楊坤), 폴리국제 옥션 매니저인 쉬취엔(徐娟) 등을 비롯한 미술계 인사들과 강진페이(康劍飞), 장시용(張思永) 등 작가들이 참여했다. 개막일 전시장을 찾은 중국관화가협회 회장이자 저명한 관화가인 광진(廣軍) 씨는 목판과 석판을 혼합한 관화기법이 매우 새롭다는 평과 함께 작품 속에서 큰 기운과 여성스러운 섬세함이 동시에 존재하며 추상적인 표현 능력이 우수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50년대 군수공장 지대였던 따산즈 지역이 140여 개의 작업실과 갤러리를 갖춘 798예술구역으로 바뀌었다.

중국미술정보사이트인 <art news>에 전시에 관련하여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다. '그의 관화는 때로는 청명하고 때로는 흐린 날씨와 같이 명랑하고 자유로운 인생의 풍경과 닮았



'개방성, 적극성, 국제화' 라고 정의하는 따산즈 예술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예술가들과 따산즈를 지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공간을 지켜오고 있다.(798 예술구의 외부모습)

다.

이러한 풍경은 그가 서있었던 모든 순간을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미래를 향해 걸어갈지 연상하게 해주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현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는 각기 다른 색상으로 주제를 표현했는데 황록색은 찬란하게, 파랑색은 짙은 우울함을 느끼게 해주며 깊게 가라앉은 보라, 열정적인 빨강색 등 마치 인생의 각기 다른 시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풍경들은 비록 어떤 순간은 상처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기쁨과 동경에 가득 차 있다'.

채경혜 씨는 이번 초대전을 통해서 한국과 어떤 부분은 닮았으면서도 또 다른 중국문화와 미술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예술가와 화랑의 중국진출과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적 교류에 따른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중국이란

곳에서 한국예술가들과 화랑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채경혜 씨의 전시를 관람한 중국인에게 작품에서 안정되고 부드러우며 맑고 깨끗하다는 소감을 들었을 때 한국 공통적 정서가 외국에서는 가치가 있고 돋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사회의 거대한 스케일과 추진력, 급속한 변화 속에서 불안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중국인들의 심리상태를 작품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막연한 기대와 들뜬 마음으로 중국사회, 경제, 문화를 바라보지만 오히려 중국인들에게는 그러한 사회변화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걸여된 것을 외국인에게 기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국예술가와 화랑들의 중국진출은 매우 고무적이며 일정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안목으로 중국문화와 미술시장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중국생활 7년째인 나의 눈에 비치는 중국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회색도시와 같다. 정제되어지지 않은 중국의 석회질 물처럼 사회 곳곳에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또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다.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북경은 현재 예술의 열기로 인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북경음악청에서 연주회를 가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중국음악과 다른 우리의 전통음악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중국에서 한국예술가들의 활동소식이 자주 들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798예술구의 다양한 모습.

■중국통신원 박건해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 중국중앙미술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북경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일승원음(一乘圓音)을 기다린다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 강사

원차종성변법계(願此鍾聲邊法界)
철위유암실개명(鐵圍幽暗悉皆明)
삼도이고과도산(三途離苦破刀山)
일체중생성정각(一切衆生成正覺)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 미치어
철위산의 어두움을 모두 밝히고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 여의며 칼산지옥 파해서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지게 하소서(새벽종성)

새벽의 여명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나는 가끔 범종소리를 듣는다. 멀리 강원도 오대산의 상원사 종소리, 경주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소리, 서울 종로의 보신각 종소리 등 그 범성을 듣고 있노라면 음악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종소리에 담긴 우리 민족의 염원소리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상원사의 범종(725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하다. 그 옛날 노자(老子)는 대음희성(大音希聲)을, 장자(莊子)는 천뢰지성(天籟之聲)이 있다고 했는데, 상원사의 기상서린 범종소리가 이 소리를 두고 한 말인가.

어찌 상원사의 종소리만 좋겠는가. 일명 성덕대왕의 ‘신령(神靈)스런 종(鐘)’이란 뜻에서 붙여진 신종(神鐘, 771년), 에밀레의 애절한 종소리는 그 여음이 마치 지축(地軸)을 흔드는 것 같다. 장자가 지뢰지성(地籟之聲)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 신(神)의 소리, 신종에는 이런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무릇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바깥을 포함하므로 보아도 그 근원을 볼 수가 없으며, 큰 소리는 천지 사이에 진동하므로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기설을 열어서 삼승의 심오한 가르침을 관찰하게 하고, 신령스런 종을 내걸어서 일승의 원만한 소리를 깨닫게 한다. <譯註 韓國古代金石文>(夫至道包含於形象之外視之不能見其原, 大音震動於天地之間聽之不能聞其響, 是故憑開假說觀三眞之奧, 載懸舉神鍾悟一乘之圓音)

이렇듯 신라인들은 범종의 소리를 '일승원음(一乘圓音)'이라 하였다. 사방으로 두루 울려 퍼지는 종의 소리를 원음이라 하는데, 이는 '깨침의 소리'란 것이다. 범종의 원음, 즉 '묘음'은 전통음악에서 긴 여음과도 비견된다.

에밀레종에는 두 비천상에 약왕보살과 약상보살이 도상되어 있지만, 대개 범종에는 바람에 천의를 휘날리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비천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는 천공을 나르면서 종소리에 음악을 담아 33천세계까지 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원사의 종에 공후라는 현악기와 생황이란 관악기가 그것이다. 현악기는 인연의 줄로 십이인연을, 관악기는 속이 비어있어 공(空)의 이치, 즉 '공도리(空道理)'를 상징한 것이다.

우리는 '음악을 하자'라고 하지 않고 '풍류를 하자'라고 말한다. 종을 치면 사방에 두루 퍼지듯, 나라의 좋은 풍류(風流)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일승원음을 기다린다.

하늘에 천문이 걸리고 대지에 방위가 열렸으며, 산과 물이 나란히 자리 잡고 천하가 나뉘어 뻗었다. 동해 가에 못 신선이 숨은 곳, 땅은 복숭아 골짜기에 머물고 경계는 해 뜨는 곳에 닿았다. 이에 우리나라가 있어 합하여 한 고을이 되었다. 크고도 크도다 성인의 덕이여! 세상에 드물 만큼 더욱 새롭다. 오묘하고도 오묘하도다 맑은 교화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능히 이르게 하였다. 은혜를 멀리까지 입게 하고 물건을 줌에 고루 젓게 하였다. 무성하도다 모든 자손이여 안락하도다 온갖 동포여. 수심어린 구름이 문득 슬퍼지니, 지혜의 태양에 봄이 없구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紫極懸象 黃輿啓方 山河鎮列 區宇分張 東海之上 衆仙所藏 地居桃壑 界接扶桑 爰有我國 合爲一鄉 元元聖德 曠代彌新 妙妙清化 遐邇克臻 將恩被遠 與物霑均 茂矣千葉 安乎萬倫 愁雲忽慘 慧日無春)-에밀레종 뒷면에 새겨진 종소리의 찬사 중에서-



상원사 종의 주악비천상



에밀레종의 공양비천상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은 12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성기만, 홍희철, 강성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승원음'을 칭송한 신라인들의 마음이 우리음악에도 널리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부채춤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부채춤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최승희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이 '신무용'이란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최승희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신무용하면 부채춤이 떠오르듯 최승희를 일컬어 '신무용가'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신무용은 우리 전통춤이 아닌 새로운 춤을 알리기 위해 전통춤을 무대화 시키면서 신무용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신무용이라는 것이 1920년대에 러시아에서 현대무용이 수입되고 일본의 이시이바꾸(석정막)라는 무용가가 붙인 명칭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말하는 '신무용'이라 함은 양춤의 뜻도 되면서 재래춤에 대한 신식춤이란 말도 되고 일본에서의 수입어로서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창작적인 것을 보탠 춤을 가리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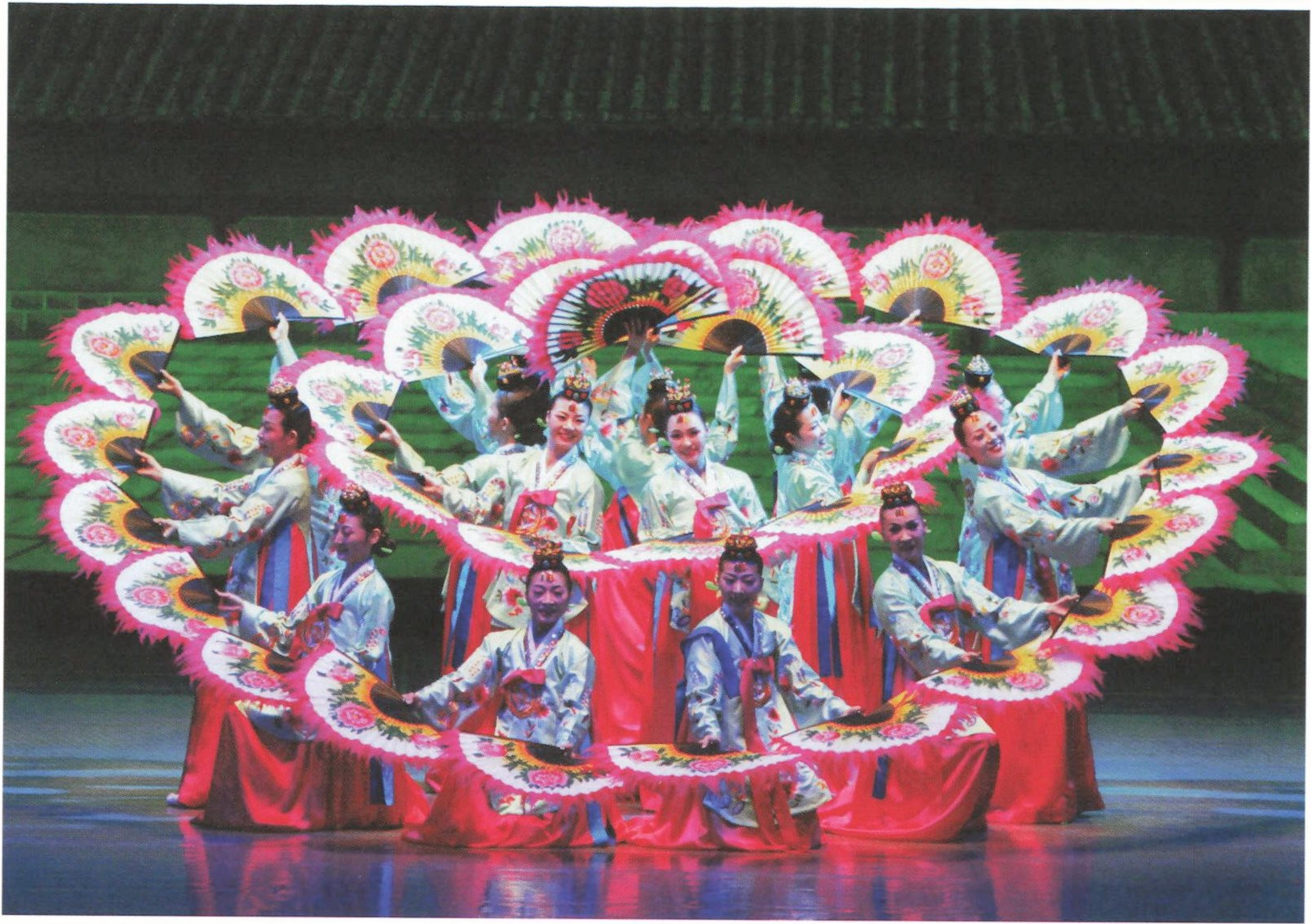
신무용을 무용연구와 공연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우리 무용을 세계로 알린 사람 또한 최승희였고, 그 대표적인 신무용이 부채춤이다. 특히 최승희는 부채춤을 현재의 형태로 정립시켰고, 여러 사람이 양손에 부채를 들고 꽃 모양을 이루면서 도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완성했다고 한다.

당시 서양에서는 그 꽃 모양을 이루는 부채를 보고 격찬을 금치 못했다 한다. 부채춤은 1964년 멕시코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춤의 대명사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 화려한 색채의 의상과 부채와 함께하는 현란한 춤 동작, 꽃 모양을 이루며 뱅글뱅글 도는 아리따운 동양 아가씨의 모습을 꽃의 아름다움과 비유하기도 했다. 가히 세계인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춤임은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 부채춤이 전통 춤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공연 가운데 버젓이 전통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새 부채춤이 전통춤의 한 영역에 슬그머니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최승희가 춤춘 신무용은 민속춤의 현대화였고 이것을 토대로 많은 신무용가들이 우리 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최승희에 의해 만들어진 이 부채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춤이 아니다. 의상이나 작품, 음악 등에 있어 우리의 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춤을 전통춤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춤은 역사라는 긴 시간과 삶의 역정이 담겨 있어야 하며 과거로부터 전해 오는 것으로 그것을 좋은 것으로서 존속시켜야 하겠다는 판단 가치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채춤은 무당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복이나 당의를 입고 양손에는 꽃 그림이나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를 들고 여러 모양의 아름다운 선들을 구사하며 춘다. 유래는 선사 시대부터 나뭇잎



등을 이용해서 만든 부채를 사용했다고 전하지만 언제부터 그 구조나 체제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정리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중국 진나라 때의 학자 최표가 남긴 고금주에 의하면, 순의 임금인 요왕의 선위를 받아 임금이 된 뒤, 널리 현인을 구하여 문견을 넓히고자 오명선을 만들어 사용했음이 전하고 있다.

또한 부채는 일찍이 중국, 일본 등지에 국교품으로 전해진 기록이 남아 있고 혼례 때는 계절과 상관없이 얼굴을 가리는 체면용으로 사용한 것을 관례로 삼아 왔다.

무당이 굿판을 벌려 광란하듯 기세를 올릴 때 삼불선을 희롱하여 멋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이라든가, 광대들이 줄을 탈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부채를 사용하는 등 그 종류와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부채춤은 원과 아름다운 곡선과 화려함과 우아함을 부채를 펴고 접으면서 순간적 대형변화로 춤의 멋을 더한다. 이는 창부타령이나 한강수타령 등의 장단에 맞춰 생동감과 짜임새 있는 춤사위를 이룬다. 처음에는 독무로 창작되었으며, 멕시코 올림픽을 계기로 매스게임식 군무로도 대중의 인기를 모았고, 현재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는 중요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춤 산책은 12월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홍기태님께 감사드립니다.

꽃을 찾아서

– 박권숙 〈Cliff Flower〉 40x32cm. Oil on wood

김형술 · 시인

어쩌면 인간의 삶은 늘 벼랑 위를 걷는 일인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고통과 환희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아슬아슬한 벼랑. 하지만 일상에 떠밀려 살다보면 내가 밟 디딘 곳이 벼랑인지 초원인지에 관해 잊고 살기 일쑤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과 제도는 스물 네 시간으로 구획된 하루와 삼백예순다섯 날로 규정지어진 일 년 따위 시간의 단위를 마련한 것은 아닐까. 한 번 쯤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라는 작은 배려의 의미로.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은 잠들기 전 저녁의 어둠 속에서, 일 년을 반추하는 일은 12월이라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바라보면서 한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 나아가야 할 걸음의 방향과 의미를 가늠하듯이 일 년의 첫날엔 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발걸음에 심는다. 그 발걸음이 허공을 던지 않게 되기를, 천길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지 않기를, 무엇보다 발을 헛디뎠다 끝모르는 추락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기원한다. 인간의 소망과 희원을 담아 바치는 제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누구는 기도를, 누구는 노래를, 누구는 음식과 향유 등의 물질을 선택한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제물은 아무래도 꽃이라는 생물이 아닐까 싶다. 꽃이 가진 아름다움과 향기와 짧은 생의 시간은 기도와 노래, 음식과 향유가 가진 모든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으니. 그런 탓일까. 인간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늘 꽃과 함께이다. 태어남과 결혼을 축하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일은 늘 꽃의 몫이다. 언제 부턴가 꽃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갖는 일의 환희와 행복에의 기원과 지상의 물 생명들의 영혼을 순하게 다스려 정화하는 일을 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누구도 꽃을 증오하지 않고 누구도 꽃을 원망하지 않는다. 모두가 꽃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고 꽃에 얼굴을 맞댄 채 속삭이기를 원하며 자신에게 온 꽃들에게 축복을 주고 받는 일을 망설이지 않는다. 제 몸 속에 삼라만상의 모든 오묘한 이치들,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과 어둠을 모두 껴안은 채 오래 숨죽여 기다렸다가 마침내 피어나는 순간, 살아있음의 아름다운 의미를 온몸으로 응변하는 꽃. 그 꽃이 있어 인간은 더러 자신의 삶이 축복받은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리라.

한 여인이 벼랑 위에 서있다. 그 벼랑의 높이가 얼마 만큼인지 가늠하긴 힘들지만 얽은 비단 같은 구름들이 여인의 몸을 어루만지고 바람결을 이루며 흘러가는 걸로 보아 아마도 까마득한 높이일 것이다.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를 가진 깎아지른 듯한 벼랑. 서있기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게 틀림없는 곳에 선 여인에게서 그러나 두려움의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헤어질 혈육을 만난 듯 오래 그리워한 연인을 안은 듯 충만한 행복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꽃이 가진 생명의 아름다움, 꽃이 내뿜는 향기



▶ 박권숙 作 Cliff Flower 40x32cm Oil on wood 2002

에 도취되어 천길 벼랑의 공포나 죽음에의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한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한 점 꽃잎처럼 허공으로 날아 내릴 육신의 고통 따위는 꽃을 만난 기쁨 앞에 씻은 듯 사라진 것일까. 그림 속의 여인은 왜 햇빛 따뜻하게 내리쬐는 지상의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두고 굳이 이 벼랑의 끝까지 도착하게 된 걸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나기 위해 걷고 또 걸어 인간에겐 금지된 구름의 높이에 까지 다다르게 된 것일까. 혹시 이 한송이의 꽃을 만나기 위해 사막과 빙하와 둔트라야의 황무지를 맨발로 오래 헤매 다녔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여인이 두 손 가득 소중하게 받쳐 든 이 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지상에 태어나 목숨을 부여받은 한 사람의 생애가 간절하게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꽃의 종류만큼 다양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의 어떤 꽃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는 저마다의 소중한 크고 작은 꽃들이 숨어있다. 어떤 꽃들은 만개하고 어떤 꽃들은 싹을 틔우고 또 어떤 꽃들은 아직 꽃씨인 상태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기도 할 터. 그리고 지금은 또 한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는 겨울의 시간이다. 다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제각기 가슴에 숨겨두고 잊었던 꽃들을 깨워 가만히, 아주 오래 들여다 볼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 시인의 감성으로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소개한 김형술의 그림에세이는 12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김형술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의 후기(後記)

유상훈 · 연극배우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였다. 그 사실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 참다 참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피를 토하며 그 말을 내뱉고 이 세상을 하직한 임금님 전속 이발사. 그 땅에서 자라난 나무들조차 스치는 바람을 따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였다고 읊조려 댔다던가.

연극 작업이 시작되면 다른 말을 듣기도, 말하기도 힘이 든다. 대본을 넣고 다니는 가방 속에 책 한두 권 넣었다가 두세 달 지나 공연이 끝날 무렵까지 표지가 구겨진 그 책이 그대로 가방의 일부가 되어 실려 다닌다.

말에는 음성과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음성인 소리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염불이란 것도 쓰이는 것이겠지.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말을 한 백 번 정도 반복한다고 치면 어느새 말이란 게 기호화 되어서 의미는 소리의 모양에 묻어 체화(體化) 되어간다. 다시 말해 컴퓨터의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정보가 펼쳐지듯 소리의 모양에 그 말의 색깔이나 뉘앙스가 덧입혀져 가는 듯하다. 그렇게 반복은 연기자에게 사실보다는 본질을 감지케 한다. 그러니까 작업 중의 어떤 언어가 체화되어 가는 연기자의 실제 속에는 다

른 이의 말이 개입될 여지가 점차 없어져 간다.

그래서 작업 중에는 책을 읽기가 힘들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향차 말을 남기는 글을 쓴다는 행위는 훨씬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체화되어 가는 현상의 획득은 위험하고도 절대적 힘의 기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배우 무대 위에서 말한다'라는 용어가 있다. 어떤 의미로, 일상에서 겪고 있는 시공간의 본질에 대처하는 존재 양식(Life Style)이 무대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이 세상에서 무어라 말할 필요도 할말도 없는 게 배우라는 것으로 들렸다.

한 일년 이 글을 쓰게 된 건 또 다른 배우의 속성이라 여념없이 종일대 본다. 눈앞에 술이든 독이든 한 잔의 물이든 일단 마셔본 뒤 겪어 보자는 식의 연기자의 습성(좋게 말해 수용성, 나쁘게 말해 수동성)으로 한 역할을 해내듯 적어왔다. 한참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순간을 상승하던 무대 위의 시간이 아무 것도 남기지 않아 멋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얻기 위한 현상의 시간들은 만만치 않았다. 감당하지 못할 본질의 줄 당기기를 멈추지 못하는 시간들의 견딜은 쉴 새 없이 무언가 속죄양을 필요로 했었고 그럴 때 떠돌던 한

점 한 점 말들을 붙잡아 쪽지에다 노트에다 심지어는 극장 벽에다 굵적굵적 가두어 놓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은 채 그 순간을 넘겨왔던 단어들이 있었다. 맞다, 거의 한두 개의 단어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며 버텨 오게 한 단어들이 있었다. 표현의 말이란 것이 딱히 해결이나 전달만의 목적이 아니라 해소의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던 단어들이 있었다. 그런가 보다. 아무튼 말의 가치는 종교에서도 많이들 언급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어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하지 않은가. 원효 스님은 말을 통한(언어를 사용한) 종교적 구현의 방법으로 많은 저서를 남기셨다 한다. 또한 묵언(默言) 수행이란 것도 있다. 그러게? 우리 범인들이 쌓는 구업(口業)이란 것이 또한 만만치 않은 건 사실 일게다. 하긴 살아 있는 동시대의 타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재미만한 재미가 어디 흔하던가 말이지. 나랏님도 뒤에서는 욕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여하튼 실컷 씹고 나면 무엇이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쩌다 그 장본인을 만나면 선입견이 선행되어 많은 인연이 에둘러 가게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곧 있을 선거철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어떤 면으로 훌륭하게 제몫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해결이 아닌 해소의 차원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삼(蔘)이 재배되고 과일 곡물이 수확되고 키우는 소 돼지의 육(肉)류 심지어는 근해에서 잡히는 어패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만큼 효력과 풍미가 우수한 것이 드물다. 그만큼 이 땅은 공간 자체가 타고난 건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인력(人力)을 더듬어 봐도 인정할 만한 무엇이 있다. 이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의 말이란 또한 천·지·인(天·地·人) 삼합(三合)을 이룬 매우 뛰어난 소리의 모양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농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말을 내뱉는 일만으로 오장육부의 치유와 다이어트의 효력을 임상 실험할 날이 올 것이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란 좋은 것은 그냥 안다. 그기에 이 땅의 정한(情恨)을 섞어 말한다면(혹은 노래한다면)세계 최고의 웰빙 상품이 될 것이다. 근데,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빼버리는 행정인들의 저 단견은 내 보기에 참 한심한 바가 있다. 고유의 말은 곧 그 민족성의 특질이요, 그 문명의 상징일텐데 국제화의 밥통을 사기 위해 도자기인 질그릇 다 내다팔 것인지 원.

한해가 또 간다. 대선을 앞두고 공약과 스캔들이 난무하고 대중 미디어와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말의 정보와 소수의견이, 두드리는 좌판을 타고 난립하고 한국인의 통과외래 대입 논술시장의 폭발적인 활황과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수한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들까지 유사 이래 이렇게 많은 말들이 논리와 이해와 설득 교류와 확인의 도구로 넘쳐나는 시절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무의식이나 진실 앞에서는 사실 무방비 상태다. 허나 이러한 것들은 표면에 쉬이 드러나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이나 무의식은 시간이나 에너지의 농축된 무엇이랄까, 하여튼 이것을 꺼집어내는 일에는 위험과 노정(勞程)이 필요한 것 일게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와 같은 게 아닐까 싶다.

■ 연극 속으로는 12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연극속으로를 집필해주신 이성섭, 변미선, 유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 발자취를 모은 임 권 택 영화연구소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아온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

절제된 연출과 휴머니즘적 주제의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아온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 발자취를 모은 뜻깊은 공간이 최근 부산에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개관한 임권택 영화연구소가 바로 그곳.

2007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지난 10월 8일 열렸던 영화연구소 개소식에는 임권택 감독을 비롯 정일성 촬영감독, 영화배우 강수연 씨,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인 김동호, 이용관 씨 등 영화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임권택 영화연구소 설립은 지난 7월 영화·영상 콘텐츠 특성화 대학인 동서대학교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 신설되면서 가시화되었다. 한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대학 명칭으로 쓰는 것은 전국에서도 처음인지라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은 신설 당시에도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은 기존 영상매스컴학부의 영화전공과 공연예술학부의 뮤지컬, 연기전공 등 3개 전공학과가 독립해 새로운 단과대학으로 문을 열었는데, 영상도시로 발돋움한 부산의 영화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동서대학교의 강한 의지와 '남은 인생동안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젊은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겠다'며 후진양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임권택 감독과의 만남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지난 8월 임권택 감독이 석좌교수직을 수락하면서 2008년 신입생들은 임권택감독의 강의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임권택 감독이 석좌교수로 있는 동서대학교 관광사회복지관 7층에 마련된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우리나라 영화사와 궤적을 같이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역사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곳에는 임권택 감독의 첫 번째 영화인 '두만강아 잘 있거라(1962년 작)'부터 100번째 영화 '천년학(2006년 작)'에 이르기까지 그가 연출한 작품의 손때묻은 시나리오와 포스터, 비디오테이프와 DVD, 그리고 베니스영화제 황금곰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받은 진품 트로피와 사진들까지 임권택 감독으로부터 기증받고 수집한 소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한 켠에는 그의 100번째 영화로 화제를 모은 영화 '천년학' 공간이 마련되어 기획에서 제작, 마케팅, 의상, 소품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의 전 과정이 전시되고 있어 영화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권택 감독과 관련된 각종 도서와 논문 등이 갖춰진 도서실은 영화를 공부하는 예비 영화인들의 유용한 학습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내년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앞서 임권택 감독의 업적과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전시해 후학들의 연구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영화연구소 문을 열게 되었다”는 이종찬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40여년이 넘는 세월이라 일부 빠진 자료들도 있지만 임권택 영화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면서 ‘임권택 하면 임권택 영화연구소’를 떠올릴 정도로 알차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역사가 곧 우리나라 영화사인 만큼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단순한 영화인 한 사람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이 아닌 우리나라 영화를 전시하는 뜻깊은 공간”이라는 이종찬 교수는 앞으로 임권택영화연구소를 ‘영화연구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공자들을 위한 연구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관 초기인 지금은 전시공간으로만 이용되지만 강좌나 영화상영 등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색다른 문화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4시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문의:임권택 영화연구소(320-2711)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 신설되면서 조성된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우리나라 영화사와 궤적을 같이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역사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2007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던 지난 10월 8일 열렸던 개소식에는 임권택 감독을 비롯 촬영감독 정일성 씨, 영화배우 강수연 씨 등 영화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음악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해요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단테



안단테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감동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월 20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던 제 4회 안단테 콘서트.)

세상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 음악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단테'(이하 안단테). 안단테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감동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지난 1986년 부산지역 대학 통기타 동아리 출신들로 결성된 안단테는 원래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등 1980년대 대학생들의 선망이었던 가요제 출전을 위한 부산지역 연합 동아리 모임이었다. 실제로도 안단테 회원들은 1986년 MBC 대학가요제 부산본선 진출, 1988년 KBS-2TV 젊음의 행진 출연, 1988년 MBS 해변가요제 대상 수상 등 당시 각종 가요제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안단테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기 위해 회원 자격을 확대

해 동호회의 변화를 시도했다. 대학생만 가입 가능했던 동호회 성격을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안단테를 거쳐간 회원만 200여명, 지금은 고등학생부터 4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통기타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으로 눈을 돌린 안단테는 2003년부터 매년 '안단테 콘서트'를 가져오고 있다.

“음악을 통한 자기만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도 줄 수 있어 매년 콘서트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열정이 대단하



안단테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콘서트를 앞두고 연습중인 안단테 회원들.

다”는 안단테 대표 강병일 씨. 1988년 MBS 해변가요제 대상 출신인 강병일 씨는 안단테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열성회원으로 대표직만 벌써 4번째 맡았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안단테 콘서트’는 지난 10월 20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회원들 뿐 아니라 부산대학교 국악과 출신들로 결성된 아랑기획단과 동의대학교 음악과 재학생, 동문들로 결성된 현악앙상블 등 이웃사랑 취지에 공감하는 연주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인 경희대학교 교수 여홍철씨와 2002년 아시안게임 2관왕인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김동화 씨, 가수 박기영 씨,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손민환, 이승화 씨, 그룹 잼 멤버였던 조민근 씨 등 유명인들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대표 강병일 씨와의 친분으로 안단테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여홍철 씨는 1회 공연때부터 고정 게스트로 참여, 노래실력을 발휘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매년 콘서트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안단테는 1회 콘서트 수익금으로는 ‘성 프란치스코의 집’ 어린이들에게, 2회 콘서트 수익금은 대연초등학교 결식아동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하는데 사용했다. 또 3회 콘서트 수익금은 부산일보 ‘결식아동을 위한 모금행사’에 기부했으며, 4회인 올해 수익금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쓰는 등 매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안단테는 매년 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년 사업을 결정한다. 3, 4월에는 회원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체육대회 혹은 야유회를 가져오면서 회원들간에 친밀한 유대감을 가져오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이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 정기모임은 따로 갖지 않는다”는 강병일 씨는 그러나 ‘안단테 콘서트’ 일정이 확정되면 두 달간은 전 회원들이 합심해 맹연습에 들어간다. 그 기간동안에는 주중에 2~3차례 개별 연습시간과 함께 주말에는 항상 전체 모임을 갖는다. 아직은 독자적인 모임장소를 갖지 못해 회원들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이나, 각 대학 동아리방을 전전하며 연습을 가져오고 있다.

“음악을 즐기고 그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안단테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누구나 안단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강병일 씨.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앞으로 더욱 늘여나가겠다는 그는 앞으로 길거리음악회와 같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도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끼 넘치는 신세대 국악도들로 창단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부산청소년국악단은 부산예고, 브니엘 예고, 부산예중, 부산대학교 등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되었다.

“혼자 연습하는 것 보다 친구, 선배들과 함께 연주 하니 음악이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들만의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청중들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해요.”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음악으로 자칫 외면하기 쉬운 국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결성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랩과 힙합대신에 우리얼이 담긴 국악선율을 지키고 있는 당찬 신세대 국악도들이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다.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젊은 국악인 홍희철 씨가 청소년들의 음악적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창단을 결심하고

오랜 시간 준비 작업을 거쳐 창단되었다. 1990년대 초에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었던 터라 이번 창단을 준비하며 많이 조심스러웠다.

현재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원은 60명 정도. 관현악단 구성은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부산예중, 부산대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인문계고교 등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중심이다.

“처음에 단원 40명 정도 규모의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을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현재 단원 60명으로 창단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뛰어난 인재들을 일찍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단장 겸 지휘자로 분주한 홍희철 씨는 청소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알리기에 열심이다. 거문고를 전공한 연주자로 지금의 후배, 제자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온 홍희철 씨는 제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든든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부산대학교 배양현 교수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지휘자 이의경 선생, 부산예술고등학교 이승호 음악부장을 고문으로 초빙한데 이어 학부모들이 운영진으로 참가하니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에 큰 힘이 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야금 수업을 해온 채미경(부산예고 2년)은 독주하는 것과 달리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합주로 어우러지는 자신의 가야금 선율에 많은 매력을 느낀다. 앞으로 기억에 남는 연주자가 되고 싶은 그는 청소년국악관현악단에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채미경 단원의 바람대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우리 음악 뿐 아니라 앞으로 전통음악, 서양음악의 클로스오버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독주, 중주, 관현악을 들려주기 위해 보이지 않게 땀 흘린다는 각오로 연습에 열심이다.

그러나 여러 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순수 비영리단체인 만큼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지금은 각 학교 연습실과 개인 연습실에서 연습에 임하고 있지만 홍희철 씨는 연주회를 앞두고 함께 모일 연습장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첫 신고식을 치룬 금정문화회관에서 연습실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곧 큰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매년 많은 국악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서울에 비해 열악한 부산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설 무대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엔 부산에도 국립국악원이 세워지지만 아직도 부산의 국악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미래는 밝다. 현재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2008년 연주 일정이 4회 확정된 상태. 1월에는 금정수요음악회에 초청받았고 2월에는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에 선다. 3월에는 MBC 목요일음악감상회에 출연한 뒤 4월에는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신세대가 들려주는 우리 음악, 우리 가락.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진다.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2008년 4월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다.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8월 금정문화회관 수요음악회에 출연해 큰 호평을 받았다.

연말연시 가족들을 위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키에프 쉘브첸코 주역들과 키에프 소년소녀발레단이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월 25일 화요일 오후 5:00, 2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해 아름다운 연기와 환상적인 무대로 부산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키에프 쉘브첸코 발레단과 키에프 소년소녀발레단이 12월 25일과 26일 연말연시를 맞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다시 부산문화회관 무대를 찾는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크리스마스 시즌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차이코프스키의 명작 '호두까기 인형'. 전 2막 3장으로 구성된 '호두까기 인형'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와 함께 클래식 발레 3대 걸작의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다.

독일의 낭만파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을 원작으로 하는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에서 초연된 이래 12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특히 크리스마스과 관련한 친숙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춤과 기존 발레의 이미지를 탈피한 무대의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는 최고의 발레 작품으로 사랑받아 왔다.

품으로 사랑받아 왔다.

수준높은 환상의 무대를 펼칠 키에프 쉘브첸코극장은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Bolshoi/1825년)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Mariinsky/1890년)과 함께 러시아 3대 극장으로 1804년 준공되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쉘브첸코 발레단은 볼쇼이, 키로프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3대 발레단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전 세계 투어를 통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춤이 볼거리이다. 이번에 호두까기 인형을 위해 부산을 찾는 키에프 쉘브첸코 발레단의 솔리스트는 나탈리 마작과 아르텐 다츠신, 셰르바코프 미하일, 보로디나 리나, 치간코바 타티아나 등 5명.

나탈리 마작은 쉘브첸코 발레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프리마돈나이다. 2004년 S.Lifar 인터내셔널



널 발레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나탈리 마작은 뛰어난 재능과 테크닉, 훌륭한 감정표현, 그리고 배우만의 컬러와 음악적이며 흡입력 있는 무대 매너로 찬사를 받고 있다. 나탈리 마작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지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돈키호테, 백설공주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아르텐 다츠신은 1996년 키예프에서 열린 S.Lifar의 인터내셔널 발레대회와 1998년 R.Nyriev의 국제 발레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다츠신의 춤은 압도적인 힘과 뛰어난 테크닉, 자신감 있고 훌륭한 매너로 클래식과 모던스타일 모두 다양하게 창조해내고 있다. 그 외 웨르바코프 미하일은 Fouette of Artek 국제 발레 콩쿠르 1위, Kharkov의 국제콩쿠르인 크리스탈 Shoe 국제콩쿠르 2위, Music World 국제콩쿠르 및 페스티벌 1위 등을 수상했고 보로디나 리나는 Music World 국제콩쿠르 및 페스티벌 그랑프리, Fouette of Artek 국제 발레 콩쿠르 2위, 크리스탈 Shoe 국제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다. 치간코바 타티아나는 Fouette of Artek 국제발레 콩쿠르 3위, Music World 국제발레 콩쿠르 및 페스티벌 2위 등을 수상했다.

제 1막에서는 소녀 클라라가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고서 무척 기뻐한다. 그날 밤 클라라는 꿈을 꾸는데 뼈꾸기 시계가 밤 12시를 알리자 주위가 소란해지고 새앙쥐의 대군이 습격해 와서 장난감 병정들과 전투가 벌어진다. 호두까기 인형이 장난감 병정들의 대장이 되어 일사불전을 하지만 새앙쥐의 대군에 밀리기만 한다. 클라라는 슬리퍼를 던져 새앙쥐 대군을 쫓아버린다. 그러나 갑자기 호두까기 인형이 씩씩한 왕자로 변신하고, 클라라를 과자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

2막에서 클라라와 왕자는 거룻배를 타고 과자의 나라에 도착하는데 모래톱은 모두가 설탕이고, 나라 전체는 과자로 되어 있다. 두 사람은 과자의 성으로 들어가고 클라라를 환영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 먼저 각각 성격이 다른 여섯개의 춤이 있는 다음 화려한 꿈의 왈츠, 왕자와 별사탕의 춤 등이 이어지고, 클라라가 과자나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환상적인 발레는 끝난다.

■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제외 30% 할인, 4인가족석 30%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07 제야음악회

Say Goodbye 2007, Say Hello 2008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사다난했던 2007년을 보내고 희망찬 2008년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07 제야음악회 'Say Goodbye 2007, Say Hello 2008'이 2007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10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부산MBC 육선주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류정필과 박정은, 황고은, 이효진, 권순지, 조양선, 황영은 등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6명의 부산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송년의 아쉬움을 클래식 선율로 달랜다.

첫 곡으로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협주곡인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바단조 작품 21'을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은 쇼팽의 첫 번째 협주곡으로, 청년시절 작곡되어 젊은 작곡가 특유의 신선한 감각과 표현의 다양함, 현란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협연자 에드워드 아우어는 줄리어드음대 3학년 당시 미국인 최초로 제 7회 쇼팽 콩쿠르(1965년)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프랑스 마가릿 롱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퀴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베토벤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20년 넘게 인디애나 주립대학 교수로 있는 에드워드 아우어는 그만의 특별한 쇼팽 해석으로 쇼팽의 음악을 알리고 있는 이 시대 더욱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두 번째 곡이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운명' 작품 67 중 4악장이 연주된다. 교향곡 '운명'은 불굴의 투지로써 모든 고난과 비극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베토벤 이념이 잘 표현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승리의 악장'이라 불리는 4악장을 연주한다.

2부에 앞서 열리는 로비음악회에서는 재즈 콰르텟 '셀레스트'의 특별출연으로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기타리스트 박오식,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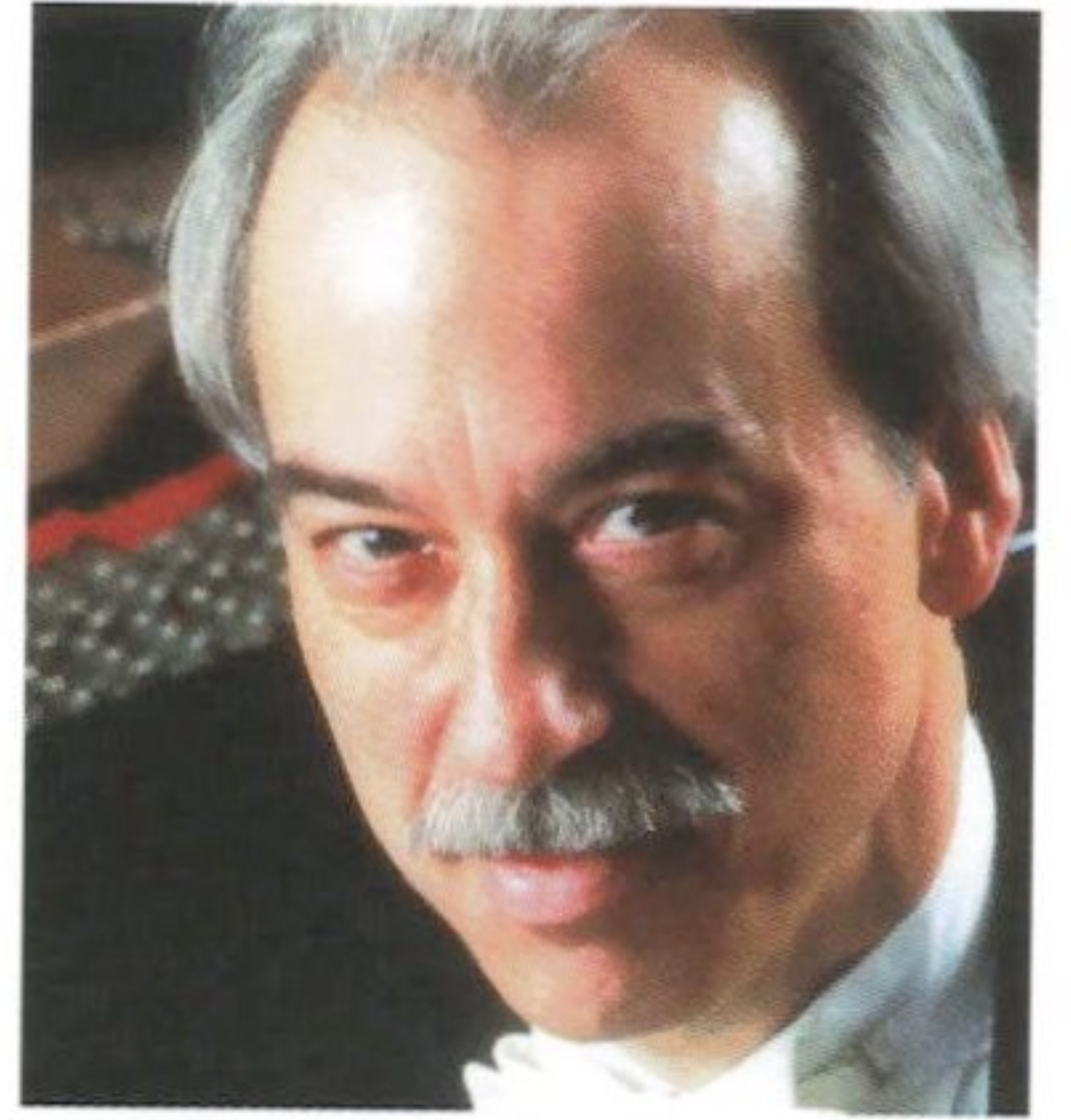
베이스스트 최춘광, 피아니스트 김경민, 색소포니스트 최창근으로 구성된 재즈앙상블 셀레스트는 '하늘빛'이라는 뜻의 프랑스로 유럽 재즈와 아메리칸 재즈를 새롭게 접목하여 다채로운 사운드를 추구하는 그룹이다.

이어지는 2부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지현과 테너 류정필, 6명의 부산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008년 새해의 시작을 앞두고 새해를 맞는 흥겨움을 시민들과 나눈다. 베토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며, 선율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기교가 매력적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중 3악장은 6명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의 앙상블로, 라라의 '그라나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소프라노 박지현과 테너 류정필이 들려준다.

2008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지현과 테너 류정필의 듀오무대로 마련된다. 명랑하고 경쾌하면서 러시아적인 지방색이 풍부한 글린카의 서곡 '루슬란과 루드밀라'를 시작으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중 '여보세요 백작님', 현재명 '희망의 나라로',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앤더슨의 '그녀를 떠나 보내고', '치킨 킬' 등을 들려준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박지현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최고득점으로 수석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주립오페라 극장 단원을 역임했다. 귀국 후 국립오페라단의 마탄의 사수, 호프만의 이야기, 천생연분, 카르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된 한국창작오페라 '결혼'에서 주역으로 무대에 선 바 있는 박지현은 그동안 코리안심포니, KBS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서울심포니에타, 제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와 한·중수교 15주년 기념음악회, CBS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또다른 협연자인 테너 류정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마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동안 KBS 신인콩쿠르,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비오티 발세시아 국제콩쿠르, 스페인 프란체스카 쿠아르트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국립오페라단 상근 솔리스트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맥베드' 주역으로 무대에 선 바 있는 류정필은 이탈리아 그로세토 심포니, 스페인 갈리시아 심포니, 핀란드 미켈리 심포니에타, 체코 프라하 심포니에타, 미국 캔사스 토페카 심포니 등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체코, 미국 등에서 콘서트 독창자와 오페라 주역으로도 활동중이다.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류정필



재즈앙상블 셀레스트



6바이올린

■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30% 할인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배정행



지난 23년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지도해온 수석 지휘자 배정행 선생이 12월 28일 제 121회 정기연주회 지휘를 마지막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떠난다.

“1985년 5월 소년소녀합창단과 인연을 맺었으니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맑고 깨끗한 심성으로 정상의 합창단으로 성장해준 단원들이 정말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랜 역사만큼 저력을 가진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수석지휘자 배정행은 그동안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에서 1,500여곡을 발표하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에서 처음으로 음반 ‘파란마음

하얀마음’을 출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창작 동요의 보급을 위해 부산 동요작곡가들의 창작곡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이번 고별 무대는 특별히 합창단 학부모들과 함께 꾸미는 가족음악회로 구성했다. 미국 작곡가 돈 베직의 음악과 선생 자신의 이별의 아쉬움을 담은 ‘잘 가라 나의 벗이여’ ‘문리버’ 등을 선곡, 훈훈한 송년 무대를 마련한다.

배정행 선생은 1970년대 열악한 부산의 공연장 여건 속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친 독보적인 바리톤이다. 음악평론가 곽근수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슈베르트의 연가곡들을 녹음하여 2년간에 걸쳐서 완창(完唱)을 하기도 했다. 부산음악계에서 배정행 선생을 떠올릴 때 오페라를 빠뜨릴 수 없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던 시절, 직접 부산시민오페라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는 협연자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다. 어린이들의 연주라는 편견을 가지고 간혹 폄하하는 청중, 성인합창단에 미치지 못했던 행정적인 지원 등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백악관과 미국 동부 순회공연을 예산부족으로 포기했던 것이 지금도 안타깝기만 하다.

‘오페라의 유령’에 발탁된 최은실을 비롯해 한국예종에 재학 중인 이우석, 비엔나 유학중인 조현광 등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출신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람이 크다는 그는 앞으로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하며 새로운 음악 인생을 열고 싶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11시와 만나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7년을 맞아 부산문화회관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마지막 무대가 12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웰빙콘서트'는 평소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여성과 주부들을 위해 오전 11시에 여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2007년 한 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총 8차례 공연을 가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무대는 재치있는 언변으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온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와 해설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바단조 작품 84,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겨울',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중 제 1, 4악장을 들려준다.

첫 곡인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은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연인 클레르헨을 구하려다 실패하여 자살로 비극적인 생애를 마친 에그몬트 백작을 주인공으로 한 괴테의 비극에서 영감을 받은 베토벤의 극음악으로, 특히 폭군의 압제하에 있는 영웅 에그몬트 백작의 장대한 기백과 비극적 운명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서곡이 유명하다.

지난 웰빙콘서트에서 연주했던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여름', '가을'에 이어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겨울'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서로 정담을 나누는 난로가의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 그리고 얼음 위 조심스럽고도 경쾌한 사람들의 발걸음과 다가올 봄을 예감하는 온화한 분위기 등이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의 협연이 펼쳐진다.

협연자 백재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 및 솔리스트를 거쳐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했다. 풍부한 감성과 학구적인 자세로 다양한 실내악 활동을 가져온 백재진은 화음챔버오케스트라, 한국아카데미 챔버앙상블, 비루투오조앙상블, 동의트리오 멤버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백재진은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 곡인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운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작품으로, 불굴의 투지로 모든 고난과 공포, 비극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베토벤의 이념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운명은 이같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운명의 동기'로 유명한 제 1악장과 4악장을 들려준다.



지휘자 금난새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6회 정기연주회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호른니스트 키릴 코토민

웅장하면서도 경쾌한 관악의 선율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6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 챔버오케스트라 호른 수석주자 키릴 코토민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양육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스트라빈스키의 '관악 교향곡', 모차르트의 '호른협주곡 제 2번 내림마장조 작품 417',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작품 66' 중 발채곡을 들려준다.

첫 곡으로 연주되는 스트라빈스키의 '관악 교향곡'은 현악 파트의 연주없이 관악기들로만 연주되는 색다른 곡으로, 스트라빈스키가 스위스 망명에서 돌아온 직후인 1920년 프랑스에서 작곡하여 드뷔시 추모에 헌정된 작품이다. 단악장이지만 러시아풍, 목가풍, 빠른 무곡풍, 합창과 기악이 함께하는 코랄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자주 연주되는 1947년 개정판 대신 최초 작곡된 1920년 버전을 들려준다.

러시아 출신의 뛰어난 호른니스트 키릴 코토민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모차르트의 '호른협주곡 제 2번'은 모차르트가 당대 유명한 호른 연주자이자 그의 친구였던 이그나츠 로이트게프를 만나 작곡한 4개의 호른협주곡 중 두 번째 곡으로, 금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호른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이다.

협연자 키릴 코토민은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모스크바 음악원 부설 스페셜 뮤직칼리지를 졸업하고 그동안 모스크바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했다. 키릴 코토민은 2005년 서울에서 내한공연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 곡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명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오케스트라 곡들만을 발채하여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서너곡 연주되던 기존의 모음곡과는 달리 발레곡 전체에서 발채된 오케스트라곡들로, 숨겨진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특히 모음곡 중 2곡은 협주곡에 버금가는 바이올린, 첼로 독주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과 첼리스트 양육진이 협연을 맡아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해피 크리스마스!!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7년 부산합창음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부산시립합창단이 12월 18일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로 2007년 마지막 무대를 갖는다.

수석 지휘자 김강규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선곡, 즐겁고 행복한 무대를 열어준다.

첫 무대는 합창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다성합창음악으로 작곡된 무반주 크리스마스 음악들로 시작한다. 성탄의 신비로운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부루크너, 멘델스존, 그리고 현대음악가 로릿즌(M.Lauridsen)의 곡들을 연주한다.

두 번째 무대는 행복한 성탄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관악기 앙상블 무대로 화려한 관악기의 음색과 흥겨운 성탄 캐롤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부산윈드오케스트라 브라스콰이어가 청중들에게 귀한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세 번째 무대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제목처럼 '해피한' 크리스마스에 맞춰 모두가 잘 아는 성탄캐롤의 멜로디를 연곡으로 편곡한 무대이다. '아름답게 장식하세', '소나무', '징글벨' 등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노래들은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성탄의 주옥같은 노래들이다.

짧은 휴식 후의 첫 무대는 '온 세상의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전해진 성탄의 노래들이 연주된다. 이 곡들 중 첫 곡인 '곧 오소서, 임마누엘(Veni, Veni Emmanuel)'은 15세기 작곡된 곡으로 평성가에 기초한 아름다운 캐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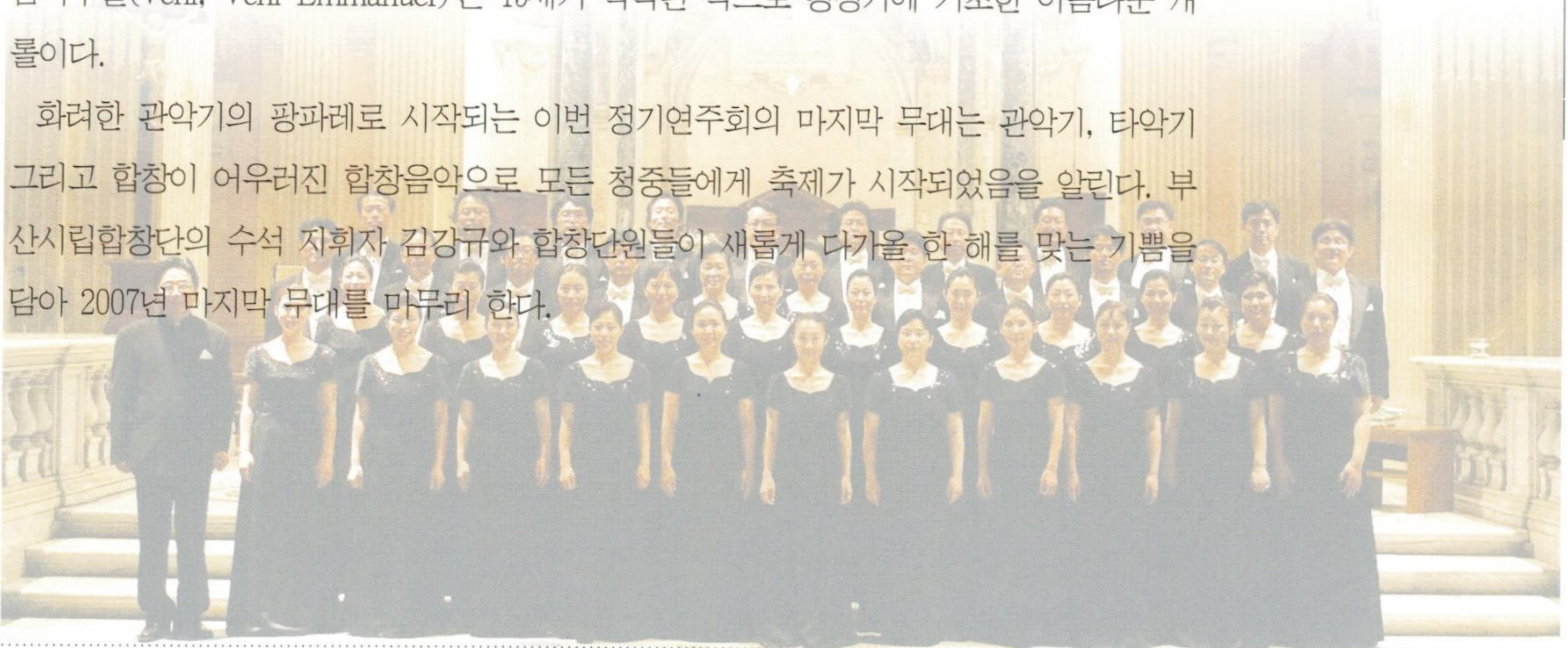
화려한 관악기의 광파레로 시작되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마지막 무대는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합창이 어우러진 합창음악으로 모든 청중들에게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수석 지휘자 김강규와 합창단원들이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맞는 기쁨을 담아 2007년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 한다.



수석지휘자 김강규



반주자 이승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7회 정기연주회 · 송년음악회

2007 법고창신-명인에게 명곡의 길을 묻다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박호성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송년음악회가 12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2007 법고창신(法古創新)-명인에게 명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창작된 국악관현악 중 명곡을 선곡, 이 시대 명인들과 함께 정통 국악관현악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있는 대금주자 유경조와 KBS국악관현악단 단원인 해금주자 김종식,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한 소금주자 장명화가 전통 국악기의 다채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특히 2부 무대에서는 정악계의 대들보로 불리는 정재국 피리 명인의 50년 예술세계를 담은 특별무대가 펼쳐진다.



피리 정재국

첫 무대는 유경조의 협연으로 이상규 곡 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로 연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해탈한 장자의 세계관을 노래한 신석정 시인의 "대바람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현과 대금의 청아한 소리와 관현악의 섬세하면서도 장중한 선율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이상규 곡 해금협주곡 '수나뽀'는 해금의 다양한 음자리 변화에 따른 정확성과 기교, 풍부한 표현력을 요구하는 곡으로, 해금주자 김종식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1부 마지막 곡인 이강덕 곡 소금협주곡 '세우림'은 대나무가 지닌 음색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음색을 특징으로 하는 소금의 유려한 선율과 빠른 움직임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곡으로 소금주자 장명화가 협연한다.



해금 김종식

'명인 정재국의 50년 피리소리 길'로 마련되는 2부에서는 유장한 흐름속에 피리 고유의 시김새와 맺고 푸는 조화를 만끽할 수 있는 피리독주곡 '영상회상' 중 '상령산'을 비롯 전통음악 '자진한잎' 가락을 바탕으로 작곡가 이상규가 작곡한 피리협주곡 '자진한잎', 피리의 명인 가산 정재국을 위해 작곡가 백대웅이 작곡한 '가산을 위한 피리협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가산을 위한 피리협주곡'은 과거의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피리음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정재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피리 개량위원회에서 만든 개량 피리를 위해 쓰여진 작품으로, 2000년 KBS국악관현악단에 의해 초연됐다.



소금 장명화

무형문화재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인 가산 정재국은 국립국악원 연주단 악장 및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전통예술단 영산 부회장, 국립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장, 정농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입장료 :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07 송년음악회

카르미나 부라나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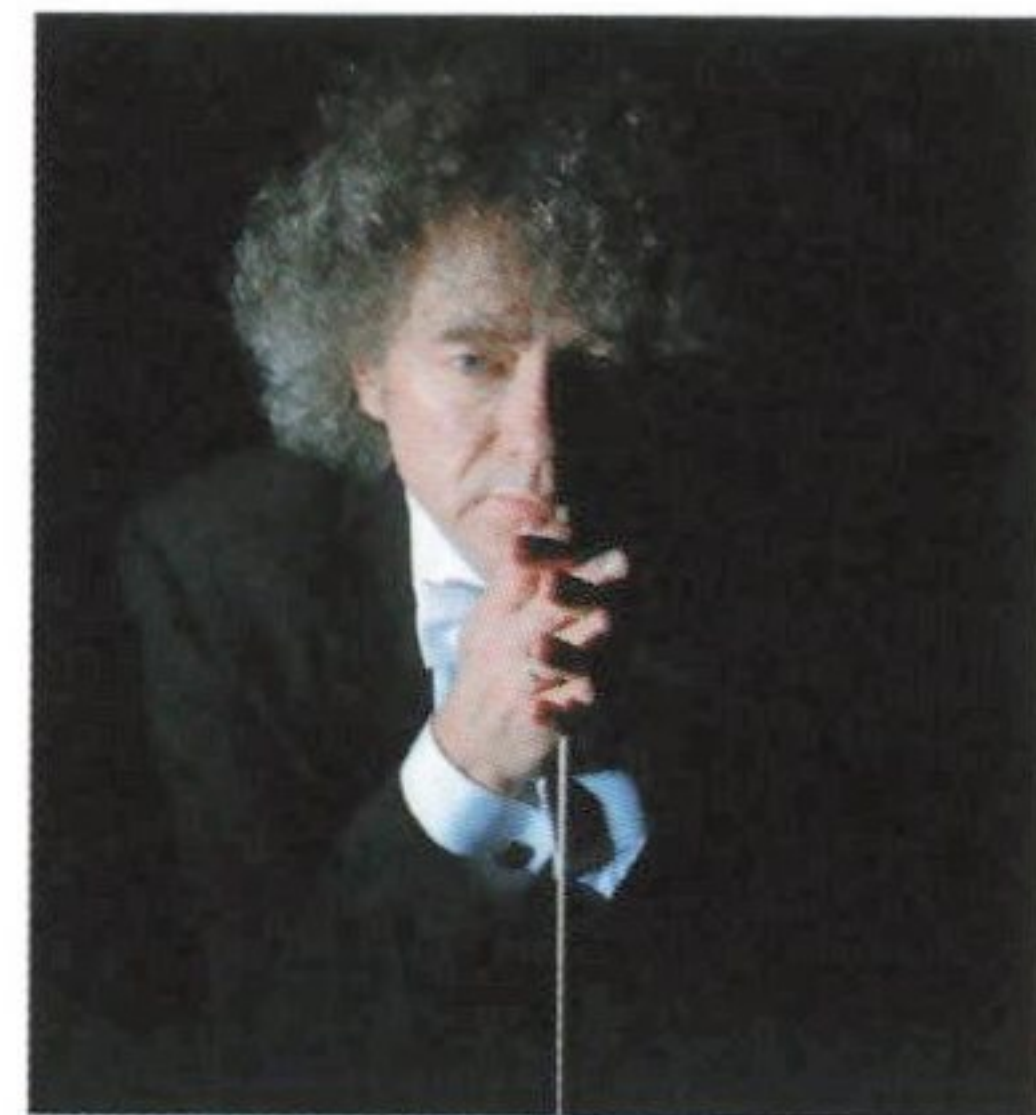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2007년을 보내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21일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특별연주회 '카르미나 부라나'로 2007년 송년무대를 연다.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음악으로 전 세계에서 연주되는 '카르미나 부라나'는 라틴어로 '보이에른(Beuern:현재의 바이에른)의 시가집'이란 뜻이다. 중세 유랑승이나 음유시인들이 노래한 도덕, 사랑, 유희, 종교 및 외설 등에 관한 시가집이 1803년 바이에른 지방의 베네딕트보이에른 수도원에서 발견되어 '카르미나 부라나'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 작곡가 칼 오르프(Carl Orff)가 이 시가집에서 24곡의 가사를 채택하여 1936년 새로운 형식의 대작을 만들어냈다. 전체 25곡은 서주(2곡), 제1부 '새봄'(8곡), 제2부 '선술집에서'(4곡), 제3부 '사랑의 정원'(10곡), 그리고 서주의 첫째 곡이 마지막에 반복되는 25번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지휘로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김성은을 비롯하여 테너 곽성섭, 바리톤 김동섭이 솔리스트로 출연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전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웅장한 합창선율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성은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지모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바르셀로나 비냐스 콩쿠르와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에서 1등하여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은 김성은은 1996년 도밍고와 스페인 신년음악회 출연, 1997년 질다(리골레토) 역으로 이태리 아레나에 데뷔한 이래 현재 유럽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독창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테너 곽성섭은 이태리 Giuseppe Tartini 국립 음악원을 만점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처음 만나는 바리톤 김동섭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정부 장학생(DAAD)으로 선발되어 뮌헨 음대 오페라과와 가곡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 현재 오스트리아 인스부룩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섭은 국내 콩쿠르인 독일 가곡 콩쿠르 1위, 중앙 콩쿠르 1위, MBC대학 가곡제 대상을 비롯해서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3위, 뮌헨(ARD) 콩쿠르 1위, Dom Graf Fassbaender 콩쿠르 1위, 바그너 콩쿠르 입상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단에서 수여하는 'Eberhard Waechter'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소프라노 김성은



테너 곽성섭



바리톤 김동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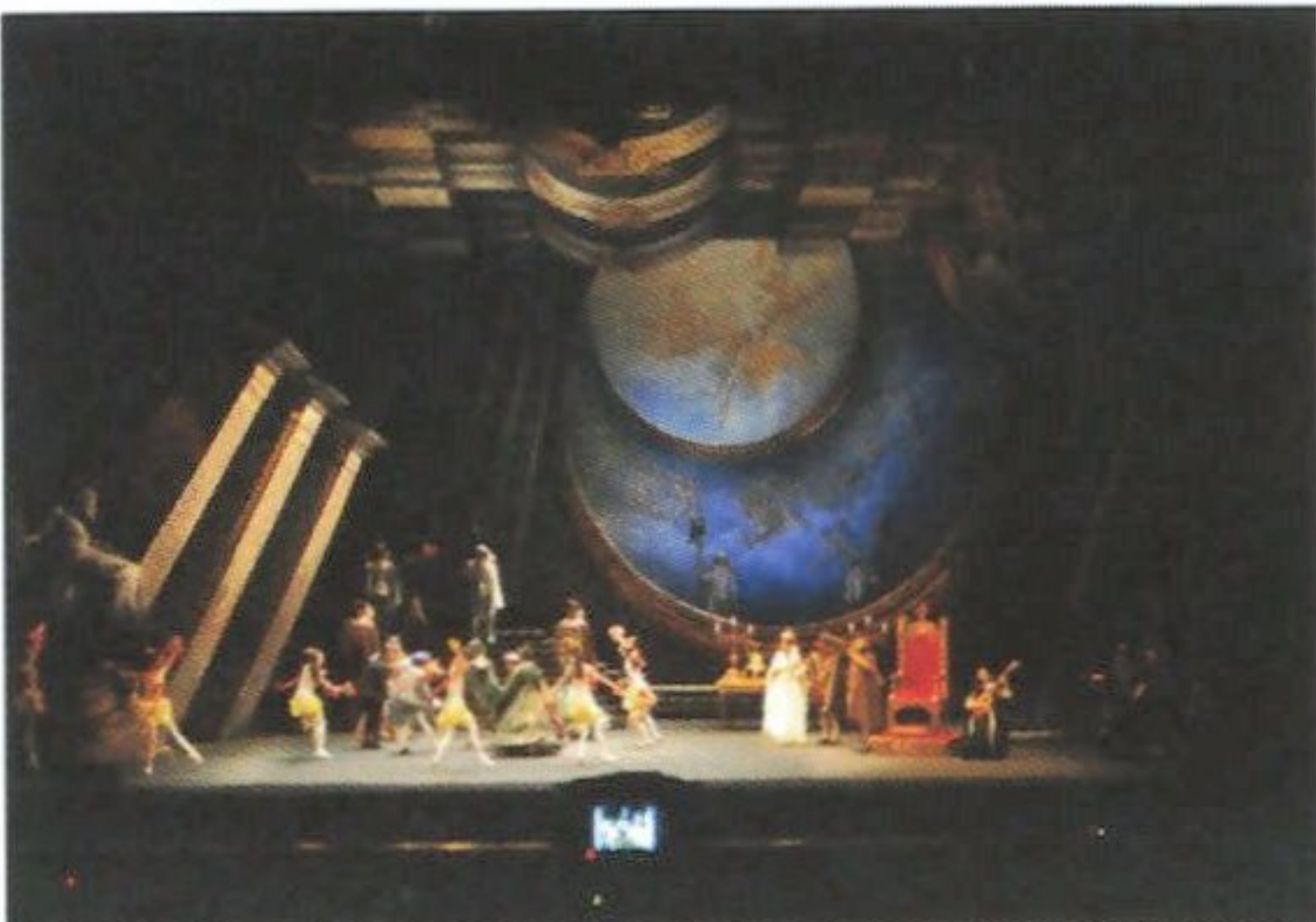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솔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공동제작
오페라 리골렛토

2일-4일 일-화요일 오후 7:30



서울시 오페라단 리골렛토

2007년 겨울 솔오페라단이 선사하는 오페라 '리골렛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각색하여 만든 오페라 '리골렛토'는 베르디 오페라 빅3 리골렛토,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캄머 쟁어(오스트리아 최고의 예술가에게 내리는 훈장으로, 문화부장관급 예우를 받음) 칭호를 받은 조르쥬 티시, 유럽정상급의 테크니션 테너 카를로스 코지아스, 볼로냐 극장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하고있는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산드라 파스트라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매머드급 오페라를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 박세원(서울시오페라단 단장)
- 지휘/김덕기(서울대학교 교수)
- 연출/Carlo Antonio De Lucia(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출연

바리톤 조르쥬 티시, 바리톤 고성현, 테너 카를로스 코지아스, 테너 나승서, 소프라노 산드라 파스트라나, 소프라노 김수진,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베이스 김명지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VIP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문의 솔오페라단(740-5750)

제 7회 대학 교향악축제

5일-6일 수-목요일, 12일 수요일
오후 7:30

차세대 거장을 꿈꾸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대학 교향악축제.

11월 12일 동의대학교 연주를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가한다.

일정 및 프로그램

■12월 5일(수) 신라대학교

프로그램

멘델스존/서곡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이수인/내 맘의 강물
베토벤/피아노와 코러스,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조준제(성악), 박수현(피아노), 김가현(플룻), 오주현(플룻)

■12월 6일(목) 경성대학교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민동산, 전람회의 그림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임공수/강 건너 봄이 오듯 등 수곡
· 지휘/이기균
· 협연/박종준(성악), 강은태(성악), 한상훈(트럼펫)

■12월 12일(수) 고신대학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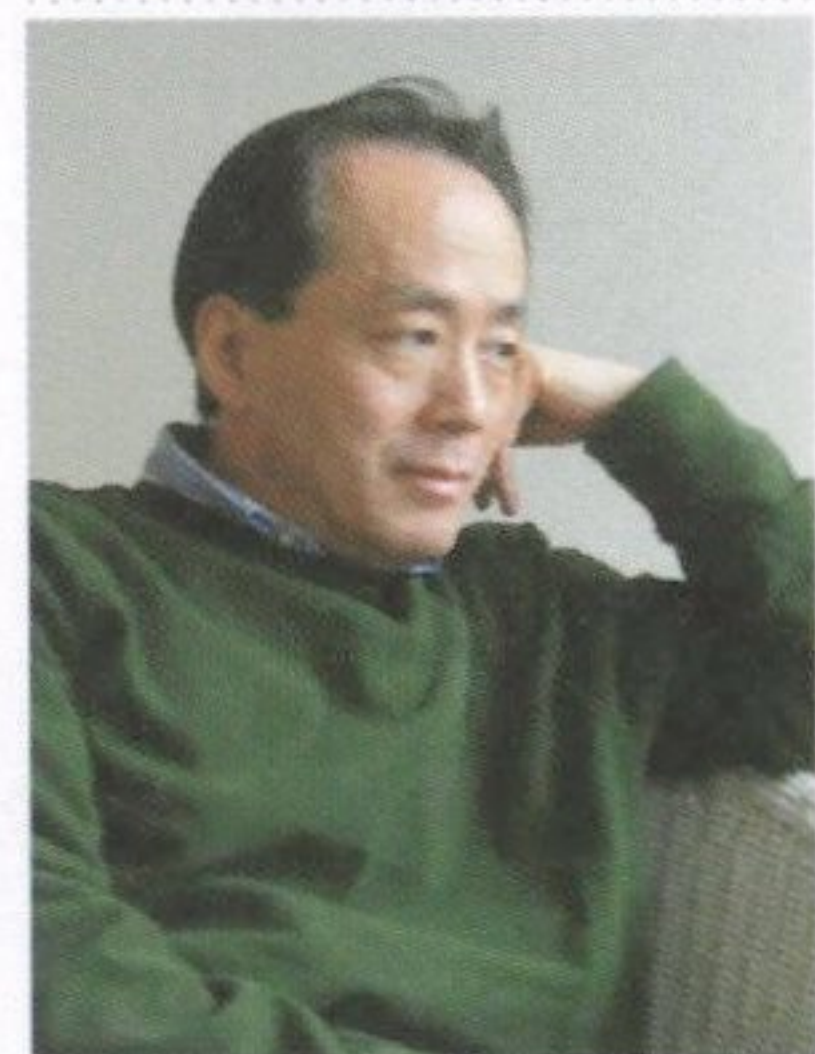
로시니/'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베버/협주곡 제 2번 작품 74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15, 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36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박예녹(클라리넷), 김성경(피아노)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6일 목요일 오전 11:00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한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 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11

시에 만나요'.

2007년 마지막 무대로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 새 지휘자 금난새와 동의대학교 백재진교수가 겨울 낭만을 선사한다.

비발디 '사계'는 비발디가 살았던 베네치아의 계절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바단조 작품 84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겨울'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중 제 1, 4악장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바이올린/백재진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로망스 코미디 뮤지컬 비애로

8일-9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무대에 서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매일 청소와 굶은 일을 도맡아 하던 개그맨 신인 최동석과 100일이란 시간 동안 그를 지켜봐주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백혈병환자 윤희수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로망스 코미디뮤지컬 '비애로'.

- 연출/백재현 · 작가/황선영
- 작곡/권오섭
- 안무/김성일, 김희중

출연

김늘메, 김도형, 김희원, 최오식, 김도신, 김성규, 문용현, 김지훈, 강지연, 김세진, 강민선, 김민지, 박지혜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7 송년음악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다양한 기획 연주로 청소년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이은옥 이장호 이성호 김판수

들려주는 2007년 송년음악회.

수석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위대한 작곡가 악성 베토벤의 초기작품과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계명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중국 심양대학교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전성해가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베토벤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제 2번을 협연한다.

프로그램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다장조 작품 43

모차르트/세레나데 제 6번 라장조 '세레나타 노투르나' 작품 239

베토벤/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제 2번 바장조 작품 50

베토벤/교향곡 제4번 내림나장조 작품 60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전성해(바이올린 · 중국 심양대학교 교수), 이은옥(바이올린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장호(바이올린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이성호(비올라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김판수(첼로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6회 정기연주회
14일 금요일 오후 7:30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6회 정기연주회.

겨울의 서정을 담은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서는 오랜만에 러시아 출신의 뛰어난 호른니스트 키릴 코토민을 초청,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제 2번과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명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오케스트라 곡들을 발채, 2부 무대를 마련한다.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키릴 코토민은 모스크바 국립 아카데미 챔버 오페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관악 교향곡

모차르트/호른 협주곡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417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작품 66 중 발채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혼/키릴 코토민 · 바이올린/김동욱
- 첼로/양욱진
- 해설/곽근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온몸을 휘감는 열병 -몸살음악회 TA RO IV

15일 토요일 오후 7:00



매공연 마다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과 공유의 기획프로그램 打路 다섯 번째 무대.

두드림의 길, 길을 두드려 탄탄히 한다는 의미의 打路는 미래를 예언하는 타로 점(占), 우리 음악의 미래를 준비함을 뜻한다.

천년을 이어온 아악의 백미 '수제천', 명고 김청만의 북과 부산을 대표하는 박성희 명창의 '판소리', 한국인의 몸에 스며 내려오는 신명의 뿌리 '판굿', 무술 시범단 챔피언 태권 마샬아트와 함께 하는 웅장한 모듬북 합주 등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수제천(대금/김수일, 최재호, 신기범 · 소금/

이중희 · 피리/진형준, 권미정, 정주아 외)

판소리(소리/박성희 · 고수/김청만)

사물판굿(연주/서울전통 타악진흥회)

다드리(재구성/신문범 · 연주/김정훈, 최오성,

이봉우, 이경희, 최소희 외)

모듬북 합주 with extreme martial art

(재구성/신문범 · 타악/신문범, 김정훈,

최오성, 이봉우, 이경희, 최소희 외) 등

· 특별출연/김청만(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 후보, (사)

서울 전통 타악 진흥회 이사장)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무술/챔피언 태권도 마살아트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서울전통타악진흥회(583-7958,
016-557-6058, 011-596-6718)

200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 내
한공연

16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맑고 순수한 음성, 아카펠라의 완벽한 화음, 최고의 솔리스트로 구성된 평화의 사도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부산연주회.

1907년 1월 10일 파리에서 결성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서울 및 전국 순회공연 15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해왔다. 1924년 에르네 마이어 신부가 합창단을 이끌면서 부터 정통 교회음악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가곡과 드뷔시, 라벨 등 현대작품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다.

프로그램

롯시니/고양이 이중창
파리씨에/파리-파남므
랭카스터/우정

세계민요/필리핀 민요 '바하이쿠보', 바누아투 민요 '유미, 유미, 유미', 웨일즈 지방민요 '지극히 높으신'

슈베르트/붉은 장미, 아베마리아 등 수곡

· 지휘/베로니크 토마썸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SPA엔터테인먼트(622-4220)

UKO (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5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7일 월요일 오후 7:30



백진현 유승연 정재명

사랑의 선물로 어린 생명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창단된 유나이티드 코리아오케스트라의 제 5회 정기연주회.

신라대학교 백진현교수가 지휘하고 뉴욕대에서 음악수업을 한 소프라노 유승연과 잼 색소폰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폰 주자 정재명, 김태호가 지휘하는 어린이합창단 늘고운소리합창단이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베르디/ '나부코' 서곡
모차르트/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작품 339 중 '주를 찬미하라'

모차르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작품 165 중 '알렐루야'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선곡

앤더슨/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루돌프사슴코, 울면 안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실버벨 - 창밖을 보라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소프라노/유승연 · 색소폰/정재명
· 어린이합창/늘고운소리합창단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정희자(011-589-3111)

부산시립합창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해피 크리스마스!!!
18일 화요일 오후 7:30



2007년 송년의 아쉬움을 음악으로 함께 나누는 부산시립합창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무반주의 전통적인 음악을 비롯 금관악기의 밝고 경쾌한 캐롤 메들리로 화려한 크리스마스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모테트 /이새의 뿌리에서 (A.Bruckner), 기뻐하라 모든 백성아(F. Mendelssohn), 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M.Lauridsen)

해피 크리스마스/아름답게 장식하세, 성탄나무, 축배를 들자, 종의 캐롤, 징글벨스

온 세상의 크리스마스/오소서, 임마누엘(15세기 프랑스선율), 조용, 조용(오스트리아 캐롤), 자마이칸 노엘 (K.Shaw), 크리스마스 스윗(편곡 David J.Elliott)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이승윤, 이경미
· 특별출연/부산원드오케스트라 브라스콰이어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7회 정기
연주회 송년음악회
2007 법고창신
명인에게 명곡의 길을 묻다
20일 목요일 오후 7:30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송년음악회 '2007 법고창신- 명인에게 명곡의 길을 묻다'.

이 시대 명인들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유경조 악장의 청아한 대금선율, KBS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김종식의 해금선율, 대구예술대 한국음악과 겸임교수 장명화의 소금선율, 정악계의 대들보 정재국 명인의 50년 피리소리 길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이상규/해금협주곡 '수나뽀'
 이강덕/소금협주곡 '세우림'
 피리독주곡/전통음악에서 영상회상 중 '상령산' 등 수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유경조(대금), 김종식(해금), 장명화(소금), 정재국(피리)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2007송년음악회
카르미나 부라나
 21일 **금요일** 오후 7:30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음악을 통해 저무는 한해를 돌아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07 송년음악회.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바르셀로나 비냐스 콩쿠르 1등상에 빛나는 소프라노 김성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국제 성악콩쿠르 Finalist 테너 곽성섭,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3위, 민헨(ARD) 콩쿠르 1위에 빛나는 바리톤 김동섭이 출연, 도덕, 사랑, 유희, 종교 등 삶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중세 음유시인들의 시 카르미나 부라나를 음미한다.

프로그램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칼 오르프/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소프라노/김성은
 · 테너/곽성섭 · 바리톤/김동섭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
제 17회 정기연주회
 22일 **토요일** 오후 7:30

전국학생음악대회와 각종 대회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휩쓸었던 소년의집 관현악단은 1999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의 소년의집 방문과 예술의전당,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가졌던 장영주의 리사이틀 앵콜 부분에서 두차례 협연을 통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니콜라이/오페라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 서곡

이흥렬/ 꽃구름 속에
 쇼팽/피아노 콘체르토 1번
 베토벤/심포니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 55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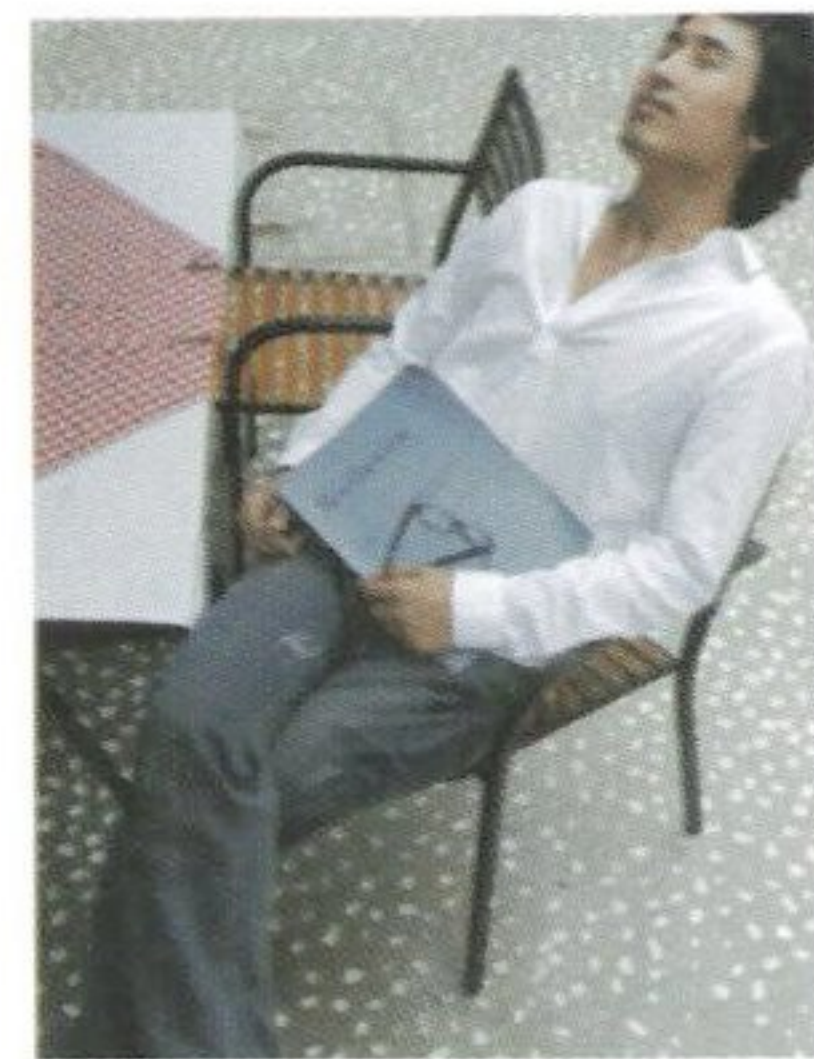
· 지휘/안유경
 · 소프라노/이솔미 · 피아노/황보미영

입장료 초대

문의 소년의집

(256-3901, 011-578-3901)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 투어 리사이틀
건반위를 물들이는 서정과 열정의 색채
 23일 **일요일** 오후 5:00



10월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대구를 비롯 12개 도시에 걸쳐 열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12개 도시 전국 투어 리사이틀.

섬세한 음색과 화려한 테크닉, 강렬한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정원은 만 14세의 나이로 빈 국립음대에 이례적인 최연소 수석입학을 했고 2년 후 빈에서 열린 엘레나 롬브로 슈테파노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빈 무직페어라인의 황금홀에 데뷔했다.

프로그램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베토벤/월광 소나타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2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스톰프 뮤직(02-2658-354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 3대 발레단 키에프 웨브첸코 발레단
주역들과 키에프 소년소녀발레단이 함께 하는
차이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인형
 25일-26일 **화요일** 오후 5:00
 26일 **수요일** 오후 7:30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탈양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평안리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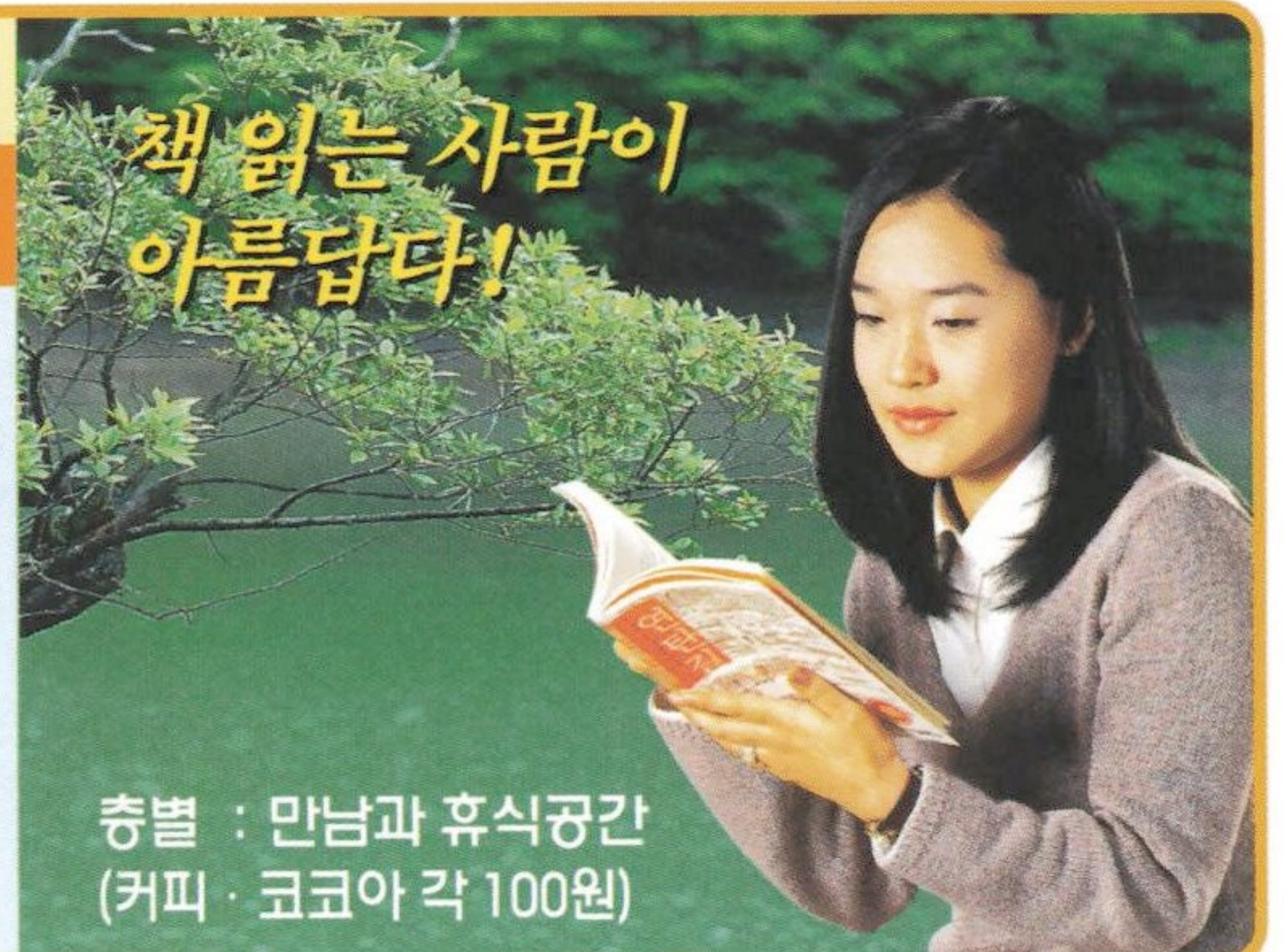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러시아를 대표하는 극장 중의 하나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최고의 국립극장인 키예프 슈브첸코발레단 주역들과 소년소녀발레단의 차이

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인형' 부산무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와 함께 클래식 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의 낭만파 작가 E.T.A.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을 원작으로 하는 환상적인 작품으로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에서 초연된 이래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즈음하여 공연되고 있다.

이번 무대는 기존 발레의 이미지를 탈피한 무대의상 및 공연 구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춤과 환상적인 무대연출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2007 송년을 위한
가족사랑음악회
28일 금요일 오후 7:30



2007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2007년 송년무대.

23년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지도해온 수석지휘

자 배정행의 고별무대로 학부모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가족음악회로 한해를 마무리한다.

프로그램

존 레빗/글로리아

돈 베직/그의 빛 안에 살면, 훨훨 날리라,
내게 음악 있네

러시아민요/호롱불, 황혼 등 수곡

- 지휘/배정행(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첼로 나경혜, 스윗로디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2007 부산 송년 음악회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송년 자선음악회
2007 부산을 빛낸 성악가들의 대향연
노래와 사랑 그리고 나눔
29일 토요일 오후 7:30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슬리스트 앙상블 세 번째 나눔공연 '결식아동 돕기 자선음악회'.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송년의 아쉬움을 노래할 이번 무대는 2007년 한 해 동안 부산 오페라와 성악 무대를 빛낸 정상급 성악가들의 오페라 아리아 메들리, 가곡,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출연

고예정, 김한나, 김행재, 김현주, 박소영, 박연경, 박은미, 변향숙, 장은영, 조혜령, 안성민, 이윤순, 이윤정(이상 소프라노), 박소연, 성미진, 이지영, 이민정(이상 메조소프라노), 김경, 김화정, 박찬, 방현호, 장진규, 전병호, 양승엽, 우원석, 허동권(이상 테너), 고정현, 고영호, 김상효, 김종화, 심정보(바리톤), 권영기, 김정대, 김태형, 장재석, 정용욱(베이스)

· 제작총감독/임재우

· 음악코치/홍지혜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 및 청소년 50% 할인)

문의 ISOLISTI(747-1567)

Sumi Jo & Winners
2007

30일 일요일 오후 6:00



밝고 투명한 음색으로 금세기 최고의 콜로라투라로 평가 받으며 지난 20년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최근 오페라 본고장인 유럽 무대에 진출하여 맹활약을 하고 있는 후배 성악가들이 함께 꾸미는 Sumi Jo & Winners 2007.

비냐스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Valsesia a Varallo Sesia 국제 성악콩쿠르 2위 등에서 입상한 성악계의 샛별 소프라노 손지혜, 벨리니 국제 콩쿠르 등에서 메조소프라노로는 유래 없이 모두 단독 1위로 우승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한국인 테너로는 최초로 라 스칼라 극장 무대에 서는 테너 이정원, 벨기에 Concours International De Chant De Verviers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정호윤, 베르디 콩쿠르 1위, 비냐스 콩쿠르, 벨리니 국제 콩쿠르 등에 입상한 바리톤 한명원, 마리오 바시올라 국제음악콩쿠르 1위, 빌바오 국제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한 바리톤 강형규가 출연한다.

· 반주/Mostly Philharmonic
Orchestr(지휘/콜롬보)

입장료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C석 30,000원

문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07 제야음악회
'Say Goodbye 2007,
Say Hello 2008'
31일 월요일 오후 10:00

2007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08년 신년의 희망을 담은 부산문화회관 2007년 제야음악회.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

1부 연주에 이어 휴식에는 재즈앙상블 셀레스트가 들려주는 로비음악회, 2부에서는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이 이어진다.

프로그램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바단조 작품 21
베토벤/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중 제 4악장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중 제 3악장

레하르/‘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 든 것’

글린카/서곡 ‘루슬란과 루드밀라’ 라장조 슈트라우스/‘박쥐’ 중 ‘여보세요, 백작님’
현제명/희망의 나라로 등 수곡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피아노/에드워드 아우어
- 소프라노/박지현
- 테너/류정필
- 6 바이올린/박정은, 황고은, 이효진, 권 순지, 조양선, 황영은(지도교 수/김영희)

- 특별출연/재즈앙상블 셀레스트
- 사회/육선주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중극장

부산YWCA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일 토요일 오후 7:30

1973년 ‘뭇골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 단된 이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 YWCA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부산YWCA합창단은 김일연 지휘자와 함 께 40여명의 단원들이 순수 여성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34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 바흐/주 하나님
- 임금수/주님의 옷자락
- 김규환/철새
- 크리스마스 미사페스티발/천사들의 캐롤,

케를 메들리 등 수곡

- 단장/김경수
- 지휘/김일연 · 반주/정미전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YWCA합창단(441-2225)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수전노

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국제연극제, 밀양여름공연예술 축제, 거창국제연 극제에서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특별무 대.

프랑스를 대표하 는 작가 몰리에르 만년의 걸작인 ‘수전노’ 는 모순된 상황에서 비롯되는 웃음과 인간 의 본성에 대한 재치 있는 관찰이 생생하게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 원작/몰리에르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자)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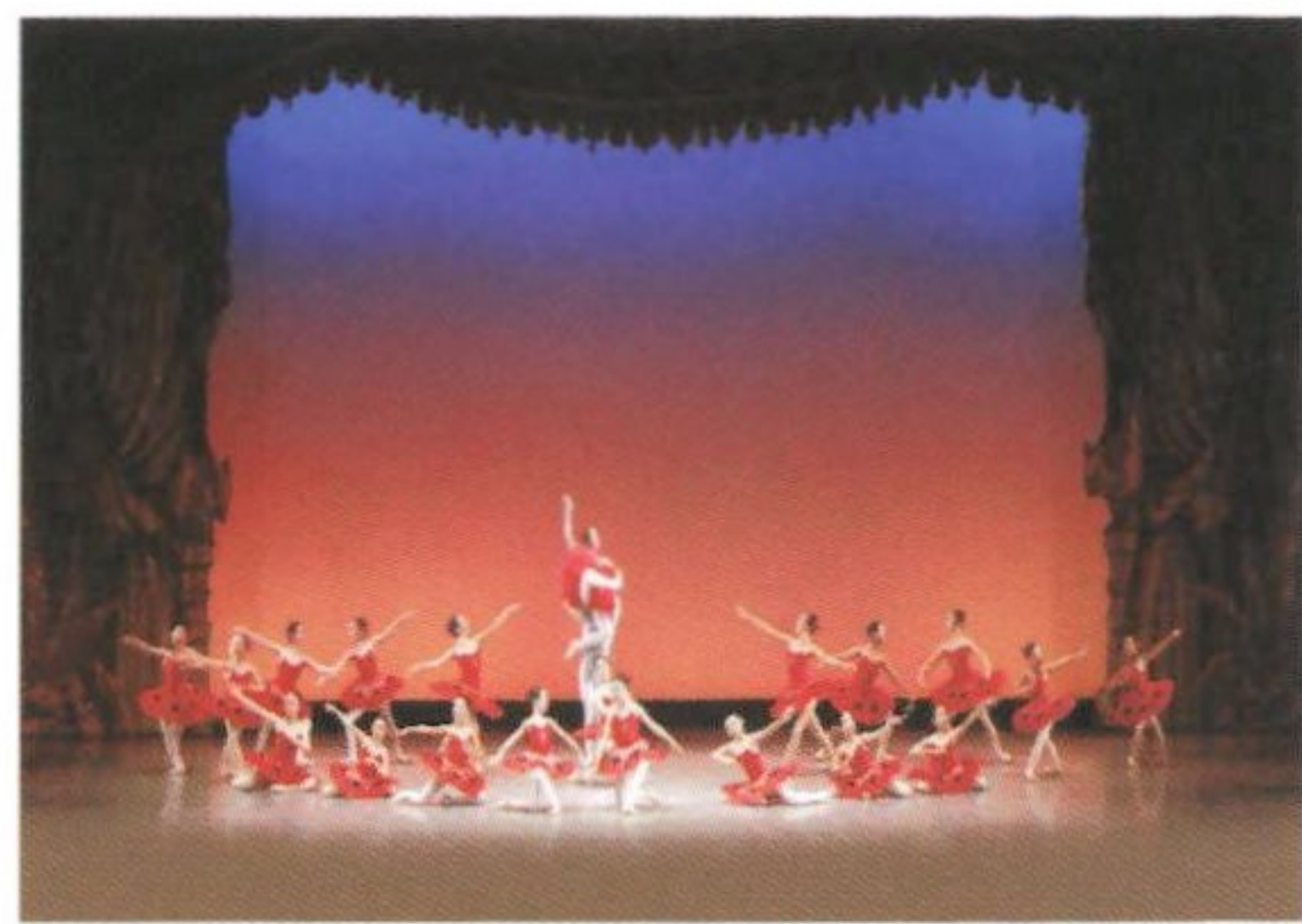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제2회 부산북구낙동청소년 예술단 정기공연

9일 일요일 오후 4:00

북구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결성된 부산 북구 낙동청소년예술단 제 2회 정기공연.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낙동청소년오케스 트라단과 낙동청소년 무용단이 활동하고 있 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5번’
-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 몬티/차르다시
- 발레/‘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 지휘/박종관
- 안무/박헌주, 김미령
- 바이올린/남가영 · 소프라노/박희정
- 테너/김창돈 · 마림바/최아나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북구낙동청소년예술단 (016-9316-1974)

제 2회 한울 연주회

1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에서 김지령 교수를 사사한 제 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한울’의 두번째 정 기 연주회.

이번 연주회에서는 20세기 피아노 음악 을 대표하는 프로코피에프의 곡들로 보다 아카데믹하고 격정적인 현대 피아노 음악의 묘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

- 박선재, 서혜원, 김문주, 김은주, 박필은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진희(010-9928-3733)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돈가스 ₩6,000원(디저트 포함)
- ★따끈따끈 단팔죽+녹차 ₩5,000원 (겨울별미)
- ★원두커피+쿠키 ₩3,5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창단 20주년 기념 제 17회 정기연주회
가곡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11일 화요일 오후 7:30

오페라와 콘서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전문 성악연구단체 아미티에 성악연구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우리가곡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노래하지마오 아름다운 이여,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이수인/내 맘의 강물

신동수/산아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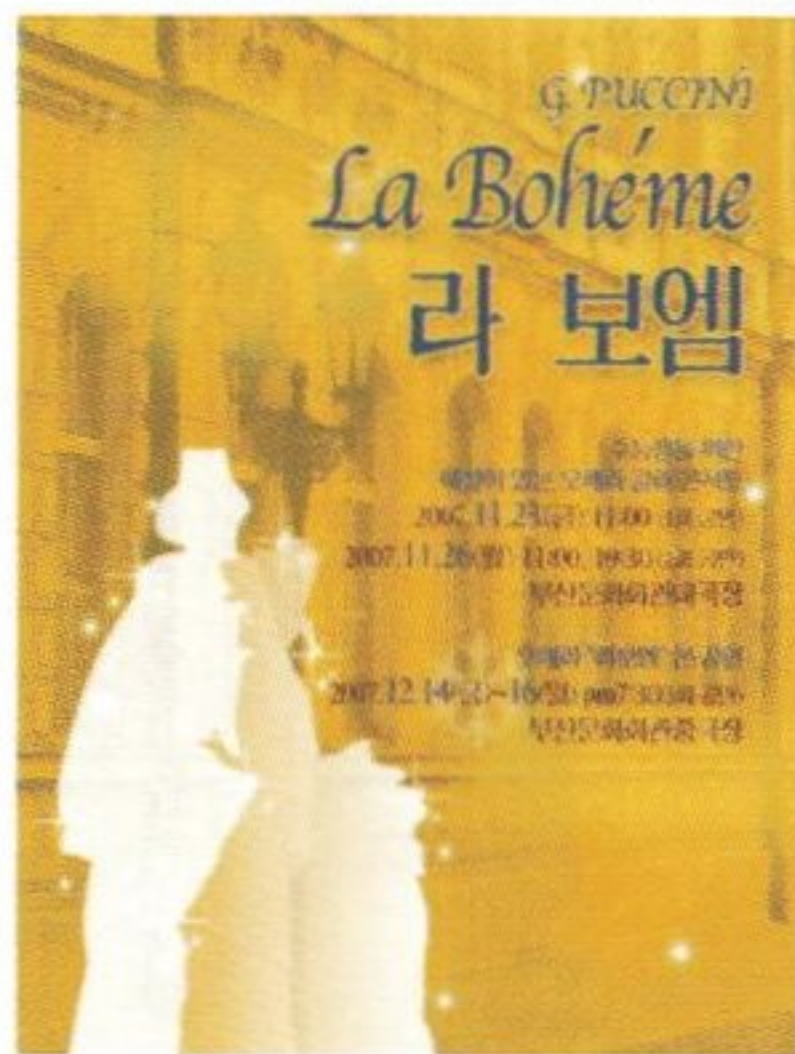
소프라노 장은영, 테너 김철수, 소프라노 박소영, 소프라노 옥혜나, 바리톤 하병욱, 소프라노 서정아, 소프라노 양성희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정종철(016-898-2442)

2007 부산송년오페라페스티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14일-16일 금-일요일 오후 7:30



오페라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오페라연구소가 선보이는 2007 부산송년 오페라페스티벌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La Bohème)'.

11월 '갈라 콘서트'에 이어 12월에는 가난한 연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라보엠' 전막을 선보인다.

출연

배수진, 안성민, 김한나, 변향숙, 박수진, 이윤순(이상 소프라노), 김화정, 박찬, 전병호(이상 테너), 고영호, 이종훈, 박원한, 채범석, 이정훈(이상 바리톤), 권영기 외

· 제작총감독/임재우

· 지휘/윤상운 · 연출/방정욱

· 합창/부산오페라 합창단, 연천어린이합창단, 원음어린이합창단

· 연주/까메라타부산 오케스트라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문의 ISOLISTI(016-566-5316)

김해성의 춤-어린이를 위한
전통춤 공연

18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여자대학 아동스포츠학과 김해성 교수가 어린이들에게 맞게 재구성된 우리의 전통춤을 분야별 전수생들과 함께 선보인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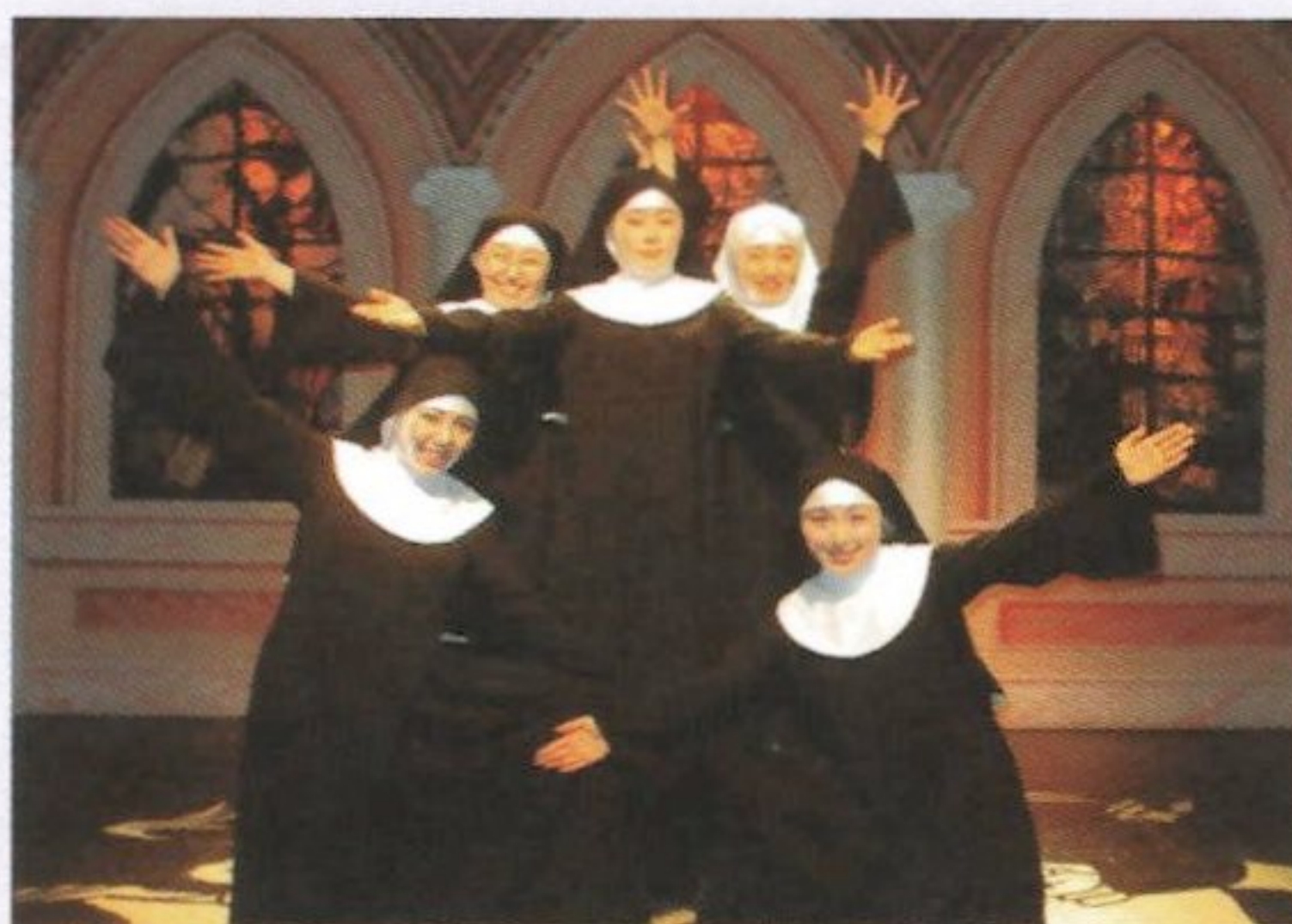
동래학춤, 한영숙류 승무, 진주 포구락무, 살풀이, 승전무 북춤, 어린이를 위한 북춤, 태평무

입장료 초대

문의 김해성(850-3261, 010-6668-1261)

다시 보고 싶은 베스트 뮤지컬 0순위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

24일-31일 평일, 토요일 오후 4:00, 7:30 / 일요일, 공휴일 오후 3:00, 6:30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특별한 이유로 수녀 5명이 벌이는 이색 공연 속에 포복절도 할 개그와 풍자를 쏟아내는 년센스 부산무대.

지난 1991년 초연된 이후 화제를 몰고 다닌 뮤지컬 '년센스'는 공연 때마다 관객점유율이 90%, 275만 6,686명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 원작/단 고진 · 연출/박진선

· 안무/박상규 · 음악/엄기영

출연

황수경(엠네지아 수녀), 박정희, 박재롬(원장수녀), 윤수미(허버트수녀), 송희영(엠네지아 수녀), 오지연, 김민정(로버트앤 수녀), 박영, 이윤희(레오 수녀)

입장료 R석 45,000원,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학생 2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www.anticket.co.kr)

소극장

미산 박초월 바디 흥보가 연창
제 1회 박성희 제자 발표회
21일 금요일 오후 7:30



박성희 명창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미산 박초월 바디 '흥보가' 연창 발표회.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해학성과 서민의 정서를 뽐어내는 재담으로

가장 민속성이 강한 소리로 꼽는 '흥보가'를 박성희 명창과 그의 제자들이 연창 형식으로 들려준다.

단가 사철가를 시작으로 '흥보가' 초입부터 화초장타령까지 연창과 흥겨운 민요 한마당이 이어진다.

· 고수/신문범

· 민요반주/신문범(장구), 조경화(가야금), 신재현(아쟁), 이종희(대금)

입장료 초대

문의 박성희판소리연구소 (011-878-6370)

석암가사보존회 제2회 정기연주회
북두를 바라헤니 오늘밤도
빛난 별이

24일 월요일 오후 3:00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보유자 (고)석암 정경태 선생과 전수조교 (고)국당 백학정의 제자들로 구성된 석암가사보존회의 제 2회 정기연주회.

정악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인 가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석암 가사 이수자, 전수자, 전수생들의 참가, 12가사 전곡 발표를 발표한다.

프로그램

상사별곡, 춘면곡, 백구사, 황계사, 어부사, 죽지사, 길군악, 처사가, 수양산가, 매화가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황경자(010-6739-5300)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부산극동방송 설립 허가 기념 마에스트로 정명훈 & 서울시향 초청 The Grand Concert

1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005년 마에스트로 정명훈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영입해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도약한 서울시향 초청 그랜드 콘서트.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브람스 스페셜로 2007년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문의 S석 50,000원
부산극동방송(759-6000)

김성혜 바이올린 독주회

1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 미국 인디애나음대, 뉴욕주립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혜 독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글로벌문화선교회 제 2회 지역주민을 위한 콘서트

2일 일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문화선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제 2회 콘서트. CBS 권사합창단, 사론중창단, 테너 김현식, 바이올리니스트 김경미, 난타팀 '홀리비트'가 출연한다.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귀국독창회

2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경희대학교 성악과와 캐나다 맥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수 무대에 서온 메조소프라노 이민정 귀국 독창회.
· 피아노/김승환

입장료 초대
문의 이민정(624-4486)

남성성악앙상블 4+1 초청 후원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제 4회 나사함 한마음음악회

3일 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나사함에서 송년을 맞아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

테너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 김지호와 베이스 권영준, 피아니스트 최혜련으로 결성된 남성성악앙상블 '4+1'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 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무료
문의 나사함(623-8522)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4일 소프라노 마혜선 귀국 독창회

국립 안동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로시니 국립음악원, 이태리 Pescara Scuola Superiore Di Musica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태리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마혜선 귀국 독창회.

■ 11일 모아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 18일 백재진교수의 실내악시리즈Ⅳ

'부산 클라리넷콰르텟 연주회'
· 연주/김태훈, 권병옥, 김성현, 이성관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 특별출연/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김태경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5일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경북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 12일 멜로스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 19일 오난숙 바이올린 독주회

미국 쉰시내티 콘서바토리와 피바디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바이올리니스트 오난숙은 이번 무대에서 사라사테와 비에나프스키, 베토벤, 쇼팽, 그리그 등 대작곡가의 감미로운 소품을 들려준다.

■ 26일 크로노스앙상블 초청 2007 송년음악회



2002년 창단 이후 바로크와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은 크로노스앙상블 초청 2007 송년음악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비트타악앙상블 창단연주회

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3월 초등학교 교사 15명으로 결성된 비트타악앙상블의 창단연주회. 재즈와 팝송, 영화음악,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 지휘/김정우

· 트레이너/권햇님

· 특별출연/전상천, 정종혁, 최아나, 이경태, 차유정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비트타악앙상블(016-562-6581)

한국바로크앙상블 특별공연

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1년 서양음악의 뿌리를 찾고자 창단한 한국바로크앙상블은 바로크 원전악기로 연주하는 국내 유일의 실내악단으로 그동안 바로크 음악 보급에 앞장서왔다.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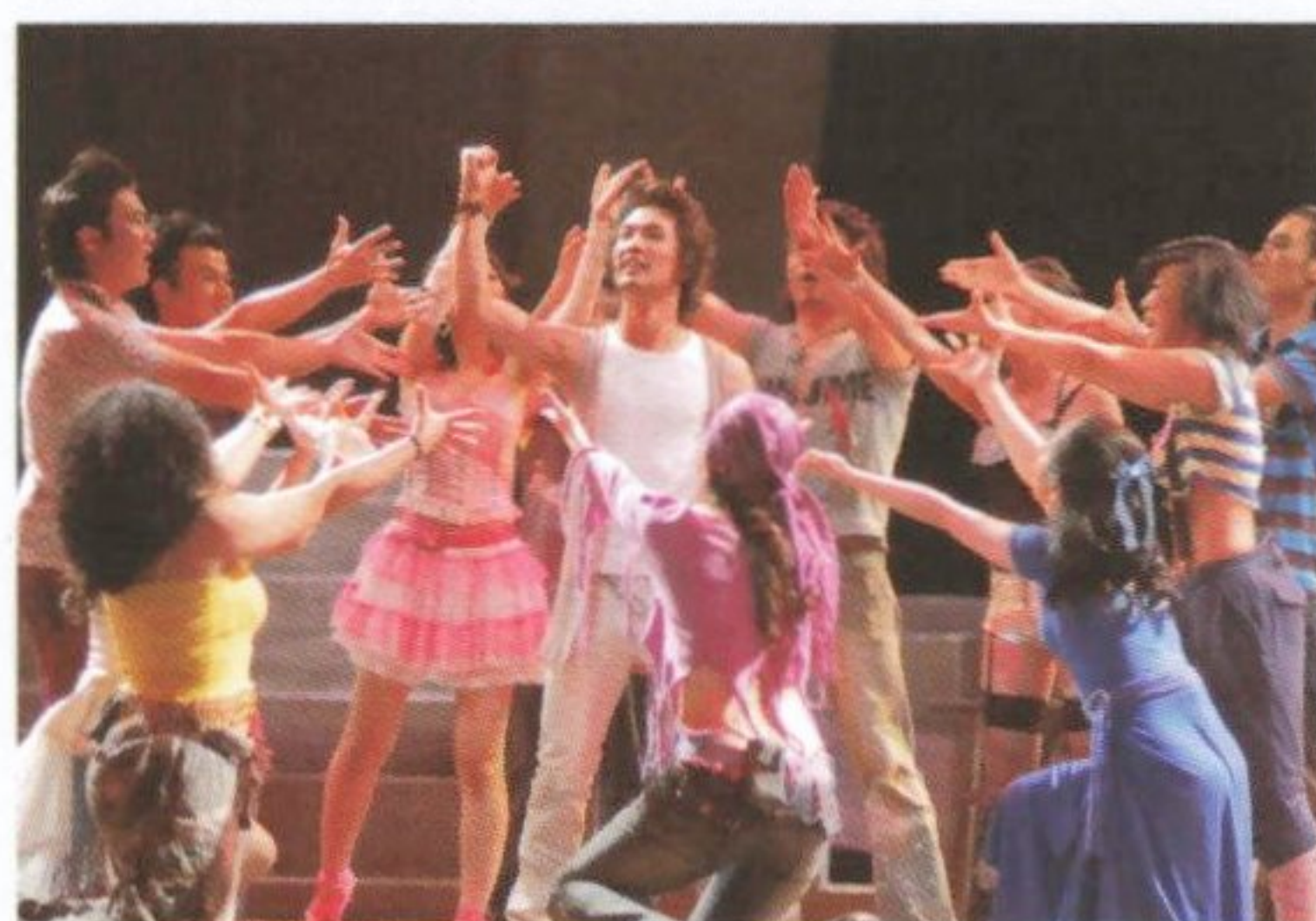
초중고생 5,000원(2층)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뮤지컬 갈라 콘서트

7일-8일 금-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페라의 유령, 지킬과 하이드, 시카고, 캣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유명 뮤지컬 넘버곡으로 마련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백혈병 환아를 돕는데 쓰여진다.

· 총감독/손욱 · 연출/홍충민

입장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246-6404)

롯데시니의 동화 오페라 신데렐라

10일 월요일 오후 7:30, 11일-12일

화-수요일 오후 4:00,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8일-19일 화-수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신데렐라'를 롯데시니 특유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살아있는 캐릭터로 재미와 해학, 감동을 전해줄 가족오페라 '신데렐라'.

· 제작/김성경 · 연출/양지웅

· 연주/밤비니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하호석)

· 출연/박소연, 정연희, 구원모, 양승엽, 최대우, 이철훈, 윤현숙, 조난영, 김정대, 권영기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수능생을 위한 연주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가 수능능력시험을 마친 수능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무대.

· 연주/김동욱, 김희정, 이윤영, 서송은, 이은옥, 우소라, 하은영(바이올린), 김가영, 이성호, 홍영선(비올라), 양육진, 김판수(첼로), 박희청(더블베이스)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2)

15억 중국인을 감동시킨 조선족 성악가 테너 김영철 리사이틀

12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중국 연변 조선족 출신으로 베이징 중앙 음악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국제성악콩쿠르, 스페인 빌바오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테너 김영철의 첫 번째 내한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곡 및 조선족 동포들의 민족정서가 배인 연변가곡, 나폴리민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소영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문의 예바라지(017-568-6056)

아울로스 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12일 수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1년 창단 후 그동안 11차례 정기연주회와 교과서 음악회, 춘천리코더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울로스 리코더앙상블이 일본 재즈앙상블 '더 도메스틱 밴드'와 함께하는 조인트 무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성란(010-3193-5474)

문은희 오르간 독주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중앙교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오르가노회원, 제5영도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르가니스트

문은희 독주회.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나영

입장료 초대

문의 문은희(011-844-2545)

바리톤 고봉수 독창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동의대학교와 이태리 국립음악원 G.Nicolini, 오르페오아카데미아, S·Felice 아카데미아 등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

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바리톤 고봉수 독창회.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백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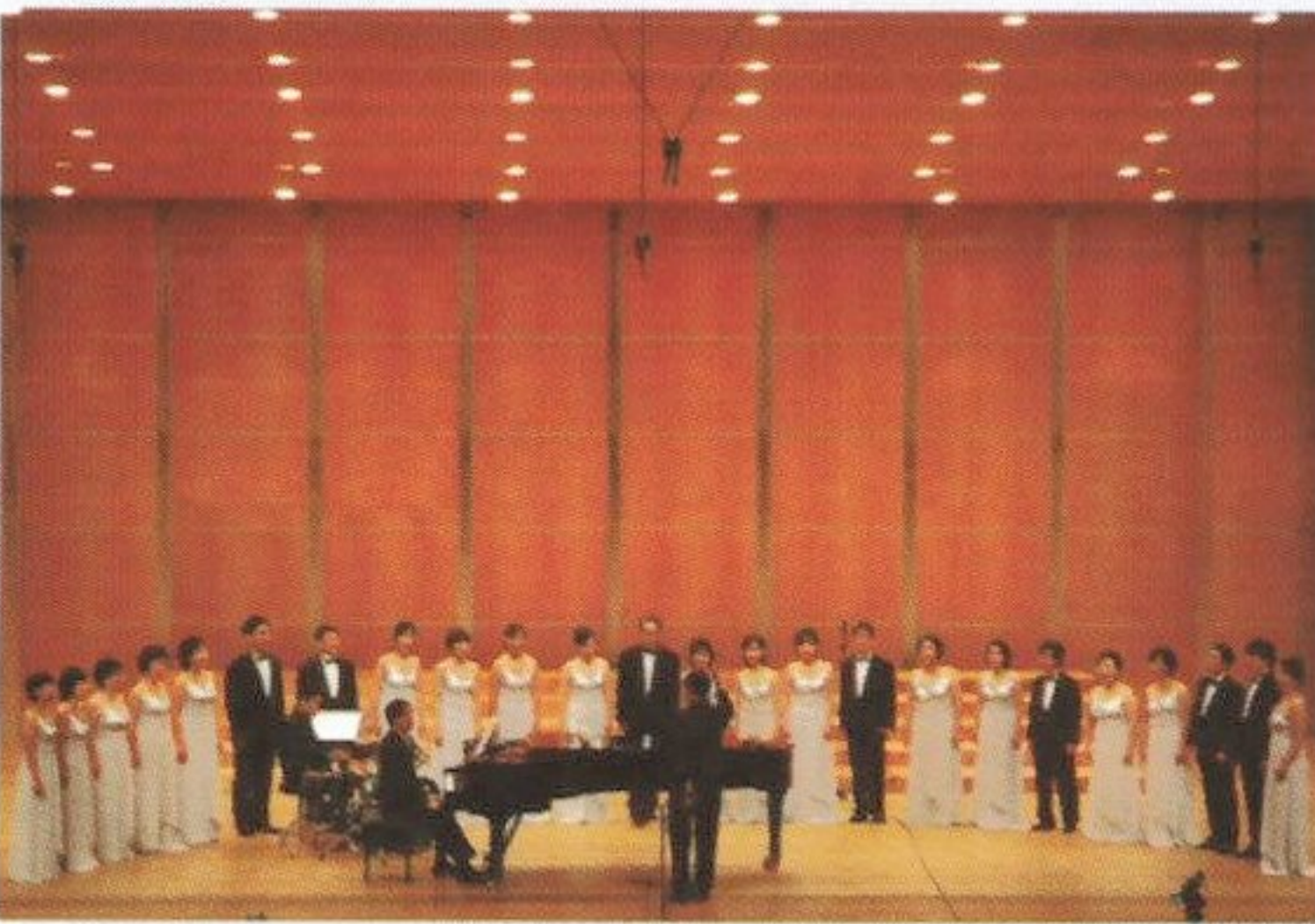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고봉수(010-9608-8799)

부산교사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대한민국 교사합창대회에서 맑고 깨끗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합창단으로 평가 받은 부산교사합창단이 다양한 장르의 아카펠라를 통해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12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김강규

입장료 초대

문의 성낙찬(010-3354-3639)

김정숙, 주미경 듀오연주회

14일 금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링카 국립음악원(최고연주자과정)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정숙과 주미경이 마련하는 듀오 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김유진, 이수진 피아노 듀오연주회

15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계명대학교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유진과 이수진이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아렌스키, 라벨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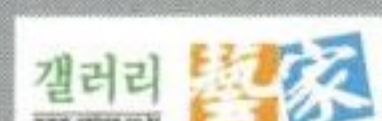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김유진(019-322-2167)

김선구 조각 초대전

2007.11.22(목)~12.16(일)

전시장소 : Honda cars D3부산광안점
(Tel:710-3000)



문의 : 624-0933

www.yehga.co.kr/한글도메인:갤러리에가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글로벌아트홀 개관 2주년 및 글로벌콘서트바토리 개원 2주년 기념음악회

15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신영순

글로벌아트홀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펼치는 특별무대.

프로그램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황병기/춘설

바그너/오페라 '탄

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

파가니니/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모세 등

· 출연/김방술(소프라노), 김종화(바리톤), 이지선(피아노), 이리나(바이올린), 양욱진(첼로), 미즈챔버콰이어, 김남순(가야금), 박환영(장단)

· 해설/신영순(글로벌아트홀 예술총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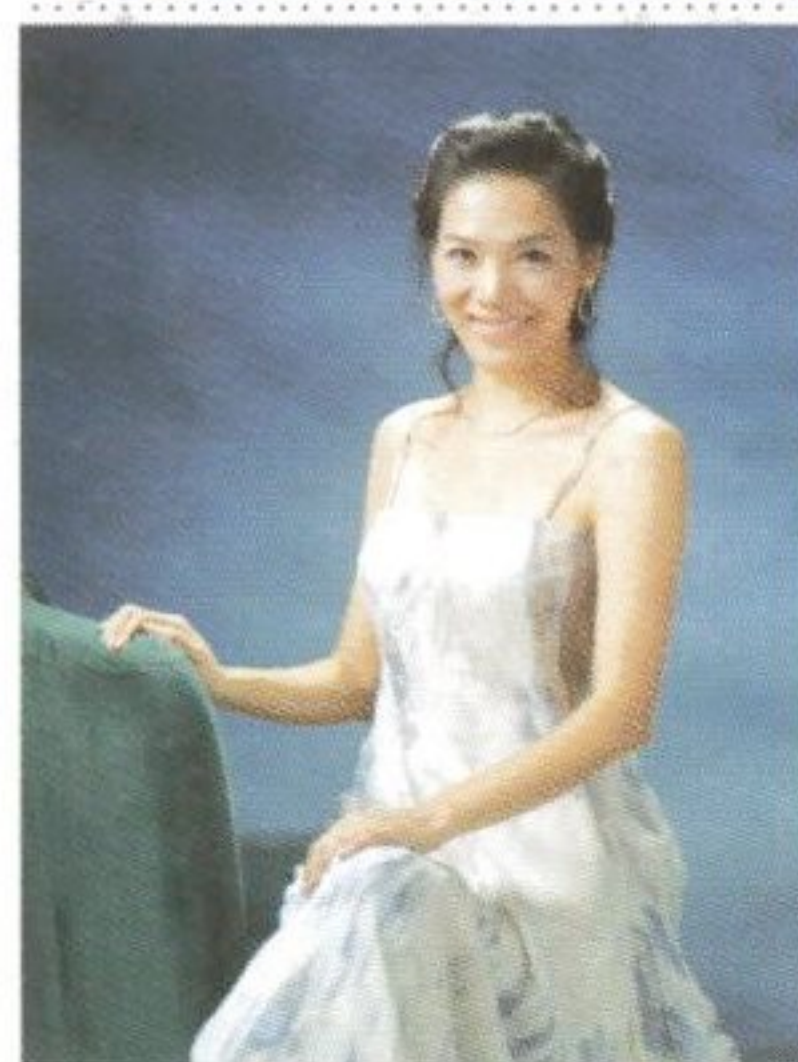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50,000원 · 학생 1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소프라노 한송이 귀국 독창회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G.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소프라노 한송이 독창회.

한송이는 그동안 Isola Borromee

국제 콩쿠르, Francesco Fragioni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프리모아트(016-861-6105)

부산YMCA소년소녀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지난 여름 가졌던 중국 4개 도시 초청연주회와 음반 발매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하는 부산YMCA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 지휘/류지원 · 반주/문지선
· 특별출연/기장군 청소년 리코더 연주단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이진성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이진성 귀국 독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음악공동체 마을 '나모' 송년음악회 '꿈'

20일 목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어린이합창단과 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된 음악공동체 마을 '나모'가 마련한 송년음악회.

· 지휘/조경석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지역주민을 위한 2007 송년음악회

24일 월요일 오후 7:5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복지관, 병원, 학교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온 뉴프라이미 오케스트라(지휘/임준오)의 2007 송년음악회.

· 협연/동민칭(바이올린), 박진영(피아노), 박인남(소프라노), 김현일(바리톤)

입장료 초대

문의 황성준(011-556-7308)

성탄축하음악회

25일 화요일 오후 4: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콰이어, 글로벌실내악단, 글로벌엔젤합창단 등 글로벌예술단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남성앙상블 4+1과 함께 하는 제 10회 아담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27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1995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아담스플루트앙상블이 남성앙상블 '4+1'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입장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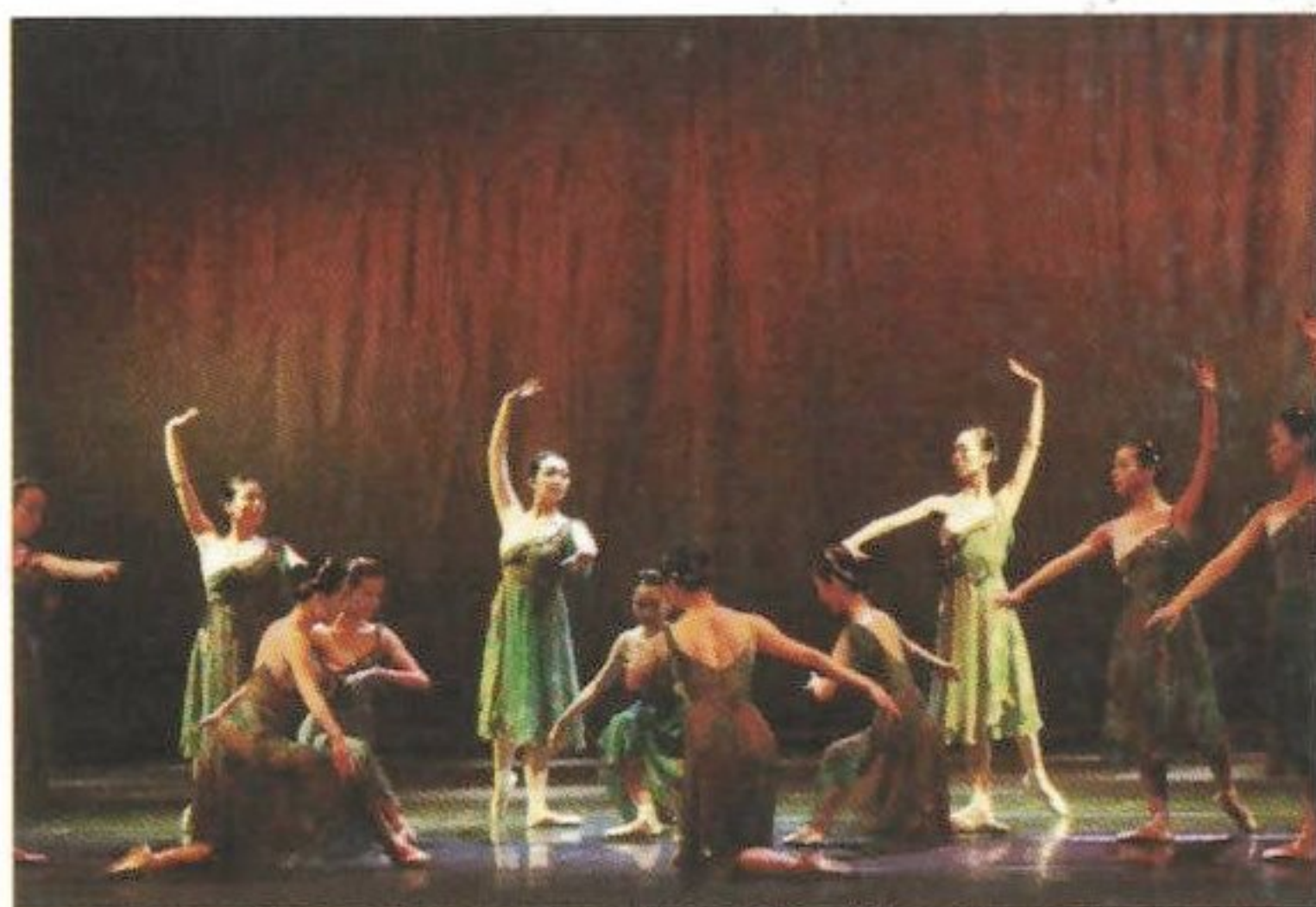
문의 장극태(011-582-5189)

무용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과 2007 정기공연

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과 교수들의 창작 작품들로 마련되는 2007 정기공연.

작품

MESSAGE(안무/주수광), 步·태평무(안무/강미리), 놀이-일곱 번째(안무/박은화),

Concerto in c minor(안무/민병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안무/이윤자)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과(510-1740)

승산한국춤 제 4회 정기공연

8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올해로 창단 12년을 맞는, 전통춤을 사랑
하는 아마추어 춤꾼들의 모임인 승산한국춤
회의 네 번째 정기공연.

· 특별출연/신수방, 김화자, 최창옥(민요),
최창옥(고수), 김명숙(창), 김명
숙(장구)

입장료 초대

문의 허선(010-7727-7544)

하은정의 발(bal) 무용단 창단공연

9일 일요일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 세계벨리댄스대회에서 2위를 수상
한 하은정이 정통벨리댄스를 계승, 발전시
키기 위해 창단한 발(bal) 무용단 창단공연.

버숨새예술단이 출연, 우리소리와 벨리댄
스 몸짓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시스 모던 벨리댄스(633-1543)

한은주의 솔로춤

18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교수이자 현대무용단 '쥘' 예



술감독으로 있는
춤꾼 한은주의 솔
로무대.

지난 2002년 무
대에 올렸던 작품
'심상'을 솔로무대
로 새롭게 선보이
는 무대로,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를 춤사위로 표현한 '심상(心象) II-마음
자리로부터의 움직임'을 선보인다.

· 안무, 출연/한은주 · 대본/한상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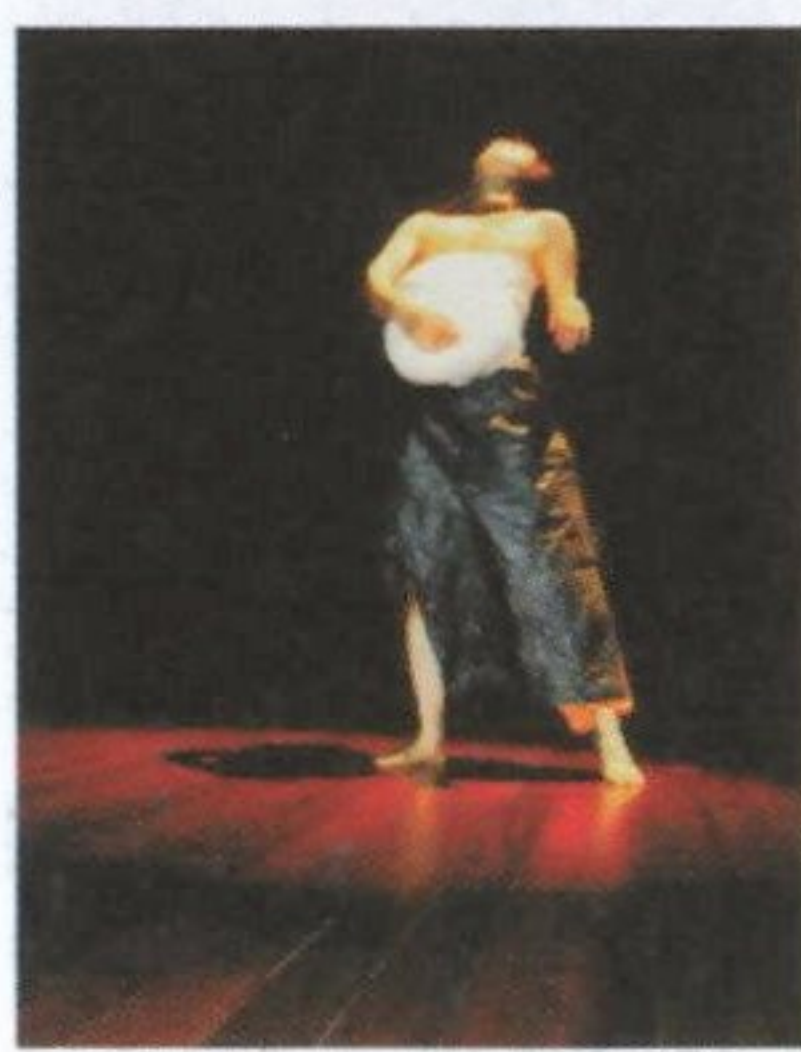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3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경성대학교(620-4964)

2007 홍순미 모던댄스니케 이선 -무용과 피아노의 만남-

22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홍순미 현대무용
단 대표, 부산대학
교 무용학과 강사
로 있는 춤꾼 홍순
미의 2007년 창작
춤판.

피아니스트 미셸
박의 라이브 연주

로, 무용과 피아노 선율이 어울러지는 특별
한 무대가 펼쳐진다.

작품

1부/하늘

2부/놀이터

3부/땅

· 예술감독 및 안무/홍순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홍순미(010-3601-1187)

연극

가톨릭센터 무대공감 시즌2

2007년 11월 15일(목)-2008년 3
월 15일(토) 가톨릭센터 소극장



보다 다양한 장르
의 문화예술을 보
다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안공간에서 역할
을 해온 가톨릭센
터가 연극, 뮤지컬,
마임, 전통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기획공연.

마임극단 세진, 극단 누리예, 크레이지버
드, 남산놀이마당, 배우그룹 '배우 관객 그
리고 공간', 펫브릿지, 극단 동녘 등 7개 단
체가 참여해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www.bccenter.or.kr)

앵콜 두근두근

11월 23일(금)-12월 31일(월) 평
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30, 7:30(12/24일 오후 4:30,
7:30, 12/31일 오후 7: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노래를 제외한 전 대사를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성해 사랑의 두근거림을 노래한 색다른 형
식의 카툰 뮤지컬 '두근두근' 앵콜무대.

· 작, 연출/정세혁

· 출연/조신제, 신미영, 변희경, 민병관, 이규
형, 윤대열, 이지윤, 이국선, 김성균 외



Glovil
Art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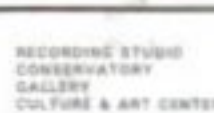
Recording Studio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2008년 상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자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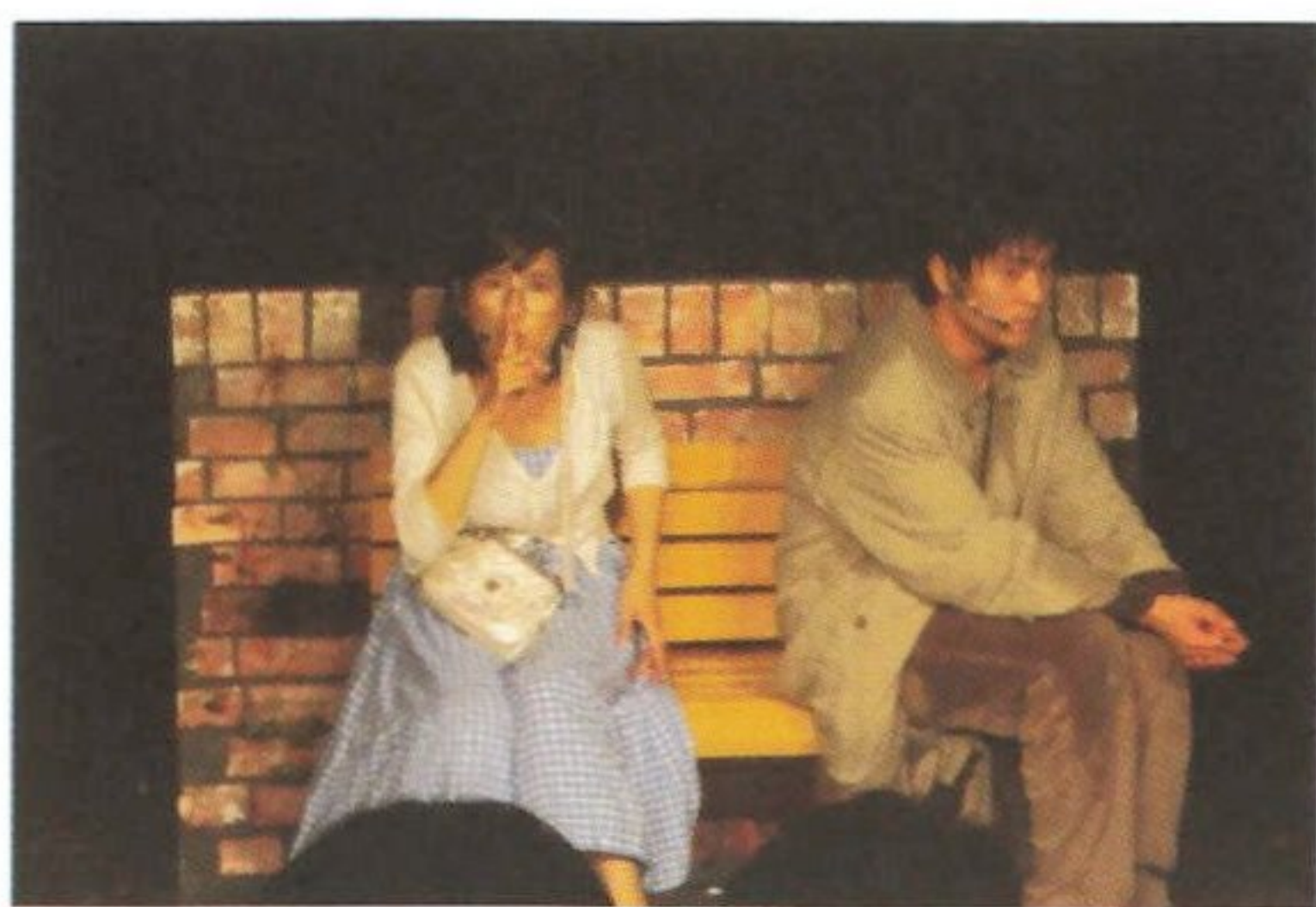


GloVil Art Hall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극단 사계(611-8518)

노래하는 순정만화극 A Love Song

11월 23일(금)-12월 11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만화작가의 만화같은 사랑이야기와 그녀의 만화 속 주인공들의 각기 다른 사랑이야기가 만화적 상상력과 기발한 극적 요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캐릭터로 선보인다.

· 작, 연출/김민지
· 작곡/전현미
· 출연/박지현, 강원재, 류혜린, 김은정, 안소진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문의 팻브릿지(626-3703)

극단 아센 제 17회 정기공연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11월 28일(수)-12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위자료로 물려받은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테레사와 자유분방한 그의 남편 로렌조, 테레사 집에 같이 살게된 젊은 무용강사 엘레나가 펼치는 3인 3색 사랑방정식.

· 연출/호민
· 출연/권철, 구민주, 김연주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연출가 허영길 선생 제 50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기념 신의 아그네스

2일(일)-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너른소극장



이성과 신앙의 대결을 통해 신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보여주는 연극 '신의 아그네스'.

· 원작/존 필리어
· 연출/허영길
· 출연/성경언, 변미선, 우명희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사계(611-8518)

락큰롤 뮤지컬 친구

4일-7일 화-금요일, 11일-14일
화-금요일 오전 9:30,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970년~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구수한 사투리와 추억의 7080음악이 함께하는 락큰롤 뮤지컬 '친구'.

· 작,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이용희, 정재훈, 김지연, 구윤희, 김은란, 강예진, 손미나 외
입장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8,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바리데기

4일(화)-24일(월) 오후 6:00
경성대학교 천막극장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결국에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간다는 바리데기 설화를 연극 형식으로 새롭게 꾸민 작품.

· 연출/심문섭
· 출연/정애경, 양효윤, 김아람, 강원재, 염기덕, 김현주, 김성훈, 김동균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751-0858)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4일(화)-24일(월) 오후 8:00
경성대학교 천막극장

기존의 연극 틀을 깨고 퍼포먼스와 영상이 함께한 색다른 무대연출로, 관객과 호흡하는 독특한 형식의 연극.

· 구성, 연출/오치운
· 출연/이정비, 이재석, 김성훈, 김현진, 장기훈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751-0858)

극단 전위무대 제 85회 정기공연 돌아서서 떠나라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7:30, 8
일 토요일 오후 3:00, 6:00
가톨릭센터 소극장

조직폭력배 두목인 공상두와 여의사 채희주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 출연/박현형, 김지현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전위무대(582-2026)

고도를 기다리며

7일(금)-25일(화) 평일, 공휴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24일 오후 4:00, 7:00, 17일
~19일 휴관) 실천무대 소극장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올지 안 올지
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
르와 에스트라곤을
통해 실존적인 물음
을 던지는 부조리
극.

· 원작/사무엘 베케트 · 연출/유상훈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2007 점프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을 혼합한 '점프'는
무술가족 3대가 살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
어오면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해프닝을 그린
작품이다.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000원
할인)

문의 KNN(1577-7600)

70분간의 연애

8일(토)-31일(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
일 오후 3:00, 6:00(24일, 31일 오
후 7:30, 10: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15년을 친구로
만나왔지만 정작
서로에게 사랑한다
고백 못하는 두 남
녀의 소박한 추억
과 두근거리는 연
애사가 70분간 펼
쳐지는 로맨스극.

· 작/차근호 · 연출/김동연
· 출연/김두용, 탁성은, 송재룡

입장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나투라(Nature)

13일(목)-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4:30(월
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임의의 감옥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무작
위로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주어 외부와 통
제된 생활을 하게 하자 폭동과 혼란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낳았던 1975년 미국 스탠포
드대학의 실제 실험을 소재로 한 창작극.

· 연출/김근수

· 출연/배진만, 유재명, 박훈영, 엄준필, 반
필우, 차승호, 진선미, 손남숙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극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8일-21일 화-금요일 오전 9:00,
11:00 시민회관 소극장



세계 2차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서 행해졌던 비인륜적인 생체실험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과 인간성 상실을 그린 작품.

· 작/강태욱 · 연출/오정국

· 출연/백길성, 박영은, 박근태, 박라운, 백상
희, 이재우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시나위(554-5244)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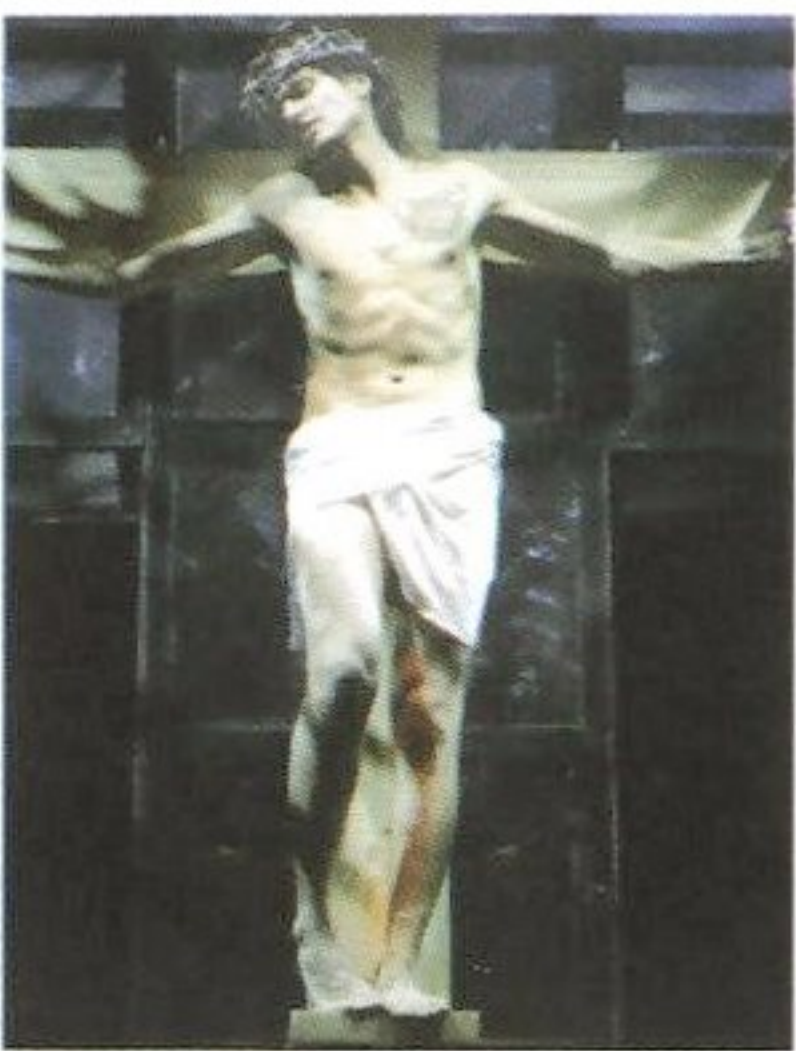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21일 금요일 오후 8:00, 22일 토요일 오후 3:00, 8:00, 23일 일요일 오후 2: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국내 최초로 오리 지널 월드투어팀이 내한, 2000년 브로드웨이에서 과감한 무대표현과 현 시대적 감각으로 각광받았던 최신버전을 선보이는 '지저스 크

라이스트 슈퍼스타'.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강풀의 순정만화

22일(토)-31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단 24일, 31일은 오후 8:00, 23:00, 26일은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두 커플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순정코믹 멜로드라마.

·출연/곽영신, 이수현, 이해정, 이송, 김

준희, 홍정호, 박미선, 김나미 외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작은무대(1544-3164)

뮤지컬 '루나틱'

22일(토)-31일(월) 평일 오후 4:30,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30(24일, 31일 오후 4:00, 7:30, 11:00, 26일 공연없음)

동아대학교 석당홀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 미칠 수 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면



서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는 창작뮤지컬.

·출연/임희숙, 강지연, 정재민, 임춘길, 전수미, 김세진, 백재현, 최오식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뮤지컬 김종욱찾기

28일(금)-31일(월) 평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첫사랑을 못 잊는 여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의 티격태격 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연출/김지연
·출연/김재범, 안

유진, 김지현, 임기홍, 진선규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8일-29일 금-토요일 오후 4:00, 8:00 KBS 부산홀



길거리 춤과 발레가 만나 비보이 열풍을 몰고온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작, 연출/최윤엽

·출연/익스트림크루(비보이), 일루션(힙합), 유은혜(발레)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학생 2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영화

서부의 황혼:라울 월쉬 & 안소니 만

11월 30일(금)-12월 16일(일)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 (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할리우드 고전기의 숨은 두 거장인 라울 월쉬와 안소니 만의 대표작 15편이 상영되는 시네마테크 특별 상영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아동극

가족뮤지컬 오! 마이 시스터

7일 금요일 오전 11:30, 오후 1:30, 3:30,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1:30, 3:30, 5:30
부산민주공원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새롭게 각색, 성(姓)이 다른 자매 콩쥐, 팥쥐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의 가족뮤지컬.

·작, 연출/김성수

·출연/이은희, 김경민, 윤수혁, 조가비 외

입장료 균일 20,000원(단체관람 9,000원)

문의 (주)WMG와이즈맨그룹
(02-2108-7377)

가족뮤지컬 황소와 도깨비

8일(토)-30일(일) 평일 오전 11:00(단체 예약관람), 주말 오후 12:00, 2:00 공간소극장



천재작가 이상이 남긴 단 한편의 동화 '황소와 도깨비'를 각색한 가족뮤지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과 민요풍의 노래가 재미를 더한다.

· 작, 연출/김만중 · 작곡/김만중
· 출연/하태선, 이현옥, 이현주

입장료 균일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사계(611-8518)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12일-13일 수-목요일 오전 10:30, 11:4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1일 금요일 오전 10:30, 11:40,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24일 월요일 오후 7:30, 25일 화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실수투성이 루돌프의 유쾌한 인간세상 모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족뮤지컬.

· 출연/길수경, 노지영, 조지혜, 김학준 외

입장료 S석 25,000원 · A석 15,000원

문의 공연기획 퍼보트(904-0825)

극단 서울도깨비 피노키오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나무인형 피노키오가 펼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그린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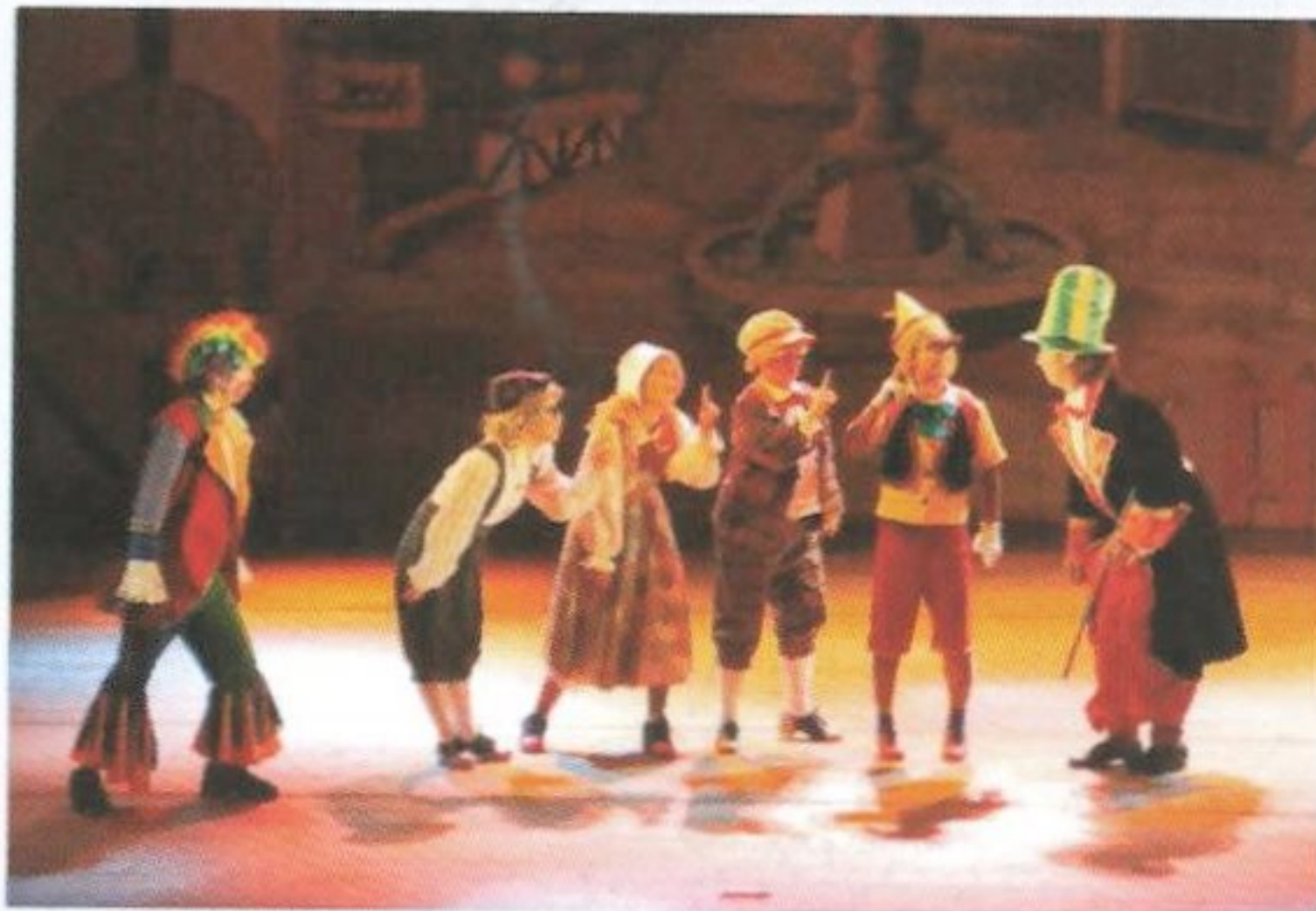
· 각색, 연출/염미정
· 출연/경창호, 윤미, 박은희, 신추미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극단 서울도깨비(02-747-4608)

가족뮤지컬 피터팬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하늘을 나는 피터팬과 작은 요정 틱커벨의 신나는 모험이 흥겨운 재즈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연출/윤여성
· 출연/정영우, 이성하, 백재우, 최세웅, 박은진, 김민정, 박시내, 유영애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창작 어린이극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대모험

20일-22일 목-토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부모님의 해외여행으로 산속 할아버지 집에 오게된 주인공 기호의 신기한 모험담을 그린 창작 어린이극.

· 작/정경환 · 연출/강혜란
· 출연/강혜란, 송민경, 오영섭

입장료 일반 15,000원 · 어린이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자유바다(622-3572)

미술놀이 라이브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그림여행

21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단체관람),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 속에서 만나는 그림 세계를 통해 명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색 가족뮤지컬.

· 작/장은주, 염정현
· 연출/이병창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어브병원·암센터전문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교법인 대만에수교장로회 흥회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화예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6-119
암예방검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 출연/배선아, 김백규, 최대성, 신현빈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뮤지컬 인형극 피노키오의 모험

28일-30일 금-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장대인형, 손인형, 탈인형 등 다양한 종류의 인형과 연기가 한 무대에 서는 뮤지컬 인형극.

· 각색, 연출/김미순

· 출연/경창호, 김수희, 김효경, 김선자, 박경아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콘서트

안치환과 자유 콘서트

1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M기획(442-6500)

웃찾사 부산나들이

2일 일요일 오후 3:00, 6:00

KBS 부산홀

서울나들이, 친절한 형수씨, 사생결단 등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개그코너를 통해 생생한 웃음을 전달하는 웃찾사 부산나들이.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M기획(442-6500)

휘성 콘서트 '휘쇼'

8일 토요일 오후 8:00, 9일 일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의 SJ엔터테인먼트(1599-2005)

심수봉 콘서트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

회원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문의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2007 브라운 아이드 소울 부산공연

18일 화요일 오후 8: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5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SG워너비 크리스마스 콘서트

22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C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10% 할인)

문의 요요기획(622-5744)

9집 발매 기념 이승철 콘서트

29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C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10% 할인)

문의 요요기획(622-5744)

찾아가는 컬투쇼

31일 월요일 오후 7:00, 10:00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나라 최고의 입담 듀오 컬투가 펼치는 개그와 노래, 춤이 함께하는 개그콘서트.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부

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후엔터테인먼트(1588-8477)

2007 빅마마 콘서트

31일 월요일 오후 10: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부

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주)AN시티(1644-4484)

김장훈 콘서트 '원맨쇼'

31일 오후 7:30, 11:50

KBS 부산홀

입장료 ■ 오후 7:30 공연

R석 77,000원 · 스탠딩 R석 66,000

원 ·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 오후 11:50 공연

R석 88,000원 · 스탠딩 R석 77,000

원 ·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행사

제 67회 시울림 시낭송회

12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 낭송/김경수, 김종미, 노준옥, 박

재도, 박춘석, 신선, 정익진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017-573-6080)

전시

부산박물관 2007 특별전시회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10월 5일(금)-12월 16일(일)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4)

도예작가 신상호 회고전

2007년 10월 16일(화)-2008년 3월

30일(일)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문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055-340-7000)

갤러리 윤 개관 초대전

11월 9일(금)-12월 8일(토)

· 초대작가/김양묵, 김종근, 백광익, 송영명, 엄윤숙, 유진재, 이두식, 이두옥, 이청남, 임영재, 허종하

문의 갤러리 윤(744-6544)

세계 해양인물전

11월 13일(화)-12월 31일(월)

수산과학관



인류 최초로 세계일주에 성공한 마젤란과 사상 처음으로 남극권 탐사에 성공한 제임스 쿡, 해상왕 장보고 등 국내외 해양관련 인물 10명의 주요 업적이 전시된다.

문의 수산과학관(720-3061~5)

초등한국화지도연구회 '휴(休)' 정기전

11월 27일(화)-12월 2일(일)

영광도서갤러리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한국화 동인그룹인 초등한국화지도연구회 정기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김선구 조각 초대전

11월 22일(목)-12월 16일(일)

Honda Cars D3 부산광안점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이충길, 이종화, 이광복 3인전

12월 3일(월)-12월 12일(수)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아테네·서울 소통전

12월 3일(월)-12월 12일(수)

타워갤러리

부산과 아테네, 서울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충길, 이광복, 이종화 3인전.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경옥수 개인전

12월 4일(화)-12월 9일(일)

영광도서갤러리



현해온 조각가 경옥수 작품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현대문명의 상징인 철과 전통적 조각소재인 석고를 사용해 십자가를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대립과 조화를 통한 우주만물의 공존원리를 표

김령희, 우정임 2인전

12월 11일(화)-12월 16일(일)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이희호展

12월 13일(목)-12월 19일(수)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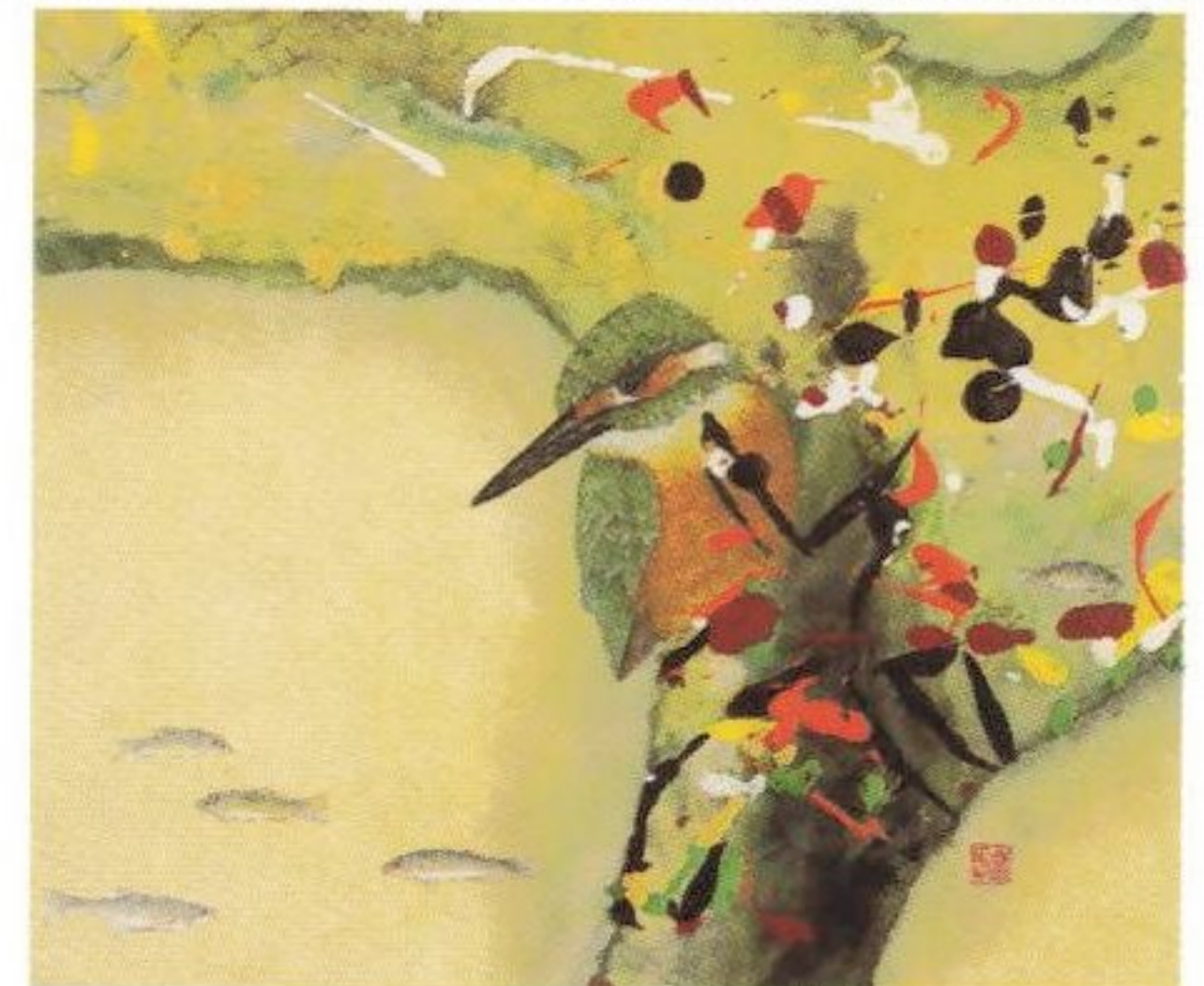
박찬숙 첫 개인전-함안풍경전

12월 18일(화)-12월 23일(일)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김인옥展

12월 20일(목)-12월 29일(수)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박종현 사진전-사진에 대한 예의

12월 25일(화)-12월 30일(일)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한성훈 초대전

12월 25일(화)-12월 30일(일)

해운대 문화회관 전시실

문의 한성훈(010-5761-0222)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 정기회원소식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2/6(목) 11:00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균일 15,000원	30% (1인 4매까지)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2/23(일) 17:00	피아니스트 김정원 투어 리사이틀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22,000원	10%	더스톰프 (02-2658-3546)
	12/25(화) 17:00 12/26(화) 19:30	키에프 쉘브첸코 주역들과 함께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30% (B석 제외)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시민회관 대극장	12/8(토)-12/9(일) 14:00, 18:00	2007 점프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5,000원 할인	KNN (1577-7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2/28(금)-12/31(월) 평일 17:00,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15:00, 18:00	뮤지컬 '김종욱찾기'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KBS부산홀	12/1(토) 19:30	안치환과 자유 콘서트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SM기획 (442-6500)
	12/2(일) 15:00, 18:00	웃찾사 부산나들이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12/28(금)-12/29(토) 16:00, 2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12/31(월) 19:30, 23:50	김장훈 콘서트 '원맨쇼'	R석 88,000원/R석 77,000원 S석 77,000원/S석 66,000원 A석 66,000원/A석 55,000원 (공연시간별 차등)	10%	
경성대학교 석당홀	12/22(토)-12/31(월) 평일 20:00, 토 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 *12/24(월), 12/31(월) 20:00, 23:00(12/26 공연없음)	강풀의 순정만화	균일 30,000원	10%	작은무대 (1544-3164)
동아대학교 석당홀	12/22(토)-12/31(월) 평일 16:30, 20:00, 토요일 16:00, 19:30, 일 · 공휴 일 15:00, 18:30(12/24, 12/31 16:00, 19:30, 23:00, 12/26 공연없음)	뮤지컬 '루나틱'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가마골소극장	12/8(토)-12/31(월) 평일 19:30, 토요 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12/24, 12/31 19:30, 22:00)	70일간의 연애	균일 2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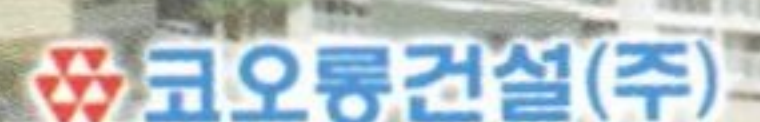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 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평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멋진 광안대교 야경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문의/ 051)703-1003



Recommended Performances in December

G. Verdi Opera 'Rigoletto' Joint Performance of SOL'OPERA & Seoul Metropolitan Opera

2nd(SUN) - 4th(TUE) Dec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o make this winter special, Sol'Opera & Seoul Metropolitan Opera perform the opera Rigoletto for you!

Giuseppe Verdi's Rigoletto is based on the play Le Roi S'amuse by French author Victor Hugo. Rigoletto is the most popular opera among Verdi's three World renown operas including La Traviata, Il Trovatore. The opera is a tragic story of a father and daughter.

- General Artistic Director/Park Se-Won
- Conductor/Kim Deok-Ki
- Opera Director/Carlo Antonio De Lucia
- Orchestra/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icket: VIP-150,000Won, R-100,000Won, S-80,000Won, A-50,000Won, B-30,000Won

For more information: 740-5750, 016-861-6105

Well-Being Concer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 Fine Morning with Nanse Gum at 11:00 A.M'

6th(THU) December 11:00 a.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s special event to escape busy evening hours. Please come and join us for the cozy morning hour performance. The Well-Being Concert by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 Fine Morning with Nanse Gum at 11:00 A.M'

Program

- L.v.Beethoven / Overture to Egmont in f minor op.84
- A.Vivaldi / L'inverno from Violin Concerto Four Seasons op.8
- L.v.Beethoven / Symphony No.5 in c minor Schicksal op.67

Ticket: All seats for 15,000Won

For more details: 607-6101~4

Fever Concert 打路, TA RO IV

15th(SAT) December 7: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打路, TA RO, the sold-out hit performance by SAEUL and GONGU, the fifth play takes place in Busan.

This time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Taekwon MartialArt fine moves and percussionists' harmonious beatings and knocks.

Ticket: R-30,000Won, S-20,000Won, A-10,000Won

For more information: 583-7958, 016-557-6058, 011-596-6718

Les Petits Chanteurs a La Croix de Bois Special Concert in Korea

16th(SUN) December 3:00 & 7: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Known as 'The Small Singers of the Wooden Cross,' the French boys' choir will perform solo at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world's premier choirs, you can enjoy heavenly harmony of the France's pride.

- Conductor/Vronique Thomassin

Ticket: R-66,000Won, S-55,000Won, A-44,000Won

For more details:622-422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s Special Concert 2007 Farewell Concert 'Carmina Burana' with Busan MBC

21st(FRI) Dec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t the end of the year, please do not miss a precious chance to look back your life in surrounding solemn music. 2007 Farewel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G.Verdi/Overture to La Forza del Destino'

C.Orff/Cantata, Carmina Burana'

- Conductor/Alexander Anissimov
- Soprano/Kim Seong-Eun
- Tenor/Kwak Seong-Seob
- Baritone/Kim Dong-Seob
- Chorus/Busan City Chorus, Jeonju City Chorus, Busan Boys & Girls Chorus

Ticket: R-10,000Won, S-7,000Won, A-5,000Won

For more details: 607-6101~4

The World's Best Ballet Companies are Coming to Busan - Kiev National Shevchenko Theater of Ballet & Opera Soloist and Kiev Boys & Girls Ballet Company Tchaikovsky - The Nutcracker

25th(TUE) December 5:00 p.m & 26th(WED) Dec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Russia's best ballet company, Kiev National Shevchenko Theater of Ballet & Opera Soloist and Kiev Boys & Girls Ballet Company are in Busan to give you the breathtaking moment with Tchaikovsky's 'The Nutcracker'.

Ticket: R-50,000Won, S-30,000Won, A-20,000Won, B-10,000Won

For more details: 607-6070

Sumi Jo & Winners 2007

30th(SUN) December 6: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Contemporary Art's Best Coloratura, Sumi Jo and various other successful Korean vocalists are standing together at Busan Cultural Center under the name of Sumi Jo & Winners 2007?

Ticket: R-150,000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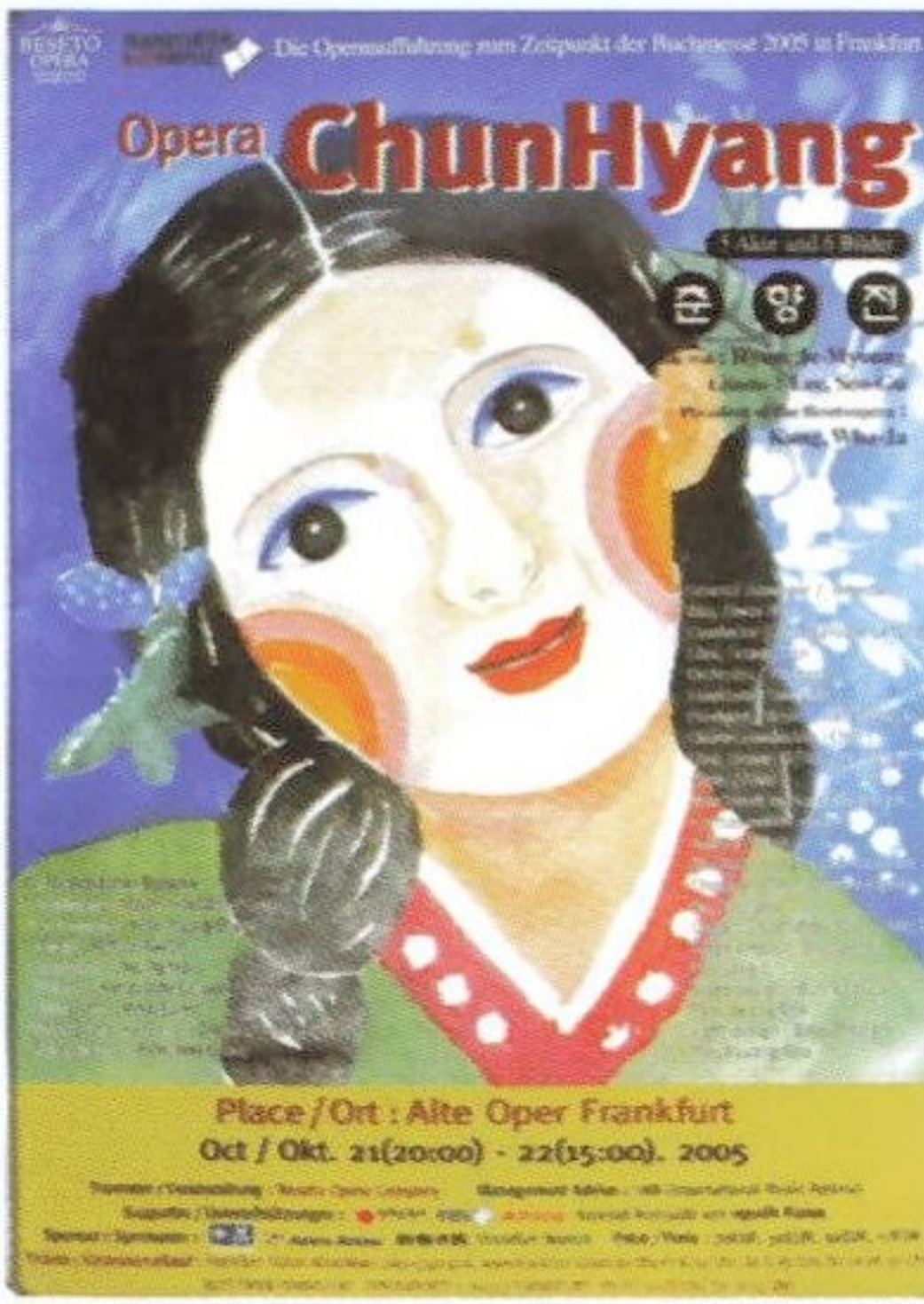
S-120,000Won, A-80,000Won,

B-50,000Won, C-30,000Won

For more details:582-2026

오페라(4)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2005년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공연된 오페라 춘향전 포스터

러시아에서도 현대 오페라는 태어났다. 프로코피에프의 <3개의 오렌지의 사랑>, 쇼스타코비치의 <무첸스크의 멕베스 부인>, 스트라빈스키의 <난봉꾼>이 러시아를 대표한다. 영국과 미국은 오페라 분야에서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그나마 다행히도 브리튼(Britten, 1913-1976)이 <피터 그라임스>를, 거쉬인(Gershwin, 1898-1937)이 <포기와 베스>를 발표하여 체면을 세웠다.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오페라 작곡가는 이탈리아의 메네토티이다.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공부한 뒤 미국에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메네토티(G. C. Menotti, 1911-)는 1막짜리 오페라 부파 <아멜리아 무도회에 가다>로 성공적인 오페라 작가생활을 시작한 이래 <도둑과 노처녀>(1939), <전화>(1947), <영사>(1950), <아말과 크리스마스 밤>(1951) 등의 문제

작을 잇달아 발표했고 1988년엔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올림픽 위촉작품을 쓰기도 했다. 메네토티의 선율은 친숙하다. 현대적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수적이다. 때문에 그의 오페라는 자주 상연된다.

오늘의 세계 오페라 상황은 옛것과 새것의 혼재로 설명될 수 있다. 메네토티 이외의 유능한 작곡가를 오페라계는 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따라서 세계 도처의 오페라 무대는 끝없는 기존 작품들의 리바이벌이며, 단지 새로운 연출에 기대를 거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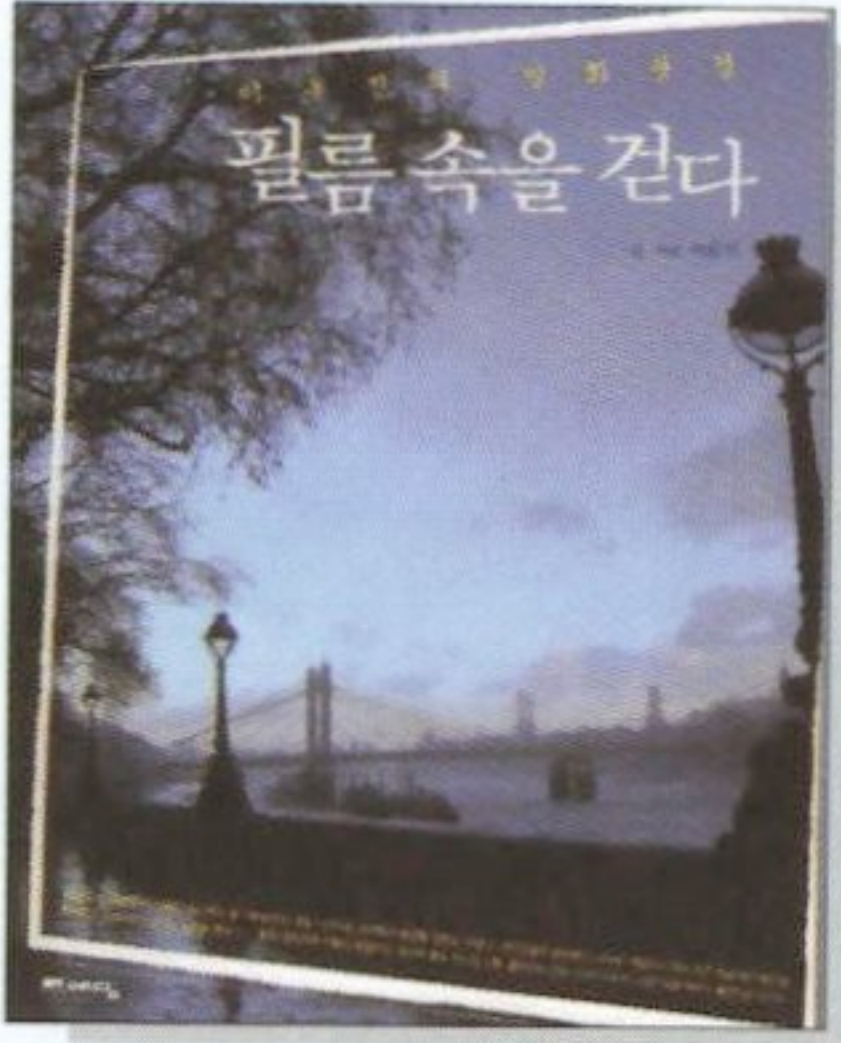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첫 창작 오페라 무대는 1950년,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태동된 지 353년 만이었다. 서울 광화문로에 있는 당시의 국립극장에서 현제명이 작곡한 <춘향전>이 상연 되었다. 지휘는 작곡자인 현제명 자신이 맡았고 연출은 유치진, 출연 성악가로는 도령에 이상춘, 이인범, 춘향에 이관옥, 김혜란이었고, 이정희, 김학상, 김형노, 김학근, 오현명 등이 출연했다. 현제명의 두 번째 창작 오페라 <왕자호동>이 1954년 11월에 발표되었고, 1960년에 세 번째 오페라로 김대현의 <콩쥐팥쥐>, 1962년엔 장일남의 <왕자호동>이 무대에 올랐다. 장일남은 자신의 세 번째 오페라이자 그의 대표작이기도한 <원효대사>를 1970년에 발표했다.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였던 홍연택의 오페라 <논개>는 현대적 감각과 한국적 정서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창작 오페라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고, 독일에서 활동한 작곡가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은 1972년 독일의 뮌헨 올림픽축전 위촉 작품으로 초연된 바 있었다.

1980년대엔 박재열의 단막 오페라 <초분>, <심청가>, 공석준의 <결혼>, 오숙자의 <원술랑> 등 모두 13편의 오페라가 발표되었다. 홍연택의 <시집가는 날>, 이영조의 <처용>도 1980년대의 산물이다. 1990년대는 14편의 오페라가 발표됐다. 김동진의 <춘향전>, 이종구의 <구드래>, 강석희의 <초월>, 이영조의 <황진이> 등이다.

흥미로운 것은 <춘향전>이라는 제목의 오페라가 현제명, 장일남, 김동진, 박준상, 홍연택 등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은 현제명의 <춘향전>이었다. '이탈리아 오페라 스타일을 베낀 작품에 불과하다'는 악평을 들으면서도 이 작품은 우리 창작 오페라의 간판으로 자리를 잡았던 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발표된 50여편에 이르는 우리 창작 오페라는 대부분 초연되자마자 사장되고 말았다.

필름 속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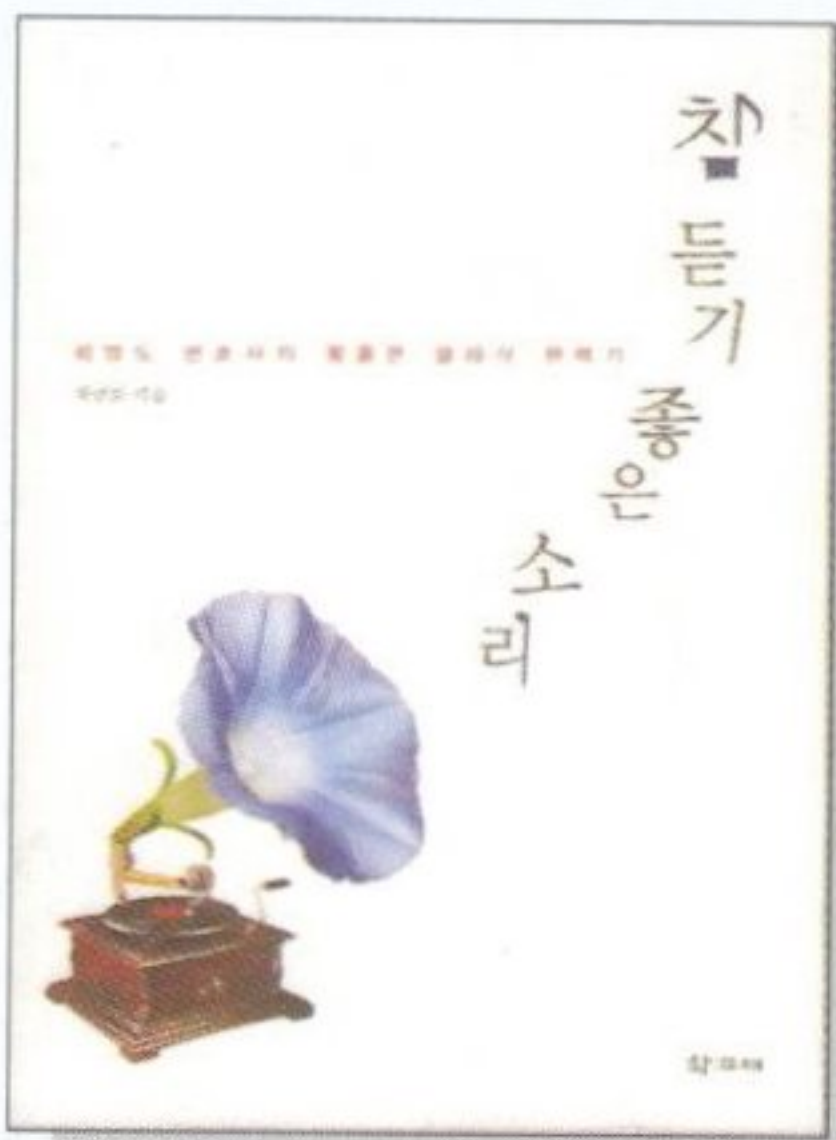
이동진 지음 / 예담 / 301p / 12,000원



조선일보 영화담당 기자 시절, 이동진 기자는 섬세한 시선과 감수성이 뛰어난 글쓰기로, 기자로서는 드물게 고정 독자 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현재 1인 미디어 '이동진닷컴'을 설립하고 깊이 있는 영화 리뷰와 인터뷰 기사를 발표하는 한편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가 또 한편의 책을 펴냈다. 이번 책은 영화 속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직접 여행을 떠나는 영화기행 에세이집. <이터널 선샤인>의 배경이 된 미국 몬타나의 바닷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배경이 된 일본 치바현 규주쿠리 해변가, <러브 액츄얼리>에서처럼 크리스마스에 찾은 런던, 홀로코스트의 암울한 기억을 담은 <선들러 리스트>의 폴란드의 겨울, '그저 슬픔을 타고난' 장국영의 흔적을 찾아 떠난 홍콩과 노음악가가 외롭게 죽어간 궤적을 따라간 <베니스에서 죽다>의 베니스 풍경, 영화를 다시 떠올려주는 근사한 여행 여정을 따라가보자. 영화와 여행이 만나 펼쳐진 이 세계에서 '그 장소'는 어쩌면 영화보다 더욱 인상적으로 남을지도 모르겠다. 영화에 대한 애정과 여행자로서의 느리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발걸음과 시선이 그 매력을 더해주는 책.

참 듣기 좋은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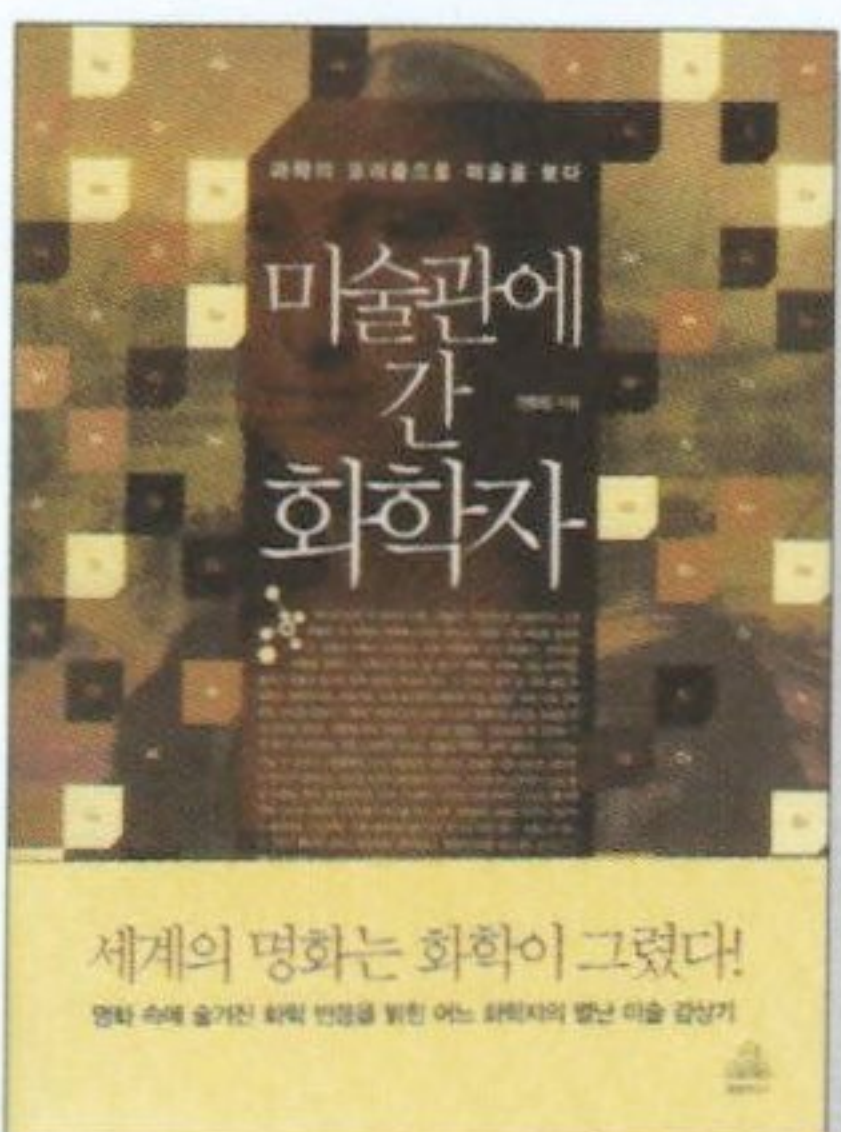
최영도 지음 / 학교재 / 301p / 12,000원



미술품 감상과 수집, 클래식 음악감상, 세계문화유산 답사여행에 조예가 깊은 최영도 변호사의 클래식 편력기를 들어보자.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하여 음악을 듣기 어렵던 시절부터 음악감상실에 출입한 저자는 클래식음악의 진정한 애호가이다. 이 책은 그의 클래식 음악 감상 입문기와 50년간의 편력, 명곡과 명반의 수집기, 심금을 울리고 감동시켰던 명곡과 명반에 대한 감상과 평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손쉽게 접할 기회가 많아지긴 했지만, 초심자에게는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이 클래식 음악이다. 게다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지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외면 받는 음악이기도 하다. 제대로 듣고 싶어도 누가 연주한 어떤 음악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정표를 모른 채 길에서 방황하다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클래식 입문자들에게는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 "만약 클래식 음악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클래식 음악의 명곡과 명반을 좇으며 살아온 내 인생은 풍요하고 행복했다"는 저자의 클래식 사랑에 함께 빠져보자.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림 지음 / 랜덤하우스 / 304p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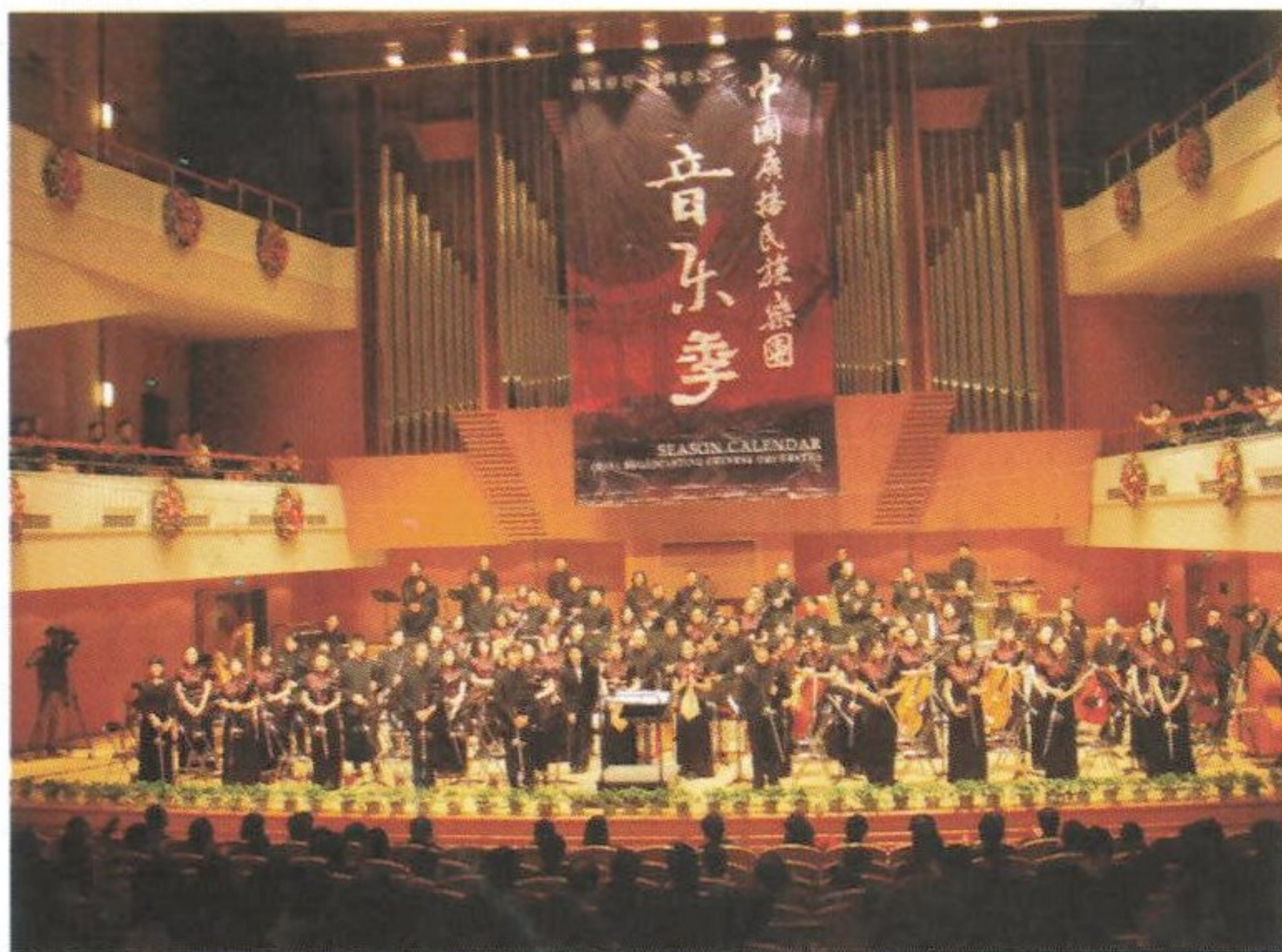


화가의 꿈이었던 화학자가 과학의 프리즘으로 미술을 본다. 프랑스 유학 당시 화학실험실과 오르세 미술관을 수없이 오가며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화학자로 풀어낸 저자의 연구 분야는, 미술에 있어서의 화학의 문제, 즉 물감과 안료의 변화, 색의 특성 등이다. 15세기의 화가 얀 반 에이크는 물감에 아마인유(linseed oil)라고 하는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을 섞어 사용해 물감에 윤기가 나도록 광택 성분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 이후 그림에서 섬세한 사실 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얀 반 에이크가 미술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화가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렘브란트의 <야경>은 원래 밤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대낮을 그린 것인데, 그가 그림에 사용한 연화물 계통의 안료와 선흥색을 띠는 버밀리온(vermilion)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 그림을 칙칙하게 변화시키는 흑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화학을 통해 세계 명화의 그 모든 비밀과 속내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미술의 태생적 연원이 화학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화학으로 인해 미술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고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중국을 열광시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10월 29일 중국 북경음악청에서 공연 -



첫날 열린 광파민족악단의 연주회 모습



둘째날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회 모습

중국에 울려 퍼지는 우리 가락은 중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으로 전해질까.

중국 광파민족악단 초청으로 중국 북경을 방문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10월 29일 북경음악청에서 가진 초청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곡을 시작으로 이호협주곡 '향', 창작관현악 '가을의 기억' 등 다양한 창작국악관현악곡들로 이어진 이날 연주회는 우리 음악을 들을 기회가 적은 중국인들에게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뜻 깊은 연주회로 평가받았다. 이날 연주가 열린 북경음악청은 광파민족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전용홀로 1,100석을 갖춘 극장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이번 무대는 10월 중국광파민족악단의 연주 무대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펼쳐졌다. 28일은 촉망받는 지휘자 팡가붕이 지휘하는 광파민족악단이 연주하고 29일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가 이어졌다. 1부는 팡가붕의 지휘로, 2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 지휘자의 지휘로 열렸다.

처음 듣는 한국의 전통음악에 마음을 열게 된 중국 음악애호가들은 마지막 곡인 사물놀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신모듬'에서는 신기에 가까운 상모놀이에 열광하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연주회에는 중국 외무성 차관, 광파예술단 단장 왕수웨이(왕수웨이)가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격려했다.

2000년 5월부터 중국광파민족악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연주를 계기로 앞으로 더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중국광파민족악단은 2008년 9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한 부산문화회관 제 1기 문화대학 수료

10월 4일 개강한 부산문화대학이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기 수료식을 가졌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적인 감성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된 부산문화대학은 저렴한 비용으로 부산시립합창단 김강규 지휘자를 비롯 시립무용단 홍기태 안무자, 시립극단 손기룡 연출자, 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 등 최고의 강사진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개강부터 인기를 모았다.

제 1기 부산문화대학은 100명의 수강생이 지원,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78명(5주 이상 수강생에게 수료증 증정)이 수료식을 가졌다. “문화와 함께보낸 8주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수강생들은 문화대학을 통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8주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들은 문화대학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1기생들을 위한 문화대학 카페 ‘컬쳐마당’(cafe.daum.net/bmd07)을 개설하고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 음악감상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부산문화회관 서포터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 제작단 단장인 문화대학 수강생 김종옥 회원의 해설로 문화대학 수강생들이 음악 감상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음악감상회는 KBS-FM 실황음악회로 녹음되어 11월 24일 오후 8시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문화대학 2기는 4월에 개강을 앞두고 2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제 1기 문화대학 마지막 수업을 진행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



수료식과 함께 열린 레이스필앙상블 연주회



문화대학 수강생 김종옥 회원의 해설로 열린 음악 감상회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문제

- 2008년 발행될 5만원권 지폐 인물로 선정된 인물.
-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 2007년은 돼지띠의 해, 2008년은?
- 문방사우.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검은 물감.
- 집주인의 벼슬 이름이나 처가나 본인의 고향 이름 따위를 붙여서 그 집을 부르는 말. 가호.
-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 조선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
- 영도와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중구 용두산에 조성된 공원.
- 스페인 북부 산탄데르 주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 동굴 내부에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벽화가 있다.

- 영화 밀레니엄 맘보, 쓰리타임즈, 서울공락, 상성, 그리고 한국영화 조폭마누라3에도 출연한 바 있는 대만 출신의 여배우.
- 14세기~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여신. 제우스의 아내로 결혼과 출산을 관장하는 가정생활의 수호신이다.
-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 옥황상제가 타고다닌다는 말. 1973년 발굴된 경주의 고분에서 자작 나무 껍질에 그려졌던 그림.
- 영화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미국 배우. '티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등에서 주연하여 현대의 요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세로문제

-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과 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현상. 증후군.
- 2002년 '취화선'으로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 올해 100번째 영화 '천년학'을 개봉하기도 했다.
-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이 등장하는 나관중의 소설.
- 백두산 산정에 있는 자연호수
-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 호프만의 동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작품으로도 유명.
-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 북한 말.
-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자인 〇〇〇형제의 유산으로, 그들의 이름을 따 제정된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
- 1867년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쓸모없던 땅이었지만 이후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이 발견되면서 미국에 부를 안겨준 지역.
- 뒤마의 소설 '춘희'를 소재로 순진한 청년 제레몽과 미모의 창녀 비올레타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 피터팬이 사는 환상의 나라.
- 시인, 문화평론가. <우리오빠와 화로> <우산받은 요코하마> 등을 발표.

지키표

클	레	이	아	크	김	해	미	술	관
림				낙			수		객
트	롬	본		새	터	민			엠
		존	함		키		크		마
어			흥	부			로		더
불	의	전	차			돈	키	호	테
성			사	드					레
설	악	산		라	마	단			피
		유		쿨		말			아
무	궁	화		라	흐	마	니	노	프

- 큰집 식사권**
이지용(북구 화명동)
김한나(김해시 어방동)
이옥출(사하구 신평2동)
송화선(수영구 광안4동)
이수정(금정구 서2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정재연(중구 영주1동)
권미란(해운대구 좌2동)
강재익(동구 범일동)
이은희(남구 대연4동)
김규연(동래구 명륜2동)
- 돈방불패**
양운정(부산진구 연지동)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김사라(연제구 거제3동)
노은영(양산시 북정동)
최옥자(북구 화명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안정연(금정구 구서동)
성영순(동래구 사직2동)
박재영(사하구 다대2동)
성영화(동래구 칠산동)
김은향(울산시 태화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산마루 고택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5회 정기연주회

해설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메시앙의 곡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치 히치콕 영화의 음악처럼 음산하고 복잡한느낌...
 종교적 색채의 음악이라고는 믿기지않을 정도.
 그러나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에스터 박의 힘있고 섬세한 연주로 새롭게 발견한 아름다운 곡이었다.

-이영일(남구 대연3동)

피아니스트 임동민 리사이틀

피아노 선율의 형상이 피아니스트 임동민을 통해 보여지듯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의 마음을 느낄수 있는 매혹적이고도 섬세한 공연이었다.

-강진화(해운대구 좌동)

이건음악회 '하모닉브라스 초청연주회'

연주형태가 아주 코믹했으며 독특했던 유럽의 정상 '하모닉 브라스'.
 한 기업이 연중행사로 이런 무대를 마련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세계 우수 연주자들을 초청해 갖는 이번 연주회는
 기업의 이윤을 문화사업에 환원하는
 기업가 정신이 연주회 열기만큼 돋보였습니다.

-김중옥(금정구 구서2동)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한 11월의 어느 멋진 날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든 11월의 고속도로는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큰 설렘을 알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이정란, 김진영 씨가 함께 떠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과 무척산 관광농원. 11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흙을 의미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을 의미하는 아크(-Arch)를 조합한 단어로 과학과 예술, 교육, 산업의 협력을 통한 건축도자(Architectural Ceramic) 분야의 발전을 위해 건립된 세계 유일의 도자 미술관이다.

부산과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회원들은 독특한 미술관 외형과 기획 전시 작품에 감탄했다. 아프리카 여행의 감흥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 신상호 작가의 작품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원초적인 땅 아프리카를 발견한 후 빚어낸 도자작품들이다. 양의 뿔, 소, 말의 얼굴들이 그 경계를 알 수 없이 융화되어 빚어진 새로운 생명체의 형태들은 때로 인간이 짓는 듯한 해학적인 표정을 담고 있어 신비롭게 느껴졌다.

경이로운 작품 감상에 이어 이번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이정란, 김진영 씨가 들려준 작은 음악회.

가을의 서정과 어울리는 우리 가곡 '아 가을인가' '강 건너 봄이 오듯' '고향의 노래' '사비수'와 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 '향수' 등으로 꾸며진 이번 무대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작은 무대이지만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큰 감동으로 정기회원들의 가슴을 울렸다.

작은 음악회 이후 이어진 무척산 관광농원 단감따기, 떡매치기 체험. 잊고 지낸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체험을 하는 동안 어느새 우리들만의 특별한 가을이 저물어 갔다.

(12월 테마여행은 경주로 떠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8년 1월 11일(금) 밀양 미리벌 민속박물관

깊어가는 겨울 밀양으로 우리 것을 찾아 떠나는 체험여행.
미리벌 민속박물관과 방동 꽃새미 전통 테마마을에서 훈훈한
인정으로 몸과 마음을 녹인다.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미리벌 민속박물관 도착
- ▷ 12:00 중식
- ▷ 13:00 꽃새미 전통 테마마을 체험(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중 당일 가능한 체험진행)
- ▷ 16:00 꽃새미 전통 테마마을 출발
-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2008년 2월 15일(금) 청도로 떠나는 겨울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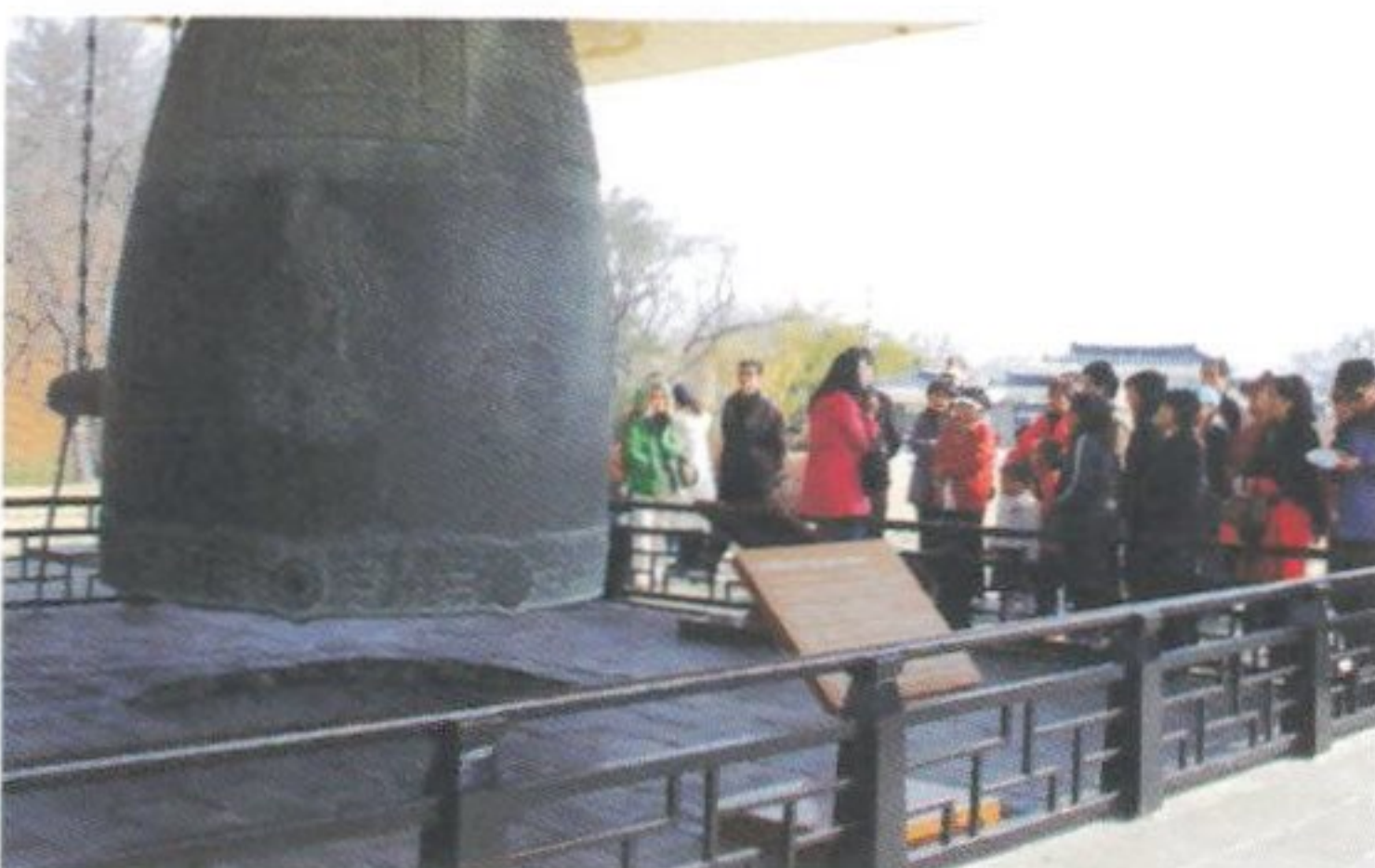
청도로 떠나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체험하는 딸기따기와 청도
의 명물 감와인 터널 속에서 감와인과 함께하는 색다른 시간.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청도 딸기따기 체험
- ▷ 12:00 중식
- ▷ 13:30 청도 와인터널 감와인 시음 및 작은음악회
- ▷ 16:00 청도 와인터널 출발
- ▷ 17: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2월 당첨자

▶ 12월 14일(금) 경주다시보기!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신규가입 당첨자(10명)

- 강현정(연제구 연산1동)
- 김성금(김해시 장유면)
- 김은화(남구 대연1동)
- 나정윤(수영구 남천동)
- 배지원(연제구 연산9동)
-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 유성애(사하구 감천동)
- 조현숙(사하구 괴정4동)
- 최옥현(사상구 삼락동)
- 최인숙(동래구 사직2동)

■ 기존가입 엽서 당첨자(10명)

- 금재경(중구 부평동4가)
- 김미영(연제구 연산9동)
- 김미옥(사하구 하단1동)
- 김최보리(남구 용호3동)
- 김해린(부산진구 부전동)
- 전명석(동래구 명륜1동)
- 유이화(사하구 괴정1동)
- 정연옥(김해시 어방동)
- 허수미(해운대구 좌동)
-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수전노

수전노 *L'Avare*

원작 몰리에르
연출 손기룡

2007. 12. 8(토)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문 의 : 부산시립극단 051) 607-6136~7 www.busantheater.org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051) 607-6070 www.bsulture.busan.kr

■ 입장료 :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부산문화회관

12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2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및 출연진

- 해령(집박/유경조 · 소금/한영길 · 대금/이만형, 강은주, 황두호 · 피리/최성교, 권미정, 진형준 · 해금/성기만 외)
- 해금독주 '지영희류 산조'(해금/이은주 · 장구/신문범)
-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18현/옥경화, 오은영 · 25현/이명일, 김혜련 · 장구/이장우)
-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박순자 · 해금/방병원 · 아쟁/홍영혜 · 장구/신문범 · 좌고/최오성)
-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용우 · 해금/방병원 · 아쟁/권혜정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강상호 외)
- 해설/백규진

● 12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및 출연진

- 살풀이춤(춤/서현미)
- 동래한량무(춤/이성원, 김윤희, 허태성)
- 이쁜이 시집가는 날(이쁜이/이정인 · 갑분이/정진희 · 미언/김기원 · 맹노인/김병주 · 맹진사/이정식 · 부인/오숙례 · 삼돌이/이창규 · 함진아비/강모세)
- 태평무(춤/서정숙)
- 성주허튼춤(춤/김동숙, 이현숙, 강미향)
- 화중신선(춤/김주령, 정수민, 오수연, 김미란, 안주희)
- 안무/ 홍기태

●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 '겨울 이야기' -

▣프로그램 및 출연진

- 겨울이 있는 외국가곡(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Die Winterreise' 중)
밤인사(Gute Nacht), 봄꿈(Fruelingstraum), 우편마차(Die Post),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
- 겨울이 있는 동요모음(편곡 최석태)
겨울나무, 겨울밤, 고드름, 눈, 눈꽃송이, 손이 시려워, 파란마음 하얀마음
- 겨울이 있는 한국가곡 고향의 노래(이수인), 산(김소월 시, 하대웅 곡, 눈(김효근)
-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나무(O Christmas Tree), 아름답게 장식하세요(Deck The Halls)
- 크리스마스 풍경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Joy to the World
- 지휘/김강규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소프라노/이정란, 남순천, 양은제 · 테너/류무룡, 김창돈, 조성기, 김웅태
- 베이스/서관수, 이정철, 구명금 · 알토/박진희, 박성혜, 배소영

●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코아 클라리넷(Core Clarinet) 연주회

2005년 3월 부산, 경남지역의 전문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결성된 코아 클라리넷은 창단연주회(2006년 11월 8일) 이후 금정문화회관 수요일음악회, MBC 목요일음악회 등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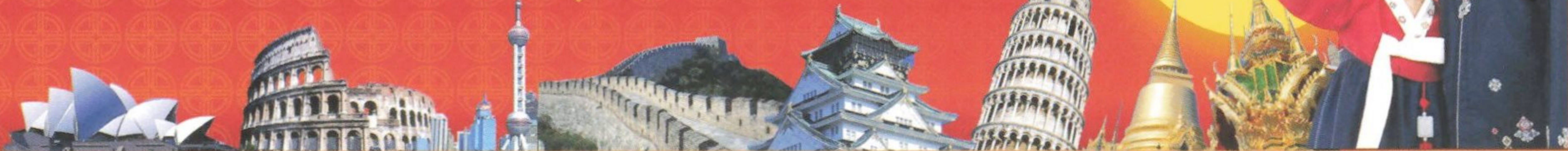
- 헨리 맨시니(한상헌 편곡)/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리버'
- 헨델(케니 편곡)/오라토리오 '솔로몬' 작품 67 중 '시바 여왕의 도착'
- 몬티/차르다시
- 캐럴모음곡/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등 수곡
- 연주/홍병희, 유지훈, 조예준, 이상하, 이원기, 박혜산, 이성훈, 이성관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미리준비하는 2008 설연휴 여행

연휴기간 : 2월 6 7 8 9 10
수 목 금 토 일



따뜻한 해외여행

하이난 직항
하이난 뷰티플 스프링 리조트 4일

4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특급리조트 3박, 전일정 식사, 대동해 자유시간, 원숭이섬, 리족민속촌, 대소동천, 녹회두 야경, 여행자 보험

푸켓직항
푸켓/피피섬 5일

68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일정간 식사, 팡아만 해안, 제임스 본드섬,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피피섬 관광, 여행자보험

사이판 직항 2명이상 출발
사이판 피에스타 리조트 5일

78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특급리조트 4박, 전일정 식사 (특별식2회), 시내관광, 마나가하섬투어, 리조트 부대시설 자유여행, 여행자 보험

크리스마스 & 연말여행

X-Mas와 연말에 떠나는
남이섬/양떼목장 무박 2일

58,000원~

포함내용

왕복교통(전용차량), 남이섬 자유시간, 평창 허브나라 자유시간, 대관령 양떼목장, 봉평 이효석 마을 자유시간, 여행자보험

설봉호 타고 떠나는
겨울 눈꽃 한라산 등반 3일

85,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설봉호 선내 숙박료(2박)), 제주항 한라산 이동차량, 한라산 등반, 최고급 선상식

12/23, 24
제주 롯데호텔 2박3일

43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롯데호텔 2박 (조중식 제공/아이스링크 이용), 소인국, 해피타운, 여미지 식물원, 일출랜드 관광

겨울 온천여행

X-Mas와 연말에 떠나는
오사카/나라/교토 아리마 온천 5일

38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아리마 온천욕, 교토관광, 나라국립공원, 오사카성, 오사카번화가, 동원본사, 여행자보험

X-Mas와 연말에 떠나는
북큐슈 관광 온천 4일

38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온천욕, 전일식사, 남장원, 태재부 천만궁, 쿠마모토 성, 아소활화산, 가마도 지옥, 유노하나 재배지, 여행자보험

유후인 료칸 1박 + 후쿠오카 1박
자유여행 2박3일

330,000원~

포함내용

쾌속선 왕복, 유후인 온천료칸 1박, 조식, 석식 포함, 비즈니스호텔 1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프리스타일

동경 자유여행 3일 419,000원~
오사카 자유여행 3일 299,000원~

동경: 하라주쿠/시부야/신주쿠 - 디즈니랜드 - 오다이바 - 하코네 - 닛코
오사카: 오사카성 - 신사이바시 - 유니버설 스튜디오 - 청수사 - 사슴공원
포함사항: 왕복항공, 비즈니스급호텔 2박, 샌딩

홍콩 자유여행 2박4일
369,000원~

추천일정

센트럴과피크 - 할리우드로드와 성완 - 코즈웨이베이 - 홍콩섬 남부 - 구룡반도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파크모텔 2박, 조식2회, 홍콩여행자료, 샌딩 서비스

홍콩/발리 자유여행 5박6일
745,000원~

추천일정

발리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및 휴양 - 홍콩 구룡공원 - 스타거리 - 홍콩섬 - 빅토리아피크
포함사항: 왕복 항공료, 발리특급 리조트 3박 및 조식3회, 여행자 보험, 샌딩서비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님들께는 계약완료 시 문화상품권을 특별 증정해 드립니다. (국내여행 제외)

투어편 홈페이지 : www.tourfun.co.kr

daum 투어편 검색

NAVER 투어편

REiM

첫여행의 시작 (주)레임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4-2 독일빌딩 2층 (주)레임
서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1 두산위브센티움 930호 (주)레임
대구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동 2가 (주)레임
마산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1동 157-1 선메디컬센터 1층 (주)레임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619-5 소바안경점 3층 (주)레임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2579

(투어친구)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08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 ① 모집부문 : 2008년 부산시향 정기·특별공연에 출연할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출신의 음악인(나이제한 없음)
- ① 심사방법 : 1차-서류 및 자격심사, 2차-자료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 지휘자 및 협연자 : 서류 및 자료심사
 - 작곡가 : 창작곡 심사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 일 것
8분~12분 내외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스코어 및 파트보) 제출
선정된 작품 공연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 ① 제출서류
 - 공통-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 부착)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콩쿠르 입상자는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휘 및 협연-연주실황 CD 또는 DVD(비디오) 1매 프로그램 첨부 要
 - 작곡-창작곡(지휘자용 스코어) 1부 데모 CD 첨부 要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① 제출기간 : 지휘자 및 협연자-2007. 12. 19(수)~12. 26(수) 17:00 까지 도착분
작곡가(창작곡)-2008. 2. 18(월)~2. 22(금) 17:00 까지 도착분
- ① 제출장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 ① 대상자 발표 : 심사 후 개별통지
- ①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607-6101~3

70분간의 연애

10% 할인



- ▶ 날짜 : 2007. 12. 8(토)~12. 31(일)
- ▶ 시간 : 평일 오후 7:30/토요일 4:3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6:00(24일,
31일 오후 7:30, 10:00, 월요일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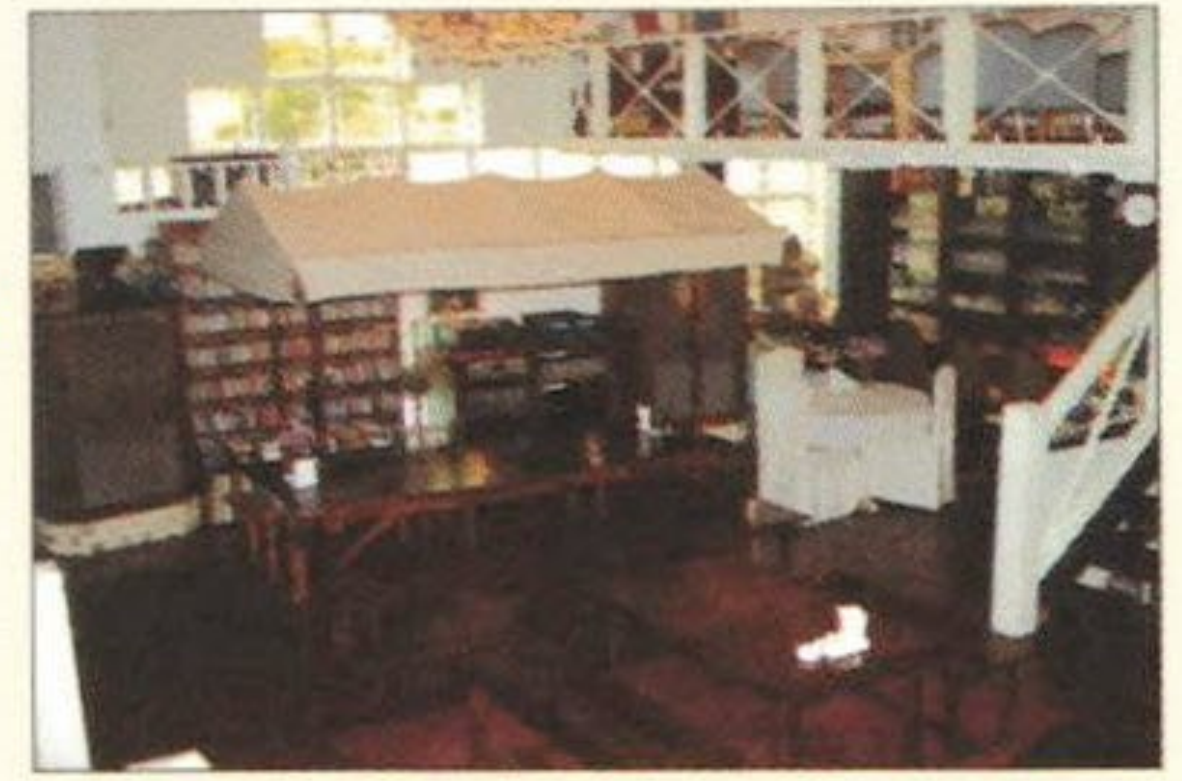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www.tu.ac.kr

동명의 Brain이 IT역사를 바꿉니다!

IT 세상을 즐겨라!



Global IT Brain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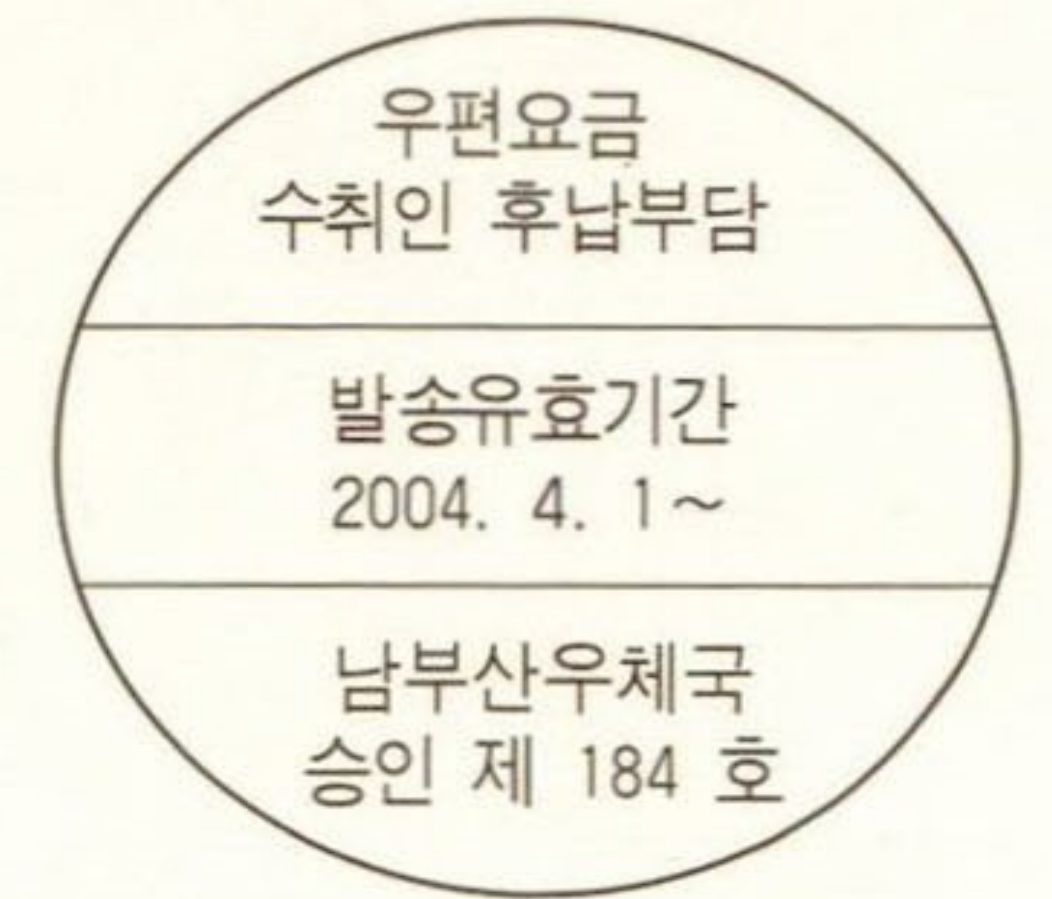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

세계 3대 발레단

키에프 쉘브첸코 발레단

주역들과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이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The Nutcracker

연말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클래식 발레의 3대 걸작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떠나는 환상여행!!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Kiev Boys & Girls Ballet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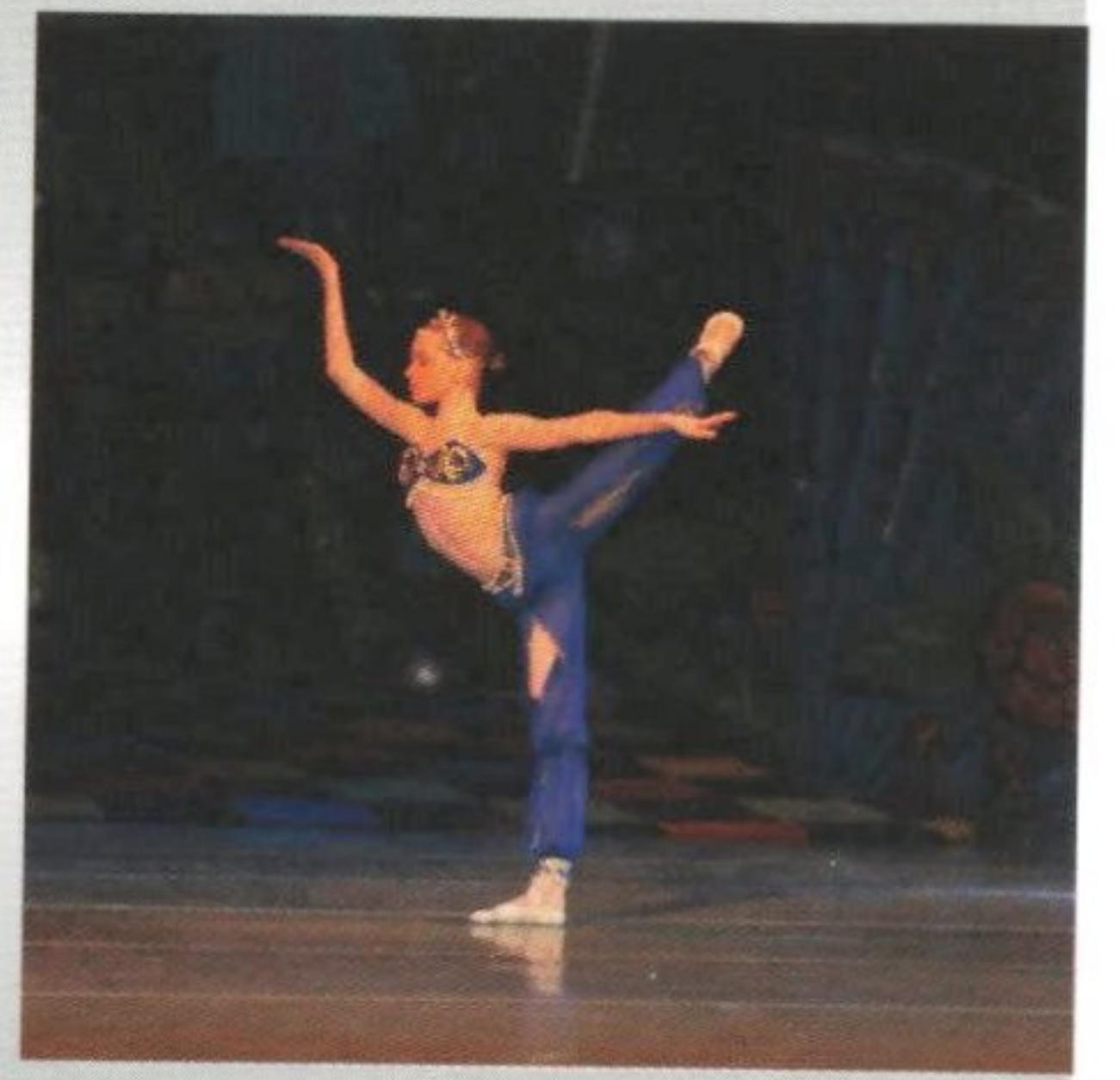
Kiev National Shevchenko Theater of Ballet & Opera Soloist

솔리스트

나탈리 마작(2004년 S.Lifar 인터내셔널 발레 대회 은메달)
아르텐 다츠신(1998년 R.Nyriev 국제 발레콩쿠르 우승)

보로디나 리나(Music World 국제콩쿠르 및 페스티벌 그랑프리)
쉐르바코프 미하일(Fouette of Artek 국제발레콩쿠르 1위)

치간코바 타티아나(Music World 국제콩쿠르 및 페스티벌 그랑프리)



2007년 12월 25일(화) 오후 5:00 - 2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주)PMG Korea

■ 입 장 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공연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예 매 처 | 부산은행 전지점



혜택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B석 제외)
• 4인가족 30% 특별할인(B석 제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07 제야음악회

*"Say Goodbye 2007,
Say Hello 2008"*

쇼 팡 '피아노 협주곡' 제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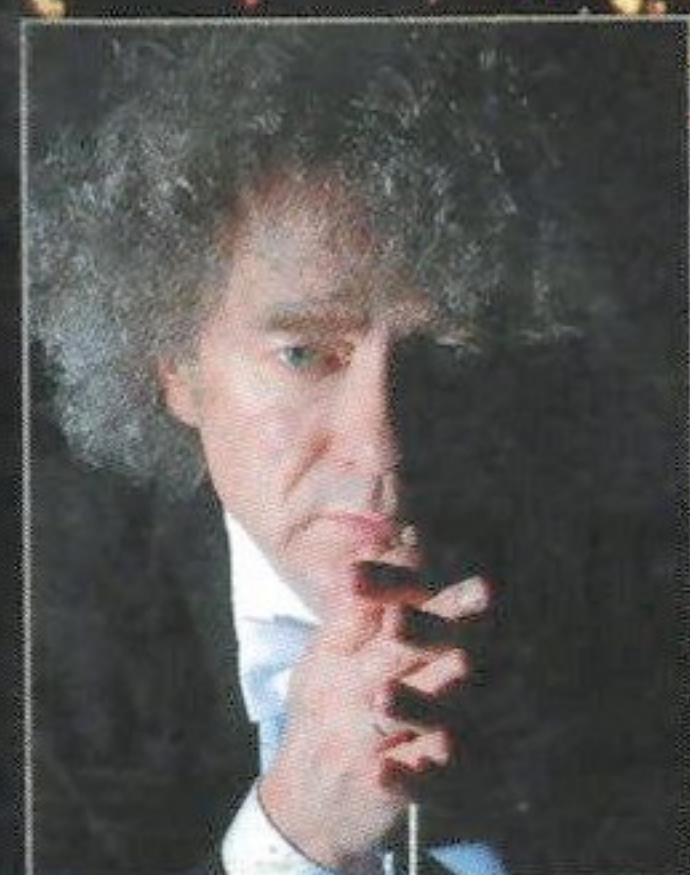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제4악장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제3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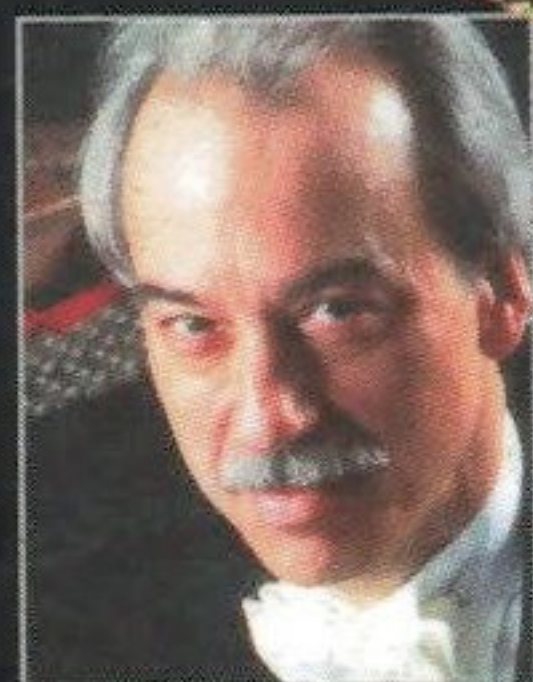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앤더슨 'The Girl I left behind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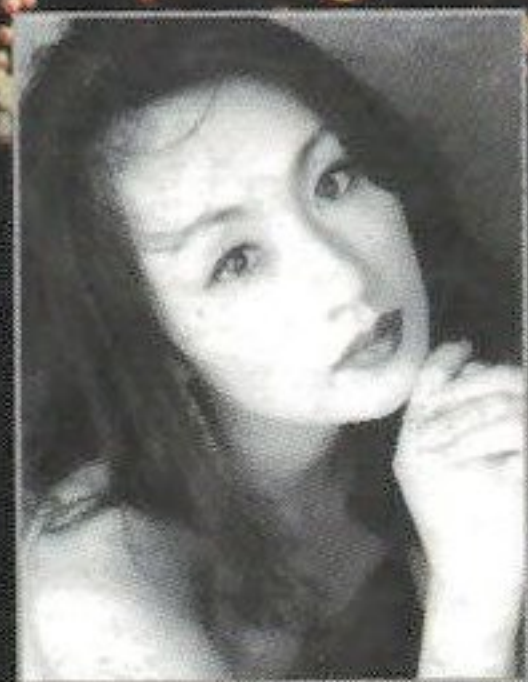
베르디, 라라, 레하르, 슈트라우스 외 수곡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피아노 · 에드워드 아우어



소프라노 · 박지현



테너 · 류정필



바이올린 · 박정은 황고는 이효진
권순지 조양선 황영은



※ 로비음악회 · 셀레스트(Celest)

※ 사회 · 육선주

2007. 12. 31(월) 오후 1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_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부산MBC

문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협찬 _ 동명대학교

입장권 _ R석 20,000원 S석 16,000원 A석 10,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3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 _ 부산은행 전지점